

2010년도 통계청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식사, 가사노동, 여가를 중심으로 한 가족공유시간 분석

연구책임자 : 김외숙(방송대)

공동연구원 : 이기영(서울대)

이연숙(고려대)

조희금(대구대)

연구보조원 : 한영선(고려대)

김하늬(고려대)

김주희(서울대)

윤용옥(방송대)

차 례

제1장 연구목적	6
제2장 선행연구 고찰	9
1. 가족공유시간	9
2. 가족공유 식사	11
3. 가족공유 가사노동	14
4. 가족공유 여가	17
제3장 연구방법	20
1. 연구내용	20
2. 연구방법	21
제4장 연구결과	27
1. 가족공유 식사	27
2. 가족공유 가사노동	44
3. 가족공유 여가	69
4. 가족공유시간 유형	115
제5장 결론 및 제언	125
1. 요약 및 결론	125
2. 제언	141
참고문헌	143
부록	173

표 차례

<표 3-1> 가족공유활동 목록	21
<표 3-2> 조사대상자의 특성	22
<표 4-1> 성인(20세 이상, 기혼)의 식사시간(식사 및 간식) 변화	27
<표 4-2> 성인(20세 이상, 기혼)의 식사시간 행위자 비율 및 평균시간의 변화	28
<표 4-3> 성인의 식사 평균 시간량	29
<표 4-4> 성인의 함께 한 사람에 따른 식사의 평균시간 및 비율(평일)	32
<표 4-5> 성인의 함께 한 사람에 따른 식사의 평균시간 및 비율(일요일)	32
<표 4-6> 가족공유 식사의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시간(평일)	34
<표 4-7> 가족공유 식사의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시간(일요일)	34
<표 4-8> 맞벌이 여부, 미취학자녀 유무 별 가족공유 식사시간(평일)	36
<표 4-9> 맞벌이 여부, 미취학자녀 유무 별 가족공유 식사시간(일요일)	36
<표 4-10> 가족공유 식사시간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평일)	40
<표 4-11> 가족공유 식사시간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일요일)	41
<표 4-12> 가족식사 공유 결정요인	43
<표 4-13> 가사노동시간량 및 비율(평일)	45
<표 4-14> 가사노동시간량 및 비율(일요일)	48
<표 4-15>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평일)	50
<표 4-16>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일요일)	
<표 4-17> 성인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시간	52
<표 4-18> 공유대상별 가사노동의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시간(평일)	56
<표 4-19> 공유대상별 가사노동의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시간(일요일)	58
<표 4-20> 맞벌이 여부, 미취학자녀 유무 별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평일)	61
<표 4-21> 맞벌이 여부, 미취학자녀 유무 별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일요일)	63
<표 4-22>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평일)	65
<표 4-23>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일요일)	66
<표 4-24> 가사노동 가족공유 여부의 결정요인	68
<표 4-25> 여가의 평균시간(평일)	69
<표 4-26> 여가의 평균시간(일요일)	70
<표 4-27> 가족공유 여가시간(평일)	72
<표 4-28> 가족공유 여가시간(일요일)	73
<표 4-29> 가족공유 여가의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평일)	75
<표 4-30> 가족공유 여가의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일요일)	78
<표 4-31> 공유 대상별 여가시간 비율(평일)	80
<표 4-32> 공유 대상별 여가시간 비율(일요일)	82
<표 4-33> 유미취학자녀, 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시간	

	(평일) _____	84
<표 4-34>	유미취학자녀, 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시간 (일요일) _____	85
<표 4-35>	유미취학자녀, 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평일) _____	86
<표 4-36>	유미취학자녀, 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일요일) _____	88
<표 4-37>	유미취학자녀, 비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시간 (평일) _____	89
<표 4-38>	유미취학자녀, 비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시간 (일요일) _____	90
<표 4-39>	유미취학자녀, 비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평일) _____	92
<표 4-40>	유미취학자녀, 비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일요일) _____	95
<표 4-41>	무미취학자녀, 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시간 (평일) _____	97
<표 4-42>	무미취학자녀, 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시간 (일요일) _____	98
<표 4-43>	무미취학자녀, 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 행위자 비 율 및 행위자 평균(평일) _____	99
<표 4-44>	무미취학자녀, 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 행위자 비 율 및 행위자 평균(일요일) _____	101
<표 4-45>	무미취학자녀, 비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시간 (평일) _____	102
<표 4-46>	무미취학자녀, 비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시간 (일요일) _____	103
<표 4-47>	무미취학자녀, 비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평일) _____	104
<표 4-48>	무미취학자녀, 비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일요일) _____	105
<표 4-49>	가족여가 공유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평일) _____	107
<표 4-50>	가족여가 공유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일요일) _____	110
<표 4-51>	가족여가 공유 결정요인 _____	112
<표 4-52>	가족식사, 가족공유 가사노동 및 가족여가 시간의 기초통계량_____	115
<표 4-53>	가족공유시간 유형별 빈도 및 표준화점수 _____	116
<표 4-54>	가족공유시간 유형별 세 차원점수의 분산분석 및 사후분석 결과 _____	118

<표 4-55> 평일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119
<표 4-56> 평일 유형별 시간정서의 비교	121
<표 4-57> 일요일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122
<표 4-58> 일요일 유형별 시간정서의 비교	124

그림 차례

<그림 1> 평일 함께 한 사람별 식사시간대별 분포	38
<그림 2> 일요일 함께 한 사람별 식사시간의 시간대별 분포	38

부록 차례

<부록 1> ‘함께 한 사람’ 보충설명 자료	173
--------------------------	-----

제1장 연구목적

시간은 자원으로써 그 자체가 중요한 동시에 인간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분석하면 그 안에 담긴 생활내용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나 삶의 질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는 1920년대 이후부터 경제학, 사회학, 가정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에 의해 실시되다가 1960년대 이후 신가정경제학과(New Home Economics)들이 가족 구성원들의 시장노동 공급결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1965년 Becker, G. S.가 발표한 시간배분 이론은 가계는 예산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장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을 배분하고, 가계소득과 임금률의 변화는 가족구성원의 시간배분을 변화시키게 됨을 설명하였다. 이후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는 가계 구성원간 시간배분에 관한 검증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실태파악 및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로서 실효성이 커지게 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전국 규모의 생활시간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방송공사, 통계청, 농촌진흥청 등에서 전국 규모의 생활시간조사가 이루어져 국민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뿐 아니라 각종 정책수립이나 학문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특히 생활시간의 국제비교(통계청, 이기영 외, 2001; 김외숙 외, 2005)는 국가간 통계자료 비교를 위한 통계조사방법의 개선과 생활시간비교를 통해 글로벌한 삶의 질을 위한 국가 목표 수립 및 정책 마련의 토대를 마련하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시간분석을 통해 가사노동의 국민경제 기여도를 밝힌 연구들(통계청, 김준영, 2001; 문숙재, 2001)은 시간자료가 단순히 생활시간배분 이상을 보여주는 가치가 있음을 밝히는 등 생활시간연구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생활시간조사는 행위자 개인이 어떠한 활동을 언제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조사항목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생활시간연구는 행위자별로 시간량과 시간대를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그런데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동일한 행동을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그 행동의 의미를 다양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특정행동을 특정인과 함께할 경우 특별한 기능이 부가되기도 한다. 특히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24시간 사회’의 특성이 강화되고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며, 장시간 노동과 장시간 학습 등으로 가족원이 함께 하는 시간이 감소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특정활동의 시간량이나 시간대 뿐만 아니라 특정활동을 함께 하는 대상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게 된다. 특히 시간연구의

대상을 개인의 활동시간 자체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시간(Family Time)으로 확대하는 것은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과 가족집단이 가족공동의 목표달성 및 욕구충족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 자원을 배분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생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실제적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가족의 공유시간이 가족간의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친밀감을 높이며 자녀교육과 사회화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대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가족의 식사시간과 자녀돌봄시간, 가족여가시간은 그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선진외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시간연구의 대상을 개인에서 가족단위로 확대하여 가족공유시간을 다양하게 연구해 오고 있다. 부부를 대상으로 두 개인의 생활시간구조를 비교하여 노동분담과 성평등차원에서 접근하던 기존의 시간사용연구는 부부가 얼마나 시간을 함께하고 부부의 생활일정이 얼마나 비슷한가(Kingston, Nock, 1987; Bryant, Wang, 1990)를 알아봄으로써 가족간 협력, 의사소통과 같은 가족의 순기능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녀양육과 교육을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부모시간(Parental Time)의 실태와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Bryant, Cathleen, 1996; Bryant, Zick, 1996; Bittman, 1999; Yeung, Sandberg, Davis-Kean, Hofferth, 2001; Bradbury, 2004; Barnet-Verza, Pailhé, Solaz, 2005). 1996년에는 발간된 단행본 'Families & Time'(Daly, K. J.)은 가족연구에 있어 시간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예라고 할 수 있으며, 2010년의 IATUR Conference에서 발표된 다수의 가족공유시간 관련 연구들(Rizavi & Sofer; Glorieux, Minnen & Tienoven; Cayer)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축적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가족공유시간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이기영·김외숙·구혜령(1995), 이승미(1997), 이승미·이기영(1998)의 연구가 전부라고 할 수 있고, 이 때 이용한 시간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지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다행히 통계청이 2009년의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 활동을 “함께 한 사람”에 대한 조사를 최초로 실시함으로써 행위자의 단위를 개인에서 가족 및 집단으로 확대시켜 시간사용에 공유의 개념을 적용한 연구가 가능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지금까지 공유시간에 관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시간자료의 제약을 극복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식사, 가사노동 및 여가활동을 누구와 함께 하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가족이 함께 하는지 여부가 관련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가족공유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가족공유행동이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으며 각 유형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가족의 일상생활방식과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문연구와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족공유시간의 실태를 분석하여 다양한 가족공유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 가족공유 여부가 관련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 가족공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각 영향요인이 가족공유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 가족공유시간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족공유의 조건을 고찰하여 개인-가족-사회 사이의 균형잡힌 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이 무엇인지를 논의함으로써 노동정책, 가족정책 및 여가정책 등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때 가족공유란 “가족관계에 있는 2인 이상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단위가 되어 활동을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장 선행연구 고찰

1. 가족공유시간

시간사용연구는 일반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역의 활동에 어떻게 시간을 소비하는지, 또는 시간사용이 관련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히는데 관심을 가져왔다. 최근 동일한 행동이라도 함께 한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족원으로 확대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의 흐름을 볼 때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공장제의 발전은 가정과 일터를 분리시키고 가족구성원의 역할분화를 이끌었다(Neil J. Smelser, 1959). 가정과 일터가 분리됨에 따라 남편은 주로 가족을 위한 생존수단의 공급자가 되었으며, 부인과 자녀들의 관심사는 각각 가족이나 가정 또는 학교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생활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또한 근대화(modernization)와 더불어 대두된 평등, 개인주의의 욕구와 산업적·기술적 사회질서가 요구하는 바를 보다 더 충족시키는데 기존의 확대가족체계보다 부부가족체계(conjugal family)가 적합하게 되었다. 확대가족체계로부터 부부가족체계의 변동은 가계(家系)보다는 개인을, 그리고 가족의 지속(持續)보다는 개인의 복지를 강조하고, 각 개인의 독특성(uniqueness)을 더 강조하게 되면서 가족의 기능, 가족관계, 가족내 권력 등 가족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오늘날 이상적인 가족관계란 상호작용하는 가족원 각 개인의 자율성과 독특성이 인정되면서 관계의 상호작용이 융통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정현숙·옥선화, 2008)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간은 적절한 가족공유활동을 통해 가족간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고 애정을 교환하며 정서적 지지와 유대를 형성하고 사회화되어야 하는 한편, 개별 활동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독자성을 형성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개인의 자아실현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개인은 가족 내에서 가족구성원과 함께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가족공유시간과 독립적인 개인 시간을 적절히 배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족은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 Davey와 Paolucci의 연구(1980)에 따르면 가족공유활동은 레크리에이션, 놀이, 방문과 같은 사교활동이 약 61%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함께 식사하기가 약 15%로서 사교활동과 가족식사가 전체 가족공유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원간 신체적 보살피기나 자녀 공부 도와주기, 책 읽어주기와 같은 가족보살피기가 13%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공유활동은 집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의 시간공유는 사회제도, 경제상황, 시대적 가치와 같은 거시적 환경과 가족

생활주기, 세대, 가족유형 등과 같은 미시적 가족환경, 성별, 교육수준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혼과 가족,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부모 및 부모자녀간의 공유활동의 내용을 변화시키며, 여성의 취업과 장시간의 임금노동은 가족공유를 위한 절대적인 시간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런데 2명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공유시간을 분석한 Bryant 와 Zick(1996)은 어머니의 수입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전통적인 자녀돌보기 시간은 감소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공유하는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증대한다는 점과 부모와 자녀가 공유하는 활동이 성역할 분리적인 성격이 있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동일한 가족내에서도 개별 가족구성원에 따라 가족공유시간에 대한 인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간일지 분석을 통해 맞벌이 부부간 공유시간을 분석한 Paul과 Steven(1987)은 남편과 부인이 지각한 공유시간의 양은 다를 수 있는 점을 밝혔는데 그 이유는 주행동과 동시행동에 대한 인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부가 함께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도 남편은 그 행위를 부부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으로 인지하는 데 반해 부인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옷을 개면 그 행위를 가사노동 공유시간으로 인지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연구에서 부부간 공유한 대화시간은 남편의 경우 약 10분인데 부인의 경우 약 13분이었고, 함께 한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남편은 57분, 부인은 44분으로 인지하였다. 공유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남편은 32분, 부인은 28분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부부의 수입노동시간과 수입노동 스케줄이 부부간 공유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이며, 사회경제적 계층과 가족생활주기는 부부의 공유시간에 매우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혔다. 또한 특정활동에 있어서 부부간 공유시간은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점도 밝혔다.

가족여가는 가족간의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친밀감을 높이며 자녀교육과 사회화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대사회의 가족관계의 위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여가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연구되어 왔으며, 식사시간은 개인유지를 위한 필수시간이지만 가족원의 의사소통의 장이며 세대간 문화전달 및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그 의미가 새롭게 확인되고 있다. 최근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가족이 함께 식사하기”가 강조되는 것은 식사시간이 가족의 공유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자녀에 대한 시간투자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족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부모중 한 사람의 자녀돌봄노동으로 인식하여 가사노동과 마찬가지로 노동분담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Fedick 등(2005)은 부모시간(Parental Time)을 주행동으로 행해진 자녀돌봄시간 뿐만 아니라 동시행동으로 행해진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실제로 비취업여성의 경우 자녀돌봄 외

에도 식사, 가사노동, 쇼핑, 자원봉사활동, 여가활동 중에도 자녀와 함께 하고 있음을 예로 들어 자녀돌봄 활동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동시행동들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가족공유시간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공유의 대표적인 활동영역인 식사, 가사노동 및 여가를 중심으로 각 활동영역별로 가족공유시간의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공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히며, 가족공유의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들을 파악한 후, 세 영역을 종합하여 가족공유시간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족공유 식사

2008년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아침 가족동반식사율은 58.5%(남 57.1%, 여 59.9%), 점심 가족동반식사율 19.6%(남 17.6%, 여 21.7%), 저녁 가족동반식사율 68.1%(남 66.0%, 여 7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산업화 이후 인구구조가 변화되었고, 그에 따라 가족제도와 구조도 변화되었다.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는 가족이 하나의 경제적 단위일 뿐만 아니라 가장의 사회적 단위가 가족원의 지위로 연결되는 가족중심의 사회였다. 산업화 이후 가족구조가 변화하여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중심이 되었으며, 개인의 지위나 활동도 자유로워져 개인단위 활동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구성원의 개별활동 증가는 가족 간 출퇴근 시간의 차를 발생시켰는데 통계청(2009) 「생활시간조사」에서는 평일 취업자와 학생의 출근 및 등교시각은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이고, 고등학생, 중학생, 취업자, 초등학생, 대학생 순으로 출근·통학시간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 및 하교 시각은 취업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가 가장 높고, 초·중학교학생은 주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높으며, 고등학생은 오후 9시와 10시 사이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출퇴근 시각과 등하교 시간의 차이는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의 감소(99' 40분 → 09' 37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변화, 교육수준 향상 등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유배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0년 45.1%, 2000년 48.7%, 2008년 49.8%인 것으로 나타났는데(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이러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감소시킨 반면 개별 가족구성원의 혼자 식사율을 증가시켰고, 외식율의 증가, 식생활의 서구화 및 간편화 등의 변화를 가져와 가족구성원들의 영양불균형 문제, 가족 간 유대감 저하, 식습관 및 식생활교육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는 단지 함께 먹는 행위만이 아닌 함께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가족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게 되고, 가족 공동체 의식 및 세대 간 가족 문화의 전달과 창조, 자녀교육 및 사회화, 행복한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정한 형식을 갖추

고 매일 반복되는 가족식사야말로 가족의 의식을 대표하는 것이며, 가족식사시간 중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가족간 친밀감을 높이고(Carson, 2006; Eisenberg, Olson, Neumark-Sztainer, Story & Bearinger, 2004; Franko, Thompson, Affenito, & Barton 2008; USDA, 2006), 가족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 최근 가족식사가 가지는 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식사가 자녀의 언어습득능력, 대화의 능력, 타협과 설득의 능력 등을 키워주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며 비만이나 섭식장애를 방지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와인스타인, 2006).

가족식사는 건전한 식습관의 형성(이지은, 정인경, 2005; Waxman, 2006), 건강유지 및 건강수준의 향상(김현아, 2004; 박건영, 2006; 아다치 미유키, 2000; Barbara & Marlene, 2008),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되면서 식예절에 도움이 되는 것(Fulkerson, Neumark-Sztainer & Story, 2006)으로 나타났고, 자녀들의 학교성적을 높이고 자녀들의 비행(음주, 마약 등)을 낮추는 것(국립서울병원, 2006; Compan, Moreno, Ruiz & Pascual, 2002; Eisenberg *et al.*, 2004; Moreno & Galiano, 2006; Nancy, 2006)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어린시절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는 자녀들이 후에 청소년이 되었을 때 스트레스를 낮추고,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요소이며(Franko *et al.*, 2008),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심리적 우울증을 치료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Eisenberg *et al.*, 2004). 박건영(2006)은 초등학생들의 가족식사와 영양섭취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는 영양소 섭취의 균형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고, 이지은과 정인경(2005)은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식사가 자녀들의 식습관에 유의미한 요소임을 보고하였다.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의 양에 초점을 둔 연구들을 보면, Davey와 Paolucci(1980)는 가족 공유시간과 공유활동을 통해 가족간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는데 총 가족상호작용은 사회적 활동, 식사, 가족간 보살피기 활동에서 주로 일어나며,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이 총 가족상호작용에 주요한 투입요소임을 보고하였다. 가족원들이 함께 하는 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레크리에이션, 놀이, 방문과 같은 사회적 활동으로 약 61%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함께 식사하기로 약 15%를 차지하여 사회적 활동과 함께 식사하기가 전체 공유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식사시간은 과거보다 감소하여 인간발달과 가족간의 유대감 형성, 의사소통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주장하였다. Paul과 Steven(1987)의 연구에서는 홀벌이 가정의 경우 가족식사시간은 남편은 47.6분, 부인은 40.5분으로 나타났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 남편은 42.1분, 부인은 33분으로 나타나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남편의 가족식사 시간이 부인의 가족식사 시간에 비해 길었다. 그리고 남편의 가족식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동시간과 결혼지속년수, 비노동일정으로 나타난 반면 부인의 경우 노동시간, 비노동일정, 가계소득으로 나타났다. Bryant와 Wang(1990)은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에

관한 연구에서 부부는 51.9분간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부부가 함께 하는 식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인의 임금률, 부인의 교육수준, 자녀의 연령, 요일 등으로 보고하였다. Gatenby(2004)는 영국의 2000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성인 커플의 부부 공유시간을 연구하였는데, 성인커플의 공유시간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TV 시청시간이었고, 그 다음이 식사시간으로 주중에는 27분을, 주말에는 41분(토요일 38분, 일요일 43분)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시간사용조사 결과를 활용한 Lesnard(2008) 연구에서는 맞벌이 자녀가 없는 가정의 가족 식사시간은 1시간 9분으로 나타났고, 맞벌이 자녀가 있는 부부들의 가족 식사시간은 50분으로 나타났다. 이승미와 이기영(1998)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식사공유시간은 평일에는 41.1분, 토요일 49.9분, 일요일 85.2분으로 나타났고, 부인의 취업은 식사공유시간에 부적적인 영향을 주고, 부인의 가족응집성은 식사공유시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최근 연구들에서 가족식사의 효과 및 중요성이 입증되면서 사회적 차원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주정부가 매년 9월 넷째 월요일을 가족식사의 날로 정해 가족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뉴저지주 리지우드에서는 특정일을 정해 학생들에게 숙제나 학교행사 등을 없애고 ‘가족의 밤’을 만들어 가족이 같이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국립서울병원, 2006). 영국정부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식사하자’는 사회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영양상 균형 있는 식사를 도모하고, 정크푸드 섭취를 줄이며, 가족 간 대화시간을 늘려 사회문제를 예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중앙일보, 2006). 우리나라에서도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주도하여 2010년부터 전국 20개 초등학교(서울 3곳, 부산 1곳, 인천 1곳, 광주 1곳, 대전 1곳, 울산 1곳, 경기 6곳, 충북 1곳, 충남 1곳, 경북 1곳, 경남 1곳, 전북 1곳, 전남 1곳)를 선정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아침밥 먹기를 통한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가족과 함께 하는 아침식사시간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가족식사의 의미가 재조명되면서 가족식사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족식사 시간의 증대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에 관한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미비하였고, 연구들이 대부분 영양학적 측면에서 가족식사가 성장기 심리적 안정과 건강, 식습관, 그리고 비만 등에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하여 가족식사의 시간량과 시간대의 분석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고 그 동안의 가족식사 시간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표성이 큰 전국규모의 자료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표본을 추출한 제한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가족식사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과 혼자 하는 식사시간, 가족 외 사람과 하는 식사시간을 아침, 점심, 저녁시간대로 나

누어 요일별로 분석하며, 가족공유 식사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3. 가족공유 가사노동

가사노동시간은 생활시간을 구성하는 생리적 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사회문화적 시간의 4영역 중 하나로서 가족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노동력을 소비하는 시간이라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투입하는 시간의 양이나 가족원간의 배분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또한 개인의 가사노동시간 뿐 아니라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가 성별 분업이나 양성 평등의 한 척도로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부부간의 역할분담으로 인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를 가족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인식하는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음식준비, 의류관리, 집청소 등의 가정관리에 속하는 세부활동은 개인이 행하는 가사노동활동으로 인식하여 노동 분담적 차원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자녀돌보기, 부모조부모 보살피기 등의 가족보살피기 시간도 돌봄노동으로 인식하여 노동 분담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Bittman, 1999; 채로, 이기영, 2004; 김정석, 2005; 손문금, 2005; Bonke & McIntosh, 2005; 김수정, 임은지, 2007; 은기수, 2009).

가사노동을 가족이 공유하는 시간의 하나로 주목한 연구는 가정생활을 가족이 함께 하는 경험을 통해 생리적, 정서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으로 인식한 연구(이승미, 1997)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승미(1997)는 가족공유는 시간 자원의 동시적 배분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간공유의 방식은 가족의 결속이나 정서적 친밀감을 높여주는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공유를 공유 대상에 따라 부부공유시간, 모자 고유시간, 부자 공유시간, 부모 자녀 공유시간으로 분류하였는데, 가사노동 중 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세탁, 시장보기와 같은 가정관리 관련 활동은 함께 한 사람에 따라 다양한 조합의 가족공유로 간주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자녀돌보기는 어떤 활동을 공유시간으로 포함시키는지, 그리고 공유시간으로서의 자녀돌보기 활동이 가사노동과 여가 중 어느 영역으로 파악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공유시간의 기준을 공유활동을 통해 쌍방 간에 얼마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로 규정할 경우(이승미, 1997), 자녀돌보기는 두명 이상의 가족원이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또한 돌봄노동이라는 서비스를 특정 가족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족공유 가사노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배우자돌보기, 부모 및 조부모돌보기 등 가족보살피기도 중요한 가족공유 가사노동이라고 볼 수 있다.

가사노동을 가족 공유시간으로 인식한 연구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배우자와 함께 한 가사활동의 시간량 및 부부간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보내는 가족보살피기시간도 시간량 및 부부간의 인식차이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가사노동을 배우자와 함께 한 시간으로 인식한 연구로는 가사노동 공유시간량에 대한 연구와 남편과 부인의 가족공유 가사노동 활동에 대한 인지의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Paul & Steven, L. N., 1987; Bryant & Wang, 1990; 이승미, 이기영, 1998; 손문금, 2010).

Bryant & Wang(1990)은 배우자와의 공유시간을 분석한 결과 거의 반(48.3%)에 가까운 부부가 가사노동을 공유했고 공유한 사람들의 평균시간은 1시간 08분으로 나타났으며, 부인의 경우 45.8%가 남편과의 가사노동시간을 공유했으며 그 시간은 1시간 11분이었다. 맞벌이 부부의 일상생활시간과 가족공유시간을 분석한 손문금(2010)에 따르면 부부의 가족공유시간이 가장 적은 활동은 가족보살피기, 가정관리, 교제 및 여가시간, 미디어이용시간, 가족과의 식사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 가족공유시간이 여가활동과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 맞벌이 부부의 공유시간 분석을 한 Paul & Steven(1987)의 연구에서는 부부가 함께 TV를 보는 여가활동시간 동안 옷을 개키는 가사활동을 같이 하면서 가족공유시간을 보낸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이 부부간에 다르게 인지되고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들도 있다. 앞에서 제시한 Paul & Steven(1987)의 연구에서는 부부가 함께 같은 장소에서 TV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그 행위를 부부가 TV를 함께 보는 시간으로 인지하는데 반해 부인은 TV를 보면서 옷을 개키면 동일한 그 행위를 가사노동 공유시간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남편과 부인이 지각한 공유시간의 양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승미, 이기영(1998)의 연구에서도 부부간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가족응집성과 남편의 가족응집성은 자녀를 돌보는 시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데, 자녀돌보기가 어머니에게는 의무적인 특성을 지니는데 반해 아버지에게는 선택에 의한 결과로서 즐거움이나 만족을 줄 수 있는 반영가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직장관련역할에 몰두한다고 인식할수록 가족공유시간을 소홀히 하며 그중 특히 자녀돌보기에서 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손문금(2010)의 결과에서도 청소, 빨래, 음식 만들기, 쇼핑 등 가정관리 행동의 부부공유시간은 남편들이 응답한 공유시간보다 부인들이 인식하는 공유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보살피기 시간을 개인의 가사활동 또는 돌봄노동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을 하는 가족공유시간으로 본 연구들도 있다(Davey & Paolucci, 1980; Bryant & Zick, 1996; Gatenby, 2004; Fedick 등, 2005; Chalasani, 2007).

자녀보살피기 가족공유 시간량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Davey & Paolucci

(1980)는 공유시간과 공유활동을 통해 가족 간 상호작용을 연구한 결과 가족상호작용은 사회적 활동, 식사, 가족 간 보살피기 활동에서 주로 일어나며, 가족원간 신체적 보살피기나 자녀 공부 도와주기, 책 읽어주기와 같은 가족보살피기는 13%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공유활동은 집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부부의 부부 공유시간을 연구한 Gatenby, R.(2004)에 따르면 가사노동과 자녀 돌보기 시간(쇼핑 시간 제외)을 주중에는 18분, 주말에는 38분을 부부가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edick 등(2005)은 부모시간(parental time)에 주행동으로 행해진 자녀보살피기 시간 뿐만 아니라 동시행동으로 행해진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실제로 비취업여성의 경우 자녀돌봄 외에도 식사, 가사노동, 쇼핑, 자원봉사활동, 여가활동 중에도 자녀와 함께 하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자녀돌봄 활동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동시행동들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자녀보살피기 가족공유시간이 여가와 혼합되어 나타난 연구도 있다. 부모와 어린 청소년이 있는 유럽-미국계의 55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여가 경험을 연구한 Larson, Gillman, & Richards(1997)에 따르면, 가족여가 활동 시 가정 내 어머니의 역할은 가족을 보호하고 자녀를 돌보며 가정을 관리하는 역할과 여가가 자주 혼합되어 나타났다.

자녀보살피기 가족공유시간의 부부간의 시간량 및 인식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를 보살피는 시간을 부부가 서로 다르게 인지하고 있었다. 부부를 대상으로 개인의 생활시간구조를 비교하여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의 실태와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의 차이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Bryant, Cathleen,1996; Bryant, Zick, 1996; Bittman,1999; Yeung, Sandberg, Davis-Kean, Hofferth, 2001; Bradbury, 2004; Barnett-Verza, Pailhé, Solaz, 2005). 자녀보살피기 가족공유 시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수입노동시간, 부모의 교육수준을 제시하고 부부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Bryant & Zick(1996)은 2명의 자녀를 가진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공유시간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어머니의 수입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자녀 공유 가사노동시간은 증대하였으며, 자녀 성별에 따라 부모와의 공유활동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는 식사준비와 가족돌보기 활동을 주로 딸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고, 아버지는 집, 자동차, 정원 관리 등을 주로 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 공유시간의 양과 활동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와의 공유시간 차이를 연구한 Chalasani(2007)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들이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보내고 있으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길지만 그 차이가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에서 더 적다고 보고하였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노동시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대부분의 가사노동이 사회화됨에 따라 가족이 서로 상호작용

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가족간의 상호작용 및 유대관계가 중요해짐에 따라 가족이 함께 지내는 시간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 활동의 차원에서 역할분담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져 왔던 반면, 최근에는 가사노동을 누구와 함께 하는지, 가족공유 가사활동에 관한 부부간의 인지에 차이가 있는지 등 가사노동을 가족공유로 보는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가사노동을 가족공유시간으로 보는 연구는 아주 적으며, 주로 집에서 여가와 병행하는 동시 활동으로 분석되고 있을 뿐이며, 가사노동 자체를 가족공유로 보는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가족공유 가사노동에 대해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성별, 요일별 가족 공유 가사노동시간의 실태를 분석하고, 가족공유 가사노동 여부에 따른 특성의 차이와 가족공유 가사노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 가족공유 여가

인간은 혼자서라도 여가를 즐길 수 있으나 사회적 존재로서, 여가생활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타인이 필요한데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이 특히 중요한 여가 집단으로 가능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여가활동이 가족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의 공유여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가 발견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족공유 여가를 분석한 연구와 여가이외의 다른 활동의 가족 공유시간을 분석한 연구 중 여가활동 공유 시간 분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간의 여가공유, 부모자녀간의 여가 공유, 가족 전체와의 여가공유와 관련된 연구와 이러한 여가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부부간 여가 공유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겠다. Orthner(1974)는 미국의 남동부 지역 도시의 부부(남편 216명; 부인 226명)부부의 여가 유형을 개별여가활동(individual leisure activities), 평행여가활동(parallel leisure activities), 공유여가활동(joint leisure activit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별활동은 다른사람과의 소통을 하지 않고 혼자 하는 여가활동이고, 평행활동은 다른사람들과 함께 하긴 하지만 공동의 관심이 있는 자극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한적인 여가활동이고, 공유활동은 행위의 수행 완수를 위하여 참가자들 사이에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혼자서 하는 개별여가활동이 전체 여가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1%로 가장 높았고(평행여가활동, 24.5%; 공유여가활동, 31.7%) 가족생활 주기(marital career periods)가 부부의 여가활동 유형이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안동선(1982)은 배

우자를 중심으로 하여 여가활동을 ‘혼자형’, ‘parallel형(37.2%)’, ‘남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joint형’으로 구분했는데 ‘남편과의 joint형(33.7%)’에 보내는 시간이 가장 적고 ‘혼자형(45.4%)’에 보내는 시간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남편과 여가시간을 공유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영, 김외숙, 구혜령(1996)의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291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공유여가 시간과 결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부부는 주중에는 1시간 18분, 토요일에는 2시간 53분, 일요일에는 5시간 32분을 여가시간을 공유하고 있었고, 부부공유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편의 나이와 교육수준과 부인의 취업여부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들이 여가시간을 공유할수록 남편과 부인의 결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공유와 결혼만족도와의 긍정적 관계는 Knowles(2010)연구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Kingston 과 Nock(1987)은 177명의 미국 부부 대상으로 조사한 시간일지를 분석하여 부부 사이의 공유시간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추정된 공유시간을 분리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여가공유와 관련된 활동인 ‘Fun’, ‘담화’, ‘TV 시청’ 부분을 살펴 보면 ‘Fun’ 활동의 경우는 비맞벌이 남편은 36.9분 부인은 46.4분, 맞벌이 남편은 31.6분, 부인은 27.8분을 부부가 공유한다고 응답하였고; ‘담화’활동의 경우는 비맞벌이 남편과 부인 모두 18.5분, 맞벌이 남편은 10.7분, 부인은 12.7분을 부부가 공유한다고 응답하였고; ‘TV 시청’의 경우는 비맞벌이 남편은 74.2분 부인은 61.6분, 맞벌이 남편은 57.2분, 부인은 44.4분을 부부가 공유한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비맞벌이 부부가 맞벌이 부부보다 여가관련 공유활동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총 노동시간, 휴무시간, 가족지위, 결혼 지속기간 등이 세가지 부부 공유 여가활동 모델에서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2000년도 시간일지 조사를 분석하여 부부간 공유 시간을 분석한 Gatenby(2001) 연구에서 부부의 총여가 공유 시간을 보면 주중에는 4시간 38분, 주말에는 6시간 13분으로 나타났다. 여가 시간 중 가장 공유시간이 긴 활동은 TV 시청으로 나타났는데 주중에는 2시간 16분 주말에는 2시간 38분으로 나타났다. Barnett-Verzat, Palhe, 와 Solaz(2007)은 프랑스의 시간조사 자료(INSEE 1998-1999)를 이용하여 부부의 여가 공유에 자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활동을 동시에 하는 여가 공유시간은 전체 응답자의 경우 주중에는 9시간 21분이고 주말에는 12시간 16분이고 전일제로 일하는 배우자를 가진 응답자의 경우 주중에는 8시간 58분이고 주말에는 11시간 52분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주말에 부부간 여가 공유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TV시청 공유가 모든 공유활동 중 주중에는 2위, 주말에는 3위 공유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시간은 각각 42분과 57분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오락과 문화활동 공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활동들이 드물게 행해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부부의 여가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편과부인의 노동시간, 연령, 직업유형, 업무스케줄, 교육수준, 평일 혹은 휴일여부, 자녀 연령과 숫자로 나타났다.

다음에는 부모 자녀와의 여가 공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이승미와 이기영(1998)의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 연구에서 부모자녀와의 공유시간은 생활시간 영역에 관계없이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갈수록 부모와 자녀의 공유 시간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긴 공유여시간은 TV 시청시간으로 나타났다. 부모 자녀의 적극적 여가 공유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 자녀 연령, 부인의 취업여부, 가계소득, 남편의 결혼관, 남편의 가족 응집성이었고, TV 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 자녀 연령, 부인의 교육수준, 부인의 취업여부, 남편의 취업역할 중요도, 남편의 가족 응집성으로 나타났다. 1997년의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자료를 활용하여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 1,761명 대상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다양한 활동의 공유시간을 분석한 Yeung, Sandberg, Davis-Kean,과 Hofferth(2001)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중 아버지-자녀 공유 놀이(play/companionship)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의 연령대, 아버지의 소득과 주당 노동시간, 연령, 어머니 소득이고, 공유 사회적활동(social activit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의 연령대, 아버지의 교육수준, 자녀 유무로 나타났다. 2명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 부모 자녀간 다양한 공유 활동을 분석한 Bryant와 Zick(1996)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수입노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자녀간 공유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부, 부모자녀, 가족공유 시간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Roeters와 Treas(2010)는 적어도 한 자녀가 있는(minor children)898명의 Dutch 부부의 시간 일지를 대상으로 부모의 직업요구가 부모자녀공유, 가족공유, 부부 여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자녀 공유 여가에는 아버지 노동시간,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이; 어머니-자녀 공유 여가에는 전일제 맞벌이 부부여부, 막내자녀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이; 가족여가 공유 활동은 아버지의 총 노동시간, 막내자녀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이, 부부의 공유여가활동에는 전일제 맞벌이 부부여부, 아버지의 노동시간, 막내자녀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노동시간, 막내자녀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이 모든 유형의 가족 공유 여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Davey와 Paolucci(1980)는 다양한 활동을 대상으로 가족 간 공유시간과 공유활동을 통해 가족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부모와 1명 또는 2명 또는 3명의 자녀로 구성된 126가족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중 공유 여가활동(social) 분석 결과를 보면 부부간 여가 공유시간은 집에서 아침에 20분, 모든 가족이 공유하는 여가는 저녁에 집에서 1시간, 모든 자녀가 공유하는 여가는 저녁에 집에서 40분; 부모와 2자녀가 공유하는 여가는 아침에 집에서 15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은 식사, 가사노동, 여가라는 세 영역의 활동을 통하여 가족공유시간을 파악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전국규모로 함께 한 사람을 처음 조사한 자료를 이용한 점을 고려하여 가족공유시간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자 한다. 다음으로 각 활동에 대한 공유여부가 관련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공유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가족공유 여부를 유형화한 후 유형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분석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족공유시간의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가족공유 식사의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3> 가족공유 여가의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족공유 여부는 관련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1> 가족공유 식사 여부는 관련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2> 가족공유 가사노동 여부는 관련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3> 가족공유 여가 여부는 관련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가족공유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1> 가족공유 식사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2> 가족공유 가사노동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3> 가족공유 여가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4> 가족공유시간의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1> 가족공유시간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연구문제 4-2> 가족공유시간의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식사, 가사노동, 여가를 각각 통계청의 행동분류를 기준으로 중분류의 ‘식사 및 간식’(12), 대분류의 ‘가정관리(4)’와 ‘가족보살피기(5)’, ‘교제 및 여가활동(7)’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세 영역의 활동을 중심으로 가족공유시간을 분석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가족식사, 가사노동, 가족여가가 가족이 함께 하는 대표적인 활동영역으로 밝혀진 점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영역의 활동 중 통계청의 자료로 공유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도 관련된다.

<표 3-1> 가족공유활동 목록

연구 내용	활동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식사	1. 개인유지	12 식사 및 간식	121 가족과의 식사 122 그 외의 식사 1221 혼자 식사 1222 가족 외 사람과의 식사
가사 노동	4. 가정관리	41 음식준비 및 정리 42 의류관리 43 청소 및 정리 44 집 관리 45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46 가정경영 49 기타 가사일	
	5. 가족 보살피기	51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52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53 배우자 보살피기 54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55 그 외 가족 보살피기	
여가	7. 교제 및 여가활동	71 교제활동 72 일반인의 학습 73 미디어 이용 74 종교활동 75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 76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 활동 77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78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79 기타 여가 관련 행동	

2. 연구방법

1) 분석자료와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이 2009년 실시한 제3차 국민생활시간조사 원 자료이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혼자 중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로 제한하였고 농가 및 단독가구는 제외하였다. 연령을 20~59세의 성인으로 한정 한 이유는 “함께 한 사람”의 분류항목이 ① 혼자, ② 배우자, ③ 미취학자녀, ④ 그 외 가족·친척, ⑤ 기타로 나뉘어져 있어 미성년자녀의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모와의 공유시간을 파악할 수 없고, 노인의 경우 60대 미만의 성인과 비교할 때 상당히 다른 가족구성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기혼자로서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로 한정된 이유는 미혼자의 경우 20~59세 연령이라 하더라도 가족관계가 기혼자와 다른 특징을 고려하였고, 농가를 제외한 이유는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이 주의를 받는 이유 중 상당부분이 사회의 산업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농업생산활동을 하는 가족은 제외하였으며, 가족공유가 가족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단독가구를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함께 한 사람”에 대한 조사가 “주행동”에 제한되어 있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주행동”을 분석대상행동으로 하였고, 요일별 비교를 위하여 평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생활시간조사 분석은 요일별 차이를 고려하여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거나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일별 차이를 대표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토요일을 제외하였다.

분석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분석대상자 : 20~59세의 기혼자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
 농가 및 단독가구 제외
- 분석대상 행동 : ‘주행동’으로서의 식사, 가사노동, 여가
- 분석 요일 : 평일, 일요일

최종적으로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특징은 <표 3-2>와 같으며, 분석에 사용된 시간일지는 14,614개(평일 10,902개, 일요일 3,712개)이다.

<표 3-2> 조사대상자의 특성

단위:빈도(%)

변수	구분	전체 (9,179)	성별	
			남(4,267)	여(4,912)
연령	20-29세	460(5.0)	145(3.4)	315(6.4)
	30-39세	2,779(30.3)	1,195(28.0)	1,584(32.2)
	40-49세	3,651(39.9)	1,787(41.9)	1,871(38.1)
	50-59세	2,282(24.9)	1,140(26.7)	1,141(23.2)
	평균(표준편차)	43.2세(8.3)	44.0세(8.0)	42.5(8.5세)
교육수준	중졸	1,496(16.3)	529(12.4)	967(19.7)
	고졸	4,453(46.6)	1,933(45.3)	2,520(51.3)
	대졸	2,927(33.8)	1,589(37.2)	1,338(27.2)
	대학원	303(3.3)	432(5.1)	87(1.8)
경제활동여부	합	6,757(73.6)	408(93.9)	2,749(56.0)
	하지 않음	2,422(26.4)	259(6.1)	2,163(44.0)

직업	관리자·전문가	1,445(15.7)	959(22.5)	486(9.9)
	사무직	1,113(12.1)	694(16.3)	419(8.5)
	서비스·판매직	1,732(18.9)	646(15.1)	1,086(22.1)
	농림·기능원·장치·단순노무직	2,459(26.8)	1,702(39.9)	757(15.4)
	해당사항없음	2,430(26.5)	266(6.2)	2,164(44.1)
노동시간	40시간 이하	2,145(23.4)	973(22.8)	1,172(23.9)
	41-50시간 이하	1,914(20.9)	1,217(28.5)	697(14.2)
	51-60시간 이하	1,381(15.0)	935(21.9)	446(9.1)
	61시간 초과	1,319(14.4)	885(20.7)	434(8.8)
	해당사항없음	2,420(26.4)	257(6.0)	2,163(44.0)
개인 월평균소득	없음	2,310(25.2)	80(1.9)	2,230(45.4)
	100만원 미만	1,549(16.9)	345(8.1)	1,204(24.5)
	100~200만원 미만	2,315(25.2)	1,298(30.4)	1,017(20.7)
	200~300만원 미만	1,593(17.4)	1,316(30.8)	277(5.6)
	300만원 이상	1,412(15.4)	1,228(28.8)	184(3.7)
주휴제도	주 1일	2,087(22.7)	1,249(29.3)	838(17.1)
	토요 격주, 주 2일	2,737(29.8)	1,656(38.8)	1,081(22.0)
	기타	1,935(21.1)	1,105(25.9)	830(16.9)
	해당사항없음	2,420(26.4)	257(6.0)	2,163(44.0)
배우자유무	있음	8,745(95.3)	4,130(96.8)	4,615(94.0)
	없음(사별, 이혼)	434(4.7)	137(3.2)	297(6.0)
성역할 태도	전통적	3,864(42.1)	2,153(50.5)	1,711(34.8)
	근대적	5,315(57.9)	2,114(49.5)	3,201(65.2)
미취학자녀 존재유무	있음	2,234(24.3)	1,105(25.9)	1,129(23.0)
	없음	6,945(75.7)	3,162(74.1)	3,783(77.0)
맞벌이여부	맞벌이	4,407(48.0)	2,123(49.8)	2,284(46.5)
	비맞벌이	4,772(52.0)	2,144(50.2)	2,628(53.5)
시간부족감	예, 항상	2,946(32.1)	1,457(34.1)	1,489(30.3)
	예, 가끔	4,253(46.3)	2,000(46.9)	2,253(45.9)
	아니오, 거의	1,606(17.5)	662(15.5)	944(19.2)
	아니오, 전혀	374(4.1)	148(3.5)	226(4.6)
피곤함	예, 항상	2,894(42.8)	1,649(41.1)	1,245(45.3)
	예, 가끔	3,175(47.0)	1,957(48.8)	1,218(44.3)
	아니오, 거의	638(9.4)	369(9.2)	269(9.8)
	아니오, 전혀	52(0.8)	35(0.9)	17(0.6)
생활시간만족도	만족	2,953(32.2)	1,347(31.6)	1,606(32.7)
	보통	4,607(50.2)	2,152(50.4)	2,455(50.0)
	불만족	1,619(17.6)	768(18.0)	851(17.3)

2) 분석방법

먼저 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활시간자료와 가구원자료를 통합한 후 PASW 18.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가족공유시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균, 백분율 등 기술통계를 계산하였고, 이때 가중치를 반영함으로써 분석결과를 우리나라 성인기혼자의 가족공유시간으로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변수에 따른 가족공유 여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 및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가족공유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공유시간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3)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가족공유시간과 가족공유 여부이다. 2009년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함께 한 사람을 ① 혼자, ② 배우자, ③ 미취학자녀, ④ 기타 가족·친척, ⑤ 기타의 5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했는데 ‘가족공유’ 즉 ‘가족관계에 있는 2인 이상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단위가 되어 활동을 함께 한다’는 것은 ② 배우자, ③ 미취학자녀, ④ 기타 가족·친척이 함께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 함께 한 사람이 복수응답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가족공유시간은 ② 배우자, ③ 미취학자녀, ④ 기타 가족·친척을 합한 값이 아니고 총활동시간에서 ① 혼자 하는 시간 및 ⑤ 기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제외한 값이 된다. 여기에서 친척이 가족으로 포함되는 문제가 있는데, 한국인의 가족과 친척의 구분은 개인차가 많을 뿐만 아니라 친척과 함께 하는 시간량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④ 기타 가족·친척 항목을 가족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식사시간의 경우 활동항목 자체(소분류)가 ‘가족과의 식사’, ‘혼자 식사’, ‘가족외 식사’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들 항목을 분석하여 식사를 혼자 한 사람과 가족과 함께 한 사람, 가족 외 사람과 함께 한 사람의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족과의 식사”가 부부, 부-자녀, 모-자녀, 부모자녀 중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시간대분석을 통해 어떤 가족구성원들이 동시에 ‘가족과의 식사’를 했는지 분석하여 함께 한 사람을 ‘배우자’, ‘미취학자녀’, ‘기타 가족·친척’으로 분류하였다.

식사의 종류는 ‘가족과의 식사’에 대한 시간대 분석을 통해 통계청의 기준에 맞추어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로 구분하였다.

- 아침식사 시간: 오전 3:40시간대 부터 오전 10:40시간대 까지
(오전 03:40~오전 10:50시)

- 점심식사 시간: 오전 10:50시간대 부터 오후 4:30시간대 까지
(오전 10:50~오후 04:40시)
- 저녁식사 시간: 오후 4:40시간대 부터 자정 11:50시간대 까지
(오후 04:40~자정 12:00시)

가사노동은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족보살피기의 경우 통계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함께 한 사람과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에는 차이가 있다. 통계청에서는 ‘함께 한 사람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주행동 자체를 아는 누구와 함께하였는지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동일 행동이라도 행동이 주고받는 관계일 경우(서비스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함께 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엄마가 미취학자녀 어린이집 데려다주기’의 경우 함께 한 사람은 「혼자」라고 본다(부록 1 참조). 따라서 가족보살피기의 경우 통계청의 기준에서 보면 보살핌 행동을 혼자 한 경우에도 보살핌을 받는 대상이 있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보살피기 행동에서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보살피는 사람과 함께 한다고 보고 자료를 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보살피기를 혼자 한 경우는 없게 된다.

가족공유시간 및 가족공유여부 외에 가족식사, 가사노동, 가족여가 각 활동영역별로 시간 및 여부가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2) 독립변수

<연구문제 2>의 가족공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에 포함한 독립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관련 변수

- 사회인구학적 변수: 성별, 연령, 교육수준
- 사회심리적 변수: 성역할 태도
- 사회경제적 변수: 경제활동 여부, 직업, 주당 노동시간, 월평균소득, 주휴제도
- 시간정서 관련 변수: 시간부족감, 시간사용만족도

② 가족관련 변수

- 사회인구학적 변수: 배우자 유무, 미취학자녀 유무
- 사회경제적 변수: 맞벌이여부

가. 성역할 태도: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찬성하는 편이다, ③ 반대하는 편이다, ④ 매우 반대한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값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나. 주당 노동시간: 조사 당시 지난 1주일 동안 주업 및 부업 시간을 합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일하지 않은 경우 0시간으로 처리하였다. 노동시간 집단은

일한 사람을 기준으로 $M \pm 0.5SD$ 값을 기준으로 나눈 세 집단과 노동시간이 0인 집단을 포함하여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 다. 시간부족감: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 예, 항상, ② 예, 가끔, ③ 아니오, 거의, ④ 아니오, 전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값을 반대로 리코딩한 값으로 점수가 많을수록 시간부족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라. 시간사용만족도: ‘시간일지를 작성한 지난 이틀 동안 당신의 시간사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만족하지 않는다, 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값을 반대로 리코딩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만족하는 것을 뜻한다.

<연구문제 3>의 가족공유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를 검토하는 로짓분석의 독립변수로서는 위의 변수들 중 시간정서 관련 변수들은 제외하였다. 시간정서는 가족공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기보다는 시간사용의 결과와 관련되는 정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활동여부, 직업, 주당 노동시간, 월평균소득, 주휴제도 변수들은 모두 경제활동과 관련된 변수들로 서로 높은 상관을 보이므로 대표적인 변수로 주당 노동시간 변수만을 사용하였다. 이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은 노동시간 0인 집단으로 포함되었다.

제4장 연구결과

1. 가족공유 식사

1) 식사시간의 실태

(1) 식사의 평균시간

20세 이상 성인의 식사시간의 변화를 보기 위해 통계청에서 조사한 「국민생활시간조사」의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살펴보면, 다음의 <표 4-1>과 같다. 1999년 1시간 36분에서 2004년 1시간 40분, 2009년 1시간 48분으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분류 식사시간의 증가에서 특이한 사항은 간식과 음료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9년 18분, 2004년 22분, 2009년 28분으로 증가하여 식사시간 증가의 대부분이 간식 및 음료시간의 증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의 생활시간조사결과를 가지고 식사시간을 다른 나라와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김외숙 외, 2005), 우리나라의 식사시간은 미국인의 평균 식사시간(1시간 15분)보다는 길고, 독일인의 식사시간(1시간 45분)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남자의 식사시간은 여자의 식사시간보다 긴 경향을 보였다.

함께 한 사람별 식사 평균시간의 변화를 보면, 가족과의 식사는 1999년 47분에서 2004년 43분, 2009년 43분으로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혼자 식사와 가족 외 사람과의 식사시간은 점차 증가하여 혼자 식사는 2004년 15분, 2009년 17분으로, 가족 외 사람과의 식사시간은 2004년 19분, 2009년 20분으로 나타났다.

<표 4-1> 성인(20세 이상, 기혼)의 식사시간(식사 및 간식) 변화

(단위 : 시간:분)

구분	1999			2004			2009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식사 및 간식	1:36	1:38	1:33	1:40	1:44	1:37	1:48	1:52	1:44
가족과의 식사	0:47	0:43	0:50	0:43	0:40	0:46	0:43	0:40	0:46
그 외의 식사	0:31	0:36	0:26	-	-	-	0:37	0:42	0:32
혼자 식사	-	-	-	0:15	0:15	0:16	0:17	0:16	0:17
가족 외 사람과의 식사	-	-	-	0:19	0:25	0:14	0:20	0:26	0:15
간식과 음료	0:18	0:19	0:17	0:22	0:25	0:20	0:28	0:29	0:26

성별로 보면 가족과의 식사의 경우 남성은 1999년 43분, 2004년 40분, 2009년 40분으로 다소 감소하였고, 여성 역시 1999년 50분, 2004년 46분, 2009년 46분으로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가족과의 식사는 여성의 식사시간이 남성의 식사시간보다 길었다. 그러나 혼자 식사시간과 가족 외 사람과의 식사시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2004년에 비해 2009년 다소 증가하여 가족과의 식사시간이 감소한 것과 다른 경향을 보였다. 2004년, 2009년 혼자 식사시간은 여성의 시간이 길었고, 가족 외 사람과의 식사시간은 남성의 시간이 길었다.

20세 이상 성인의 함께 한 사람별 식사시간의 변화를 식사시간의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의 <표4-2>와 같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행위자의 비율은 1999년 84.6%로, 행위자의 평균시간은 55분이었고, 2004년 80.8%, 53분, 2009년 79.0%, 55분으로 나타나 가족과의 식사 참여도는 점차 낮아지는 추이를 보였으나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시간은 연도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외 사람과 식사를 한 사람의 비율은 2004년 45.2%이고, 2009년에는 47.1%로 나타나 2004년에 비해 2009년 참여율이 다소 증가하였고, 혼자 식사를 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역시 2004년 44.5%에서 2009년 47.1%로 소폭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가족과의 식사 참여율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의 참여율보다 높았고, 가족과의 식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시간 역시 남성보다 여성의 시간이 길었다. 그러나 가족과의 식사 참여율은 남녀에 관계없이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 혼자 식사하는 경우는 행위자 평균시간은 2004년과 2009년 연도별 및 남녀 간 차가 없었다. 그러나 연도별 참여율은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2009년 남성과 여성의 혼자 식사 참여율은 각각 47.0%, 47.1%로 나타나 2004년 남성 참여율 43.2%, 여성 참여율 45.7%에 비해 높았다. 가족 외 사람과의 식사는 2004년 남성 참여율 55.8%, 여성 참여율 36.0%에서 2009년 남성 참여율 56.5%, 여성 참여율 38.9%로 나타나 남성의 참여율이 연도에 관계없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2004년에 비해 2009년 가족 외 사람과의 식사 행위자는 소폭 증가하였다.

<표 4-2> 성인(20세 이상, 기혼)의 식사시간 행위자 비율 및 평균시간의 변화

구분	1999						2004						2009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식사 및 간식	100	100	100	1:36	1:38	1:34	100	100	100	1:40	1:44	1:37	100	100	100	1:48	1:52	1:44
가족과의 식사	84.6	83.6	85.5	0:55	0:52	0:58	80.8	79.2	82.3	0:53	0:50	0:56	79.0	76.5	81.2	0:55	0:52	0:57
그외의 식사	68.6	74.8	63.0	0:45	0:48	0:42	-	-	-	-	-	-	74.3	78.4	70.8	0:50	0:54	0:45
혼자 식사	-	-	-	-	-	-	44.5	43.2	45.7	0:35	0:35	0:35	47.1	47.0	47.1	0:35	0:35	0:35
가족외사람과의 식사	-	-	-	-	-	-	45.2	55.8	36.0	0:42	0:44	0:39	47.1	56.5	38.9	0:43	0:46	0:40
간식과 음료	58.6	62.2	55.4	0:31	0:31	0:31	69.9	74.2	66.2	0:32	0:33	0:31	78.0	81.3	75.1	0:35	0:36	0:34

2009년 20세에서 59세 사이 성인의 1일 평균 식사시간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4-3>과 같다. 성인의 식사시간은 평일 1시간 17분, 일요일 1시간 25분으로 평일에 비해 일요일이 8분 정도 길다. 평일의 경우 전체식사시간 중 저녁식사시간이 30분으로 가장 길고 점심은 29분, 아침은 18분으로, 아침식사시간이 가장 짧으며 점심과 저녁식사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일요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침, 점심, 저녁식사 순으로 식사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일보다 저녁식사가 조금 증가하여 저녁식사가 식사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보면, 평일 남성은 1시간 20분, 여성은 1시간 14분의 식사시간을 가지고, 일요일은 남녀의 식사시간이 같다.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간 더 많은 식사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있어서 남녀 차이는 크게 없었다.

<표 4-3> 성인의 식사 평균 시간량

(단위: 분)

요일	평일			일요일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식 사	1:17	1:20	1:14	1:25	1:25	1:25
아침식사	0:18	0:17	0:19	0:21	0:21	0:22
점심식사	0:29	0:32	0:27	0:31	0:30	0:31
저녁식사	0:30	0:31	0:28	0:33	0:33	0:32
기타시간대 식사 ²⁾	0:00	0:00	0:00	0:00	0:00	0:00

(2) 가족공유 식사시간

① 가족공유 식사시간

식사를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4>, <표4-5>와 같다.

평일의 경우 전체 식사시간 1시간 17분 가운데, 혼자 먹는 시간이 16분으로 20.5%,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35분으로 44.9%, 가족 외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 27분으로 34.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요일은 전체 식사시간이 증가하면서 함께 하는 사람의 비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일요일 성인의 전체식사시간 1시간 25분 가

1) 아침식사시간(오전 3:40시간대부터 오전 10:40시간대까지), 점심식사시간(오전 10:50시간대부터 오후 4:30시간대까지), 저녁식사시간(오후 4:40시간대부터 자정 11:50시간대까지)

2) 기타시간대 식사(아침식사시간, 점심식사시간, 저녁식사시간 외 시간인 자정 0:00시간대부터 오전 3:30시간대까지)

운데, 혼자 먹는 시간은 9분으로 10.6%,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1시간 2분으로 전체의 72.9%, 가족 외 사람과 하는 시간은 14분으로 16.5%로 나타났다. 평일에 비해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시간이 27분가량 증가하였다.

먼저 평일 식사에서 성별에 따라 함께 한 사람의 차이를 살펴보면, 평일 남자는 전체식사시간 1시간 20분 가운데, 가족 외 사람과 한 시간이 35분으로 43.2%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가족과 함께 한 시간은 35.8%로 29분, 혼자 한 식사는 21.0%로 17분이었다. 반면에 여자는 전체 식사시간 1시간 14분 가운데 가족과 함께 한 식사시간이 40분으로 전체의 54.1%를 차지하여 가장 길었으며, 가족 외 사람과 함께 한 시간은 19분으로 25.7%, 혼자 한 식사는 15분으로 20.3%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가는 차이가 있어서 남자는 주로 가족 외 사람과 함께 식사한 시간의 비율이 높고, 여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한 시간의 비율이 남자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식사시간도 11분 더 길었다.

일요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남성은 전체 식사시간의 68.2%인 58분을 가족과 함께 식사했고 18.8%인 16분을 가족 외 사람과, 그리고 12.9%인 11분의 시간을 혼자 식사하였고, 여성은 76.5%인 1시간 5분을 가족과 함께, 14.1%인 12분을 가족 외 사람과 함께, 9.4%인 8분을 혼자서 식사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녀모두 일요일은 평일에 비해 가족공유 식사시간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하루의 식사시간을 비교해 보면,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 함께 한 사람에 차이가 있었다. 평일 아침식사는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서 전체의 66.7%인 12분을 가족과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외 사람과 아침식사를 한 시간은 5.6%로 1분, 혼자 식사 한 시간은 27.8%로 5분에 불과하였다. 일요일의 경우는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더 높아서 전체 시간의 81.0%인 17분을 가족과 함께 하였다. 혼자 한 식사는 전체 시간의 14.3%인 3분, 가족 외 사람과 한 시간은 4.7%인 1분으로 낮았다. 일요일 아침식사는 평일 아침식사에 비해 가족과 함께 한 시간이 5분정도 더 길었다. 이를 성별에 따라 보면, 평일 남자는 가족과 함께 한 시간의 비율이 62.5%, 혼자 하는 비율이 31.3%인데 비해 여자는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높아서 73.7%가 가족과 함께하고, 혼자 한 비율은 21.1%에 불과했다. 일요일은 남자의 평균 아침식사시간의 76.2%가 가족과 함께 한 것이고, 19.0%가 혼자, 4.8%가 가족 외 사람과 함께 한 것인 반면, 여자는 식사시간의 81.8%가 가족과 함께하고 혼자 식사하거나 가족 외 사람과 한 식사시간의 비율은 낮았다. 즉 아침식사 시간은 평일과 일요일 모두 여자는 가족과하는 비율이 남자보다 높고, 남자는 혼자 식사하거나 가족 외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의 비율이 여자보다 높았다.

점심식사는 평일의 경우 전체 식사시간의 62.1%인 18분을 가족 외 사람과 식사하고, 혼자 식사한 시간은 20.7%인 6분, 가족과 함께 한 식사시간은 17.2%인 5분에 불과했다. 반면, 일요일의 경우는 61.3%인 19분을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였으며, 29.0%인 9분을 가족 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며, 혼자 식사는 9.7%인 3분이었다. 점심식사는 요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서 평일의 가족과 함께 한 식사시간은 일요일

일에 비해 14분이나 짧았다. 성별에 따라 보면, 평일 남자의 점심식사 시간은 68.8%인 22분을 가족 외 사람과 함께 하여 혼자하거나(6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4분)보다 훨씬 길었다. 그러나 여자는 가족 외 사람과 함께 한 시간이 51.9%인 14분으로 길긴 했으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6분, 혼자 먹는 시간이 7분으로 남자보다 길었다. 일요일의 경우는 남자는 식사시간의 56.7%인 17분을 가족과 함께 하였으며, 33.3%인 10분을 가족 외 사람과, 10.0%인 3분을 혼자 식사 한 반면, 여자는 점심식사시간의 66.7%인 20분을 가족과 함께하고, 26.7%인 8분을 가족 외 사람과 그리고 혼자 한 시간은 2분으로 6.7%에 지나지 않았다. 점심식사 시간의 함께 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남자는 가족 외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 여자보다 길고, 여자는 점심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남자보다 길었다. 평일에 비해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하는 점심 식사시간이 많이 증가한다.

저녁식사는 하루 식사 중 가장 긴 시간인 평일 30분, 일요일 33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평일의 저녁식사 중 58.1%인 18분은 가족과 함께 하고, 25.8%인 8분은 가족 외 사람과, 그리고 16.1%인 5분은 혼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의 경우는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늘어나서 전체의 78.8%인 26분을 가족과 함께 하였으며, 12.1%인 4분을 가족 외 사람과 함께, 9.1%인 3분을 혼자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일에 비해 일요일의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식사 시간이 8분정도 증가하였다. 저녁식사에서 남녀의 차이를 보면, 평일 남자는 저녁식사 평균 시간의 48.4%인 15분을 가족과 함께 하고, 35.5%인 11분을 가족 외 사람과 함께 하며, 혼자서 하는 경우는 16.1%인 5분이었다. 여자는 평일 평균 저녁식사 시간의 71.4%인 20분을 가족과 함께 하고, 가족 외 사람과 함께 한 시간과 혼자서 한 식사시간은 각각 전체의 14.3%인 4분으로 나타났다. 즉, 평일 저녁식사 시간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남자의 저녁식사 시간은 가족과 함께 한 시간이 전체 식사시간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의 경우 남자는 저녁식사 시간의 75.8%인 25분을 가족과 함께 하고, 15.2%인 5분을 가족 외 사람과, 9.1%인 3분을 혼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식사시간의 대부분인 84.4% 27분을 가족과 함께 하고, 9.4%인 3분을 가족 외 사람과, 6.3%인 2분을 혼자 식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시간이 가장 긴 것은 일요일 저녁식사와 일요일 아침식사 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가족공유 식사시간은 평일에 비해 일요일이 27분가량 길었으며, 성별에 따라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가는 차이가 있어서 남자는 주로 가족 외 사람과 함께 식사한 시간의 비율이 높고, 여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한 시간의 비율이 남자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식사시간도 11분 더 길었다.

아침식사 시간은 평일과 일요일 모두 여자의 가족공유 식사시간의 비율이 남자보다 높고, 남자는 혼자 식사하거나 가족 외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의 비율이 여자보다 높았다. 점심식사 시간의 함께 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남자는 가족 외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 여자보다 길고, 여자는 점심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남자

보다 길었다. 평일에 비해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하는 점심 식사시간이 많이 증가한다. 평일에 비해 일요일의 가족공유 저녁식사 시간이 8분정도 증가하였다. 평일 저녁식사 시간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남자의 저녁식사 시간은 가족과 함께 한 시간이 전체 식사시간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시간이 가장 긴 것은 일요일 저녁식사와 일요일 아침식사 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성인의 함께 한 사람에 따른 식사의 평균시간 및 비율(평일)

(단위: 분, %)

	평일																	
	평균시간									비율								
	가족			혼자			가족 외 사람			가족			혼자			가족 외 사람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식 사	0:35	0:29	0:40	0:16	0:17	0:15	0:27	0:35	0:19	44.9	35.8	54.1	20.5	21.0	20.3	34.6	43.2	25.7
아침식사	0:12	0:10	0:14	0:05	0:05	0:04	0:01	0:01	0:01	66.7	62.5	73.7	27.8	31.3	21.1	5.6	6.3	5.3
점심식사	0:05	0:04	0:06	0:06	0:06	0:07	0:18	0:22	0:14	17.2	12.5	22.2	20.7	18.8	25.9	62.1	68.8	51.9
저녁식사	0:18	0:15	0:20	0:05	0:05	0:04	0:08	0:11	0:04	58.1	48.4	71.4	16.1	16.1	14.3	25.8	35.5	14.3
기타시간대 식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0	0	0	0	0	0	0	0

<표 4-5> 성인의 함께 한 사람에 따른 식사의 평균시간 및 비율(일요일)

(단위: 분, %)

	일요일																	
	평균시간									비율								
	가족			혼자			가족 외 사람			가족			혼자			가족 외 사람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식 사	1:02	0:58	1:05	0:09	0:11	0:08	0:14	0:16	0:12	72.9	68.2	76.5	10.6	12.9	9.4	16.5	18.8	14.1
아침식사	0:17	0:16	0:18	0:03	0:04	0:03	0:01	0:01	0:01	81.0	76.2	81.8	14.3	19.0	13.6	4.7	4.8	4.5
점심식사	0:19	0:17	0:20	0:03	0:03	0:02	0:09	0:10	0:08	61.3	56.7	66.7	9.7	10.0	6.7	29.0	33.3	26.7
저녁식사	0:26	0:25	0:27	0:03	0:03	0:02	0:04	0:05	0:03	78.8	75.8	84.4	9.1	9.1	6.3	12.1	15.2	9.4
기타시간대 식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0	0	0	0	0	0	0	0

② 가족공유 식사시간의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

식사는 생활필수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활동이나, 최근 들어 아침 결식이 문제가 될 정도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남성 15.2%, 여성 15.4%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으며, 미혼 남녀가 기혼 남녀에 비해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특히 미혼 여자 중 20대는 3명 중 1명(36.8%)이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5년 전보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비율이 남자는 4.0%p, 여자는 2.2%p 증가한 수준이며, 20대 미혼 남자는 6.9%p나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통계청 보도자료, 2004).

2009년 식사시간의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의 <표 4-6>, <표 4-7>과 같다. 평일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행위자의 비율은 78%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시간은 44분이었고, 가족 외 사람과 식사를 한 사람의 비율은 62%이고 이들의 평균 시간은 43분이었으며, 혼자 식사를 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51.1%이고 이들의 평균 시간은 31분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의 경우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 행위자 비율은 평일보다 증가하여 88.8%의 사람들이 1시간 10분의 식사시간을 가족과 함께 하였다. 이에 비해 가족 외 사람과 함께 한 행위자 비율은 31.7%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평균 43분의 시간을 보냈고, 또 29.4%의 사람들이 32분의 시간을 혼자서 식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식사시간을 비교해 보면, 가족과 함께 한 사람들의 식사시간이 혼자 한 사람들의 식사시간보다 평일은 13분, 일요일은 38분이나 긴 것으로 나타나서 가족과 공유하는 식사시간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시간의 길이는 건강이나 영양섭취와도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식은 자녀의 언어습득 능력을 길러주는 등 다양한 생활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인스타인, 2006; 성순정 외, 2010)를 볼 때 가족과 공유하는 식사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식사시간의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시간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는 평일 가족과 함께 한 식사에 71.7%가 참여하여 40분의 시간을 소비하였으며, 75.4%의 사람들이 46분의 시간을 가족 외 사람과 함께 식사하였고, 52.6%의 사람들이 32분을 혼자서 식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평일 83.8%의 사람들이 48분을 가족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49.4%의 사람들이 평균 39분을 가족 외 사람과 식사하였으며, 49.7%의 사람들이 30분간 혼자서 식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식사는 남자에 비해 여자들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식사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 외 사람과 식사를 한 사람의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고, 이들의 평균 식사시간도 길었다.

아침식사를 살펴보면, 평일 아침식사는 가족과 함께 한 행위자 비율이 53.4%이고 평균시간은 23분이었으며, 남자는 46.3%의 사람들이 22분, 여자는 60.0%의 사람들이 23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 일요일은 참여한 비율 및 평균시간이 모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2.8%의 사람들이 일요일 아침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였으며, 이들의 평균시간은 27분이었다. 남자는 58.3%, 여자는 67.2%의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아침식사에 참여했으며 식사 평균시간은 모두 같은 27분이었다. 평일 점심은 가족공유 식사 참여자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행위자들의 평균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의 경우 전체의 15.9%만이 점심식사를 가족과 함께 한다고 응답했고 이

들의 평균시간은 30분이었다. 남자는 12.1%, 여자는 19.5%가 가족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으며, 평균 식사시간은 남자 29분, 여자는 30분이었다. 일요일은 평일보다 행위자 비율이 증가하여 전체저적으로 56.5%의 사람들이 점심을 가족과 함께 하였으며 이에 걸린 시간은 33분 이었다. 남자는 53.3%, 여자는 59.5%가 가족과 함께 했으며, 각각 33분을 소비하였다. 저녁식사는 57.7%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31분의 가족공유 식사시

<표 4-6> 가족공유 식사의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시간(평일)

(단위 : 시간:분, %)

	평일																	
	가족						혼자						가족 외 사람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식사	78.0	71.7	83.8	0:44	0:40	0:48	51.1	52.6	49.7	0:31	0:32	0:30	62.0	75.4	49.4	0:43	0:46	0:39
아침식사	53.4	46.3	60.0	0:23	0:22	0:23	24.2	28.2	20.4	0:19	0:19	0:20	3.6	5.5	0.8	0:24	0:24	0:22
점심식사	15.9	12.1	19.5	0:30	0:29	0:30	20.5	15.9	24.9	0:24	0:27	0:23	54.1	66.3	42.6	0:32	0:32	0:31
저녁식사	57.7	48.8	66.0	0:31	0:30	0:31	18.5	19.8	17.2	0:25	0:27	0:23	18.9	27.5	10.8	0:35	0:36	0:34
기타시간 대 식사	0.01	0.1	0.1	0:26	0:25	0:27	0	0	0	0:26	0:22	0:28	0.3	0.5	0	0:24	0:24	0:20

<표 4-7> 가족공유 식사의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시간(일요일)

(단위 : 시간:분, %)

	일요일																	
	가족						혼자						가족 외 사람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식사	88.8	86.8	90.7	1:10	1:07	1:12	29.4	33.1	25.9	0:32	0:33	0:31	31.7	35.8	27.8	0:43	0:45	0:43
아침식사	62.8	58.3	67.2	0:27	0:27	0:27	15.8	17.4	14.3	0:21	0:21	0:21	3.1	3.9	2.3	0:25	0:26	0:25
점심식사	56.5	53.3	59.5	0:33	0:33	0:33	10.9	12.3	9.5	0:24	0:24	0:23	24.8	28	21.7	0:32	0:32	0:32
저녁식사	77.0	73.8	80.0	0:34	0:34	0:34	9.7	11.1	8.4	0:25	0:25	0:25	9.9	11.8	8.1	0:38	0:40	0:36
기타시간 대 식사	0.03	0.3	0.2	0:54	0:52	0:56	0.1	0.2	0	0:18	0:18	0	0.2	0.3	0.1	0:22	0:22	0:20

간을 가졌으며, 남자는 48.8%, 여자는 66%의 사람들이 각각 30분, 31분 동안 저녁을 가족과 함께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 저녁식사는 행위자율이 증가하여 77%의 사람들이 34분 동안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가졌으며, 남자의 73.8%, 여자의 80%가 저녁식사를 가족과 함께 했다고 응답하였고, 이들의 평균시간은 각각 34분이었다. 이상

을 종합하면, 가족공유 식사는 평일과 일요일 모두 저녁식사의 참여율이 높고, 식사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전반적으로 여자의 가족공유 식사 참여율이 남자에 비해 높았다.

한편 평일의 경우는 가족 공유 식사시간을 갖는다고 응답한 남자의 비율이 아침, 점심, 저녁 모두 5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점심의 경우는 직장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도 저녁이나 아침식사 역시 50% 미만이라는 것은 가족식사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을 요약하면, 가족과 함께 한 사람들의 식사시간이 혼자 한 사람들의 식사시간보다 평일은 13분, 일요일은 38분이나 긴 것으로 나타나서 가족과 공유하는 식사시간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식사는 남자에 비해 여자들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식사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 외 사람과 식사를 한 사람의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고, 이들의 평균 식사시간도 길었다. 가족공유 식사는 평일과 일요일 모두 저녁식사의 참여율이 높고, 식사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전반적으로 여자의 가족공유 식사 참여율이 남자에 비해 높았다. 한편 평일의 경우는 가족 공유 식사시간을 갖는다고 응답한 남자의 비율이 아침, 점심, 저녁 모두 5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점심의 경우는 직장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도 저녁이나 아침식사 역시 50% 미만이라는 것은 가족식사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남자들이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유배유자 부부의 맞벌이 여부 및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족공유 식사시간

맞벌이 여부 및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보면 다음의 <표 4-8>, <표 4-9>와 같다. 전반적으로 맞벌이 가정의 평일 가족공유 식사시간은 31분, 비 맞벌이 가정의 평일 가족공유 식사시간은 39분으로 비 맞벌이 가정의 가족공유식사시간이 길었다. 일요일 역시 비맞벌이 가정이 맞벌이 가정에 비해 가족공유식사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나 요일에 관계없이 비맞벌이 가정의 가족공유 식사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라 평일의 가족공유 식사시간은 31분으로 차이가 없으나, 일요일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1시간 9분, 없는 경우 58분으로 미취학 자녀가 있을 때 더 길었다. 행위자 비율도 차이가 있어서 미취학자녀가 있을 때 평일 행위자 비율은 76.9%인데 비해 없을 때는 75.5%를 나타냈다. 행위자의 평균시간은 각각 40분과 41분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일요일은 미취학자녀가 있을 때 90.2%, 평균시간 1시간 17분으로 없을 때의 88%, 1시간 06분에 비해 길었다. 즉, 맞벌이 가정에서는 미취학자녀의 유무에 따른 가족공유식사시간이 요일에 차이가 있었는데, 평일은 미취학자녀의 유무에 따라 가족공유시간의 차이가 없고, 일요일

일은 차이가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을수록 가족공유 식사시간이 길었다.

<표 4-8> 맞벌이 여부, 미취학자녀 유무 별 가족공유 식사시간(평일)

구분		평일																	
		미취학자녀 있음									취학자녀 없음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	남	여	전	남	여	전	남	여	전	남	여	전	남	여	전	남	여
맞벌이 가구	식사	0:31	0:27	0:35	76.9	71.1	83.3	0:40	0:38	0:42	0:31	0:28	0:34	75.5	70.6	80.6	0:41	0:39	0:42
	아침	0:10	0:09	0:10	45.4	41.1	50.2	0:21	0:22	0:21	0:12	0:11	0:13	54.0	48.7	59.5	0:22	0:22	0:22
	점심	0:03	0:02	0:03	9.6	7.7	11.6	0:28	0:30	0:26	0:04	0:04	0:04	13.7	12.5	14.9	0:29	0:29	0:30
	저녁	0:19	0:15	0:22	61.9	52.6	72.2	0:30	0:30	0:30	0:15	0:13	0:16	50.7	44.8	56.7	0:29	0:29	0:29
	기타 시간대	0:00	0:00	0:00	0.2	0.4	0.0	0:19	0:18	0:40	0:00	0:00	0:00	0.2	0.2	0.2	0:29	0:29	0:29
비맞벌이 가구	식사	0:39	0:28	0:51	79.9	69.1	91.6	0:49	0:40	0:56	0:39	0:32	0:46	82.4	75.7	88.1	0:48	0:42	0:52
	아침	0:12	0:08	0:15	49.3	39.5	59.9	0:23	0:21	0:25	0:14	0:11	0:16	58.9	49.8	66.4	0:24	0:23	0:25
	점심	0:06	3.3	0:09	20.8	11.2	31.2	0:30	0:29	0:30	0:06	0:04	0:07	18.8	14.0	22.8	0:30	0:29	0:30
	저녁	0:21	15.9	0:27	65.2	49.3	82.6	0:33	0:32	0:33	0:20	0:16	0:22	63.1	52.6	71.7	0:31	0:31	0:31
	기타 시간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	0:00	0.0	0:20	0:00	0:20

<표 4-9> 맞벌이 여부, 미취학자녀 유무 별 가족공유 식사시간(일요일)

구분		일요일																	
		미취학자녀 있음									미취학자녀 없음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	남	여	전	남	여	전	남	여	전	남	여	전	남	여	전	남	여
맞벌이 가구	식사	1:09	1:04	1:15	90.2	85.6	95.4	1:17	1:15	1:19	0:58	0:56	1:00	88.0	87.4	88.6	1:06	1:04	1:07
	아침	0:17	0:15	0:19	62.7	58.1	68.0	0:27	0:26	0:29	0:16	0:15	0:17	59.3	55.4	63.4	0:27	0:27	0:26
	점심	0:22	0:21	0:24	65.6	60.6	71.4	0:34	0:35	0:33	0:17	0:16	0:17	50.6	48.8	52.4	0:33	0:34	0:32
	저녁	0:29	0:27	0:32	80.0	74.0	86.7	0:37	0:37	0:37	0:25	0:25	0:26	74.7	73.2	76.2	0:34	0:33	0:34
	기타 시간대	0:00	0:00	0:00	0.3	0.6	0:00	0:20	0:20	0:00	0:00	0:00	0:00	0.3	0.3	0.3	0:30	0:30	0:30
비맞벌이 가구	식사	1:13	1:06	1:10	92.9	88.7	97.7	1:18	1:15	1:21	1:03	0:58	1:07	90.4	88.3	92.1	1:10	1:06	1:12
	아침	0:19	0:17	0:21	70.5	63.0	78.8	0:27	0:28	0:27	0:18	0:17	0:19	66.1	61.8	69.5	0:27	0:27	0:28
	점심	0:24	0:21	0:27	81.9	66.3	78.1	0:33	0:32	0:35	0:19	0:17	0:20	57.2	52.9	60.6	0:33	0:32	0:34
	저녁	0:30	0:28	0:32	86.2	81.7	91.1	0:34	0:34	0:35	0:26	0:24	0:27	77.0	71.9	81.2	0:34	0:33	0:34
	기타 시간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4	0.5	0.4	1:18	1:18	1:17

맞벌이 가정의 평일 아침은 미취학자녀가 있을 때 평균 10분, 없을 때 12분으로 없을 때 더 길었으며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시간도 미취학자녀가 있을 때

45.4% 21분에 비해 없을 때는 54.0%, 22분으로 행위자 비율이 더 많고 행위자 평균 시간도 더 길었다. 그러나 저녁은 반대로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정의 가족공유 식사 시간이 19분으로 없는 경우 15분보다 길고, 행위자 비율도 각각 61.9%, 50.7%로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가 높았다. 일요일의 경우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정이 없는 가정에 비해 아침, 점심, 저녁식사 시간이 길고 행위자 비율도 높았으며, 행위자의 평균시간도 길었다.

비맛벌이 가정의 경우는 미취학자녀 유무와 요일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평일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정의 가족공유 식사시간은 39분으로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와 같았으나, 행위자율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79.9%의 가정에서 행위자 평균 49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으나, 없는 경우는 82.4%의 가정에서 48분의 시간을 가족공유시간으로 가지고 있었다. 일요일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정의 전체 가족공유 시간이 1시간 13분으로 미취학자녀가 없는 가정의 1시간 3분보다 10분정도 길었으며, 행위자율이 92.9%이고 행위자 평균시간이 1시간 18분으로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의 90.4%, 1시간 10분의 평균시간에 비해 길었다. 즉, 비맛벌이 가정에서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는 요일에 따른 차이가 커서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가족공유 식사시간의 행위자 비율이 높고, 평균시간도 길었다.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는 요일에 따른 차이가 전자에 비해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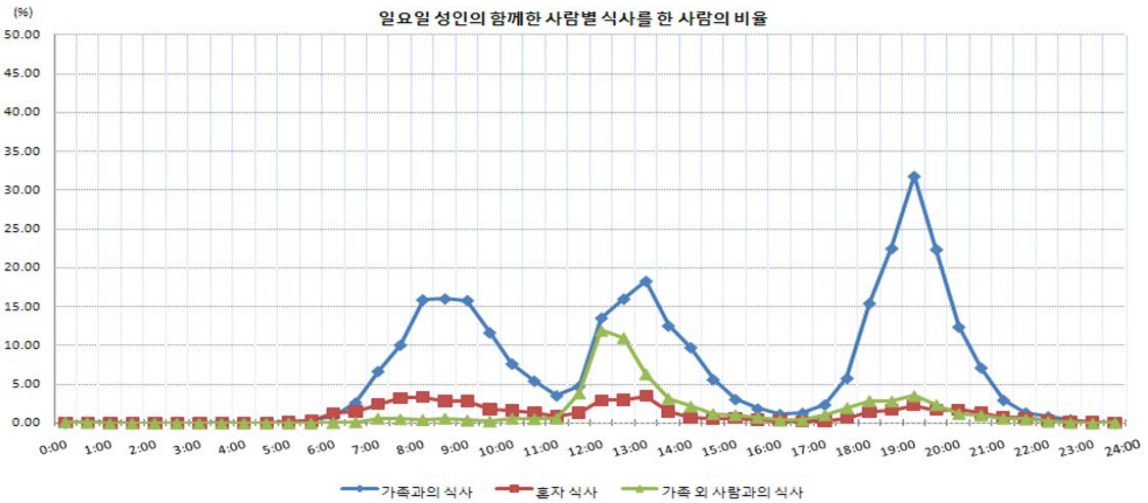
비맛벌이 가정의 평일 아침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평균 12분으로 없는 경우 14분보다 가족공유 식사시간이 짧았으며, 행위자비율도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49.3%, 없는 경우 58.9%로 있는 경우가 비율이 낮았다. 평일 점심과 저녁은 큰 차이가 없으나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의 가족공유 식사 시간이 길고 행위자 비율도 증가하여 없는 경우보다 높았다. 일요일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가족공유 식사시간이 길고, 행위자 비율이 높으며 행위자 평균시간도 길다.

이상을 종합하면,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는 맛벌이건 비맛벌이건 평일 아침에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대신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평일 저녁식사나 일요일 식사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 가족공유 식사의 시간대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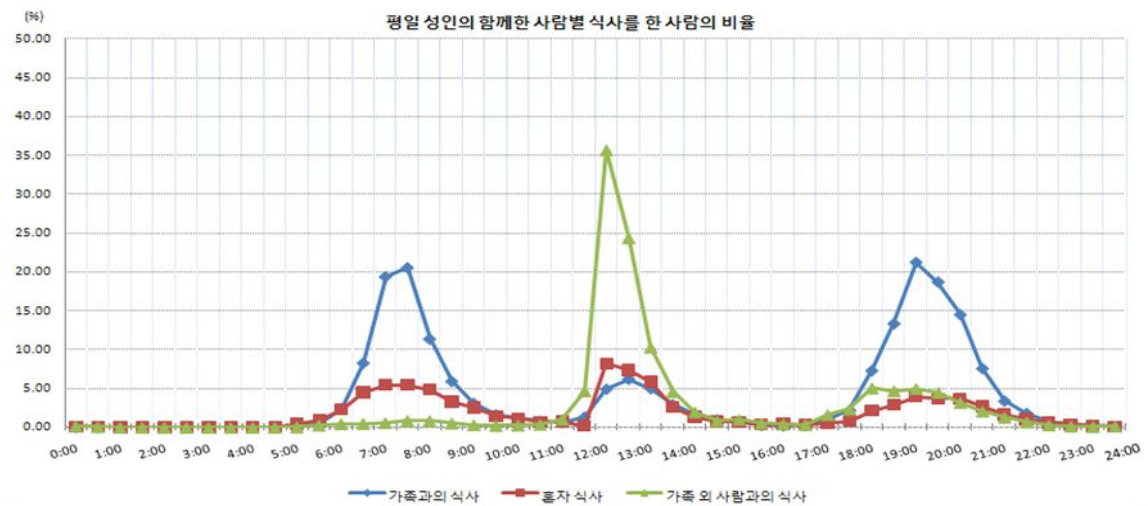
평일 함께 한 사람에 따른 식사시간의 시간대별 분포를 <그림 1>에서 보면,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는 아침과 저녁시간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아침은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20.5%의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저녁은 오후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21.2%의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가 아침과 저녁식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족 외 사람과 함께 하는 식사는 점심시간을 중심으로 12시에서 12시 30분 사이에 35.7%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저녁시간대에도 10% 내외로 가족 외 사람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나 직장 등의 생활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혼자 하는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에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평일 함께 한 사람별 식사시간대별 분포

일요일의 함께 한 사람별 식사시간의 시간대별 분포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일요일의 시간대별 가족공유식사시간 비율은 평일과 다른 분포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공유 식사시간의 비율이 평일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아침과 점심, 저녁 모두 높은 비율을 보인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시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그림 2> 일요일 함께 한 사람별 식사시간의 시간대별 분포

시간대는 일요일 저녁식사 시간으로 오후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31.8%의 사람들이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가진다. 일요일의 아침식사는 평일보다 늦어지고, 아침과 점심식사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없어서, 아침과 점심식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족 외 사람과의 식사는 주로 일요일 점심시간에 이루어지나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

2) 가족공유 식사시간 여부 별 집단 간 차이

가족공유 식사시간 여부의 집단 간 차이를 X^2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평일의 경우를 <표 4-10>에서 살펴보면, 가족공유 식사시간은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30대가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갖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가 가장 낮았다 ($p<.05$).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가족공유 식사시간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았다($p<.001$).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갖는 집단의 경제적인 특성을 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며, 직업이 없고 그래서 개인의 소득이 없고 주휴제도와는 상관이 없는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대체로 전업주부 집단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노동시간을 집단별로 나누었을 때 노동시간이 없는 집단, 그리고 노동시간이 짧은 집단의 가족공유 식사를 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p<.001$). 즉, 가족공유 식사시간 여부는 노동시간의 길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이나 이혼집단의 61.7%, 유배우자 집단의 80.1%가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 미취학자녀가 있는 집단의 80.9%, 미취학자녀가 없는 집단의 78.6%가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5$). 그리고 맞벌이 가정은 76.8%, 비맞벌이 가정은 81.4%가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비맞벌이 가정이 맞벌이 가정에 비해 더 많이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가지고 있었다($p<.001$).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가지는 집단은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시간 부족감의 정도가 낮았으며($p<.001$), 업무 피곤함의 정도도 낮았고($p<.001$), 생활시간만족도는 높았다($p<.001$).

이상을 종합해 보면, 평일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갖는 집단의 특성은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갖지 못하는 집단에 비해 30대가 많으며, 여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개인소득이 없는 사람들로 배우자가 있고 미취학 자녀가 있으며, 맞벌이를 하지 않는 집단으로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시간부족감을 덜 느끼고, 업무의 피로도도 낮고 생활시간 만족도는 높은 사람들이었다. 반면, 가족공유시간을 갖지 못하는 집단은 40대로 남성이며, 경제활동을 하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월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일주일에 1일을 쉬며 노동시간이 긴 사람들로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으며, 미취학자녀도 없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시간부족

<표 4-10> 가족공유 식사시간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평일)

		평일		단위:연속변수:평균(표준편차),빈도(%)	
변수	구분			전체	X ² t
		공유	비공유		
성별	남성	3,678(72.8)	1,372(27.2)	5,050(100)	230.582***
	여성	4,955(84.7)	897(15.3)	5,852(100)	
연령	20-29세	406(79.8)	103(20.2)	509(100)	15.269*
	30-39세	2,648(81.4)	607(18.6)	3,255(100)	
	40-49세	3,444(77.7)	987(22.3)	4,431(100)	
	50-59세	2,135(78.9)	572(21.1)	2,707(100)	
교육수준	중졸	1,433(80.1)	356(19.9)	1,789(100)	5.819
	고졸	4,229(79.8)	1,072(20.2)	5,301(100)	
	전문대 및 대졸	2,699(78.0)	760(22.0)	3,459(100)	
	대학원졸	272(77.1)	81(22.9)	353(100)	
경제활동여부	합	6,034(75.4)	1,973(24.6)	8,007(100)	268.128***
	하지 않음	2,599(89.8)	296(10.2)	2,895(100)	
직업	관리자·전문가	1,294(76.0)	409(24.0)	1,703(100)	261.852***
	사무직	1,010(75.4)	329(24.6)	1,339(100)	
	서비스·판매직	1,506(74.6)	514(25.4)	2,020(100)	
	농림·기능원·장치·단순노무직	2,216(75.6)	714(24.4)	2,930(100)	
	해당 없음	2,607(89.6)	303(10.4)	2,910(100)	
노동시간	없음	2,599(89.8)	294(10.2)	2,893(100)	420.978***
	상	1,636(68.3)	758(31.7)	2,394(100)	
	중	2,282(74.9)	766(25.1)	3,048(100)	
	하	2,116(82.4)	451(17.6)	2,567(100)	
개인 월평균소득	없음	2,521(90.9)	251(9.1)	2,772(100)	383.549***
	100만원 미만	1,509(81.8)	335(18.2)	1,844(100)	
	100~200만원 미만	2,026(74.8)	681(25.2)	2,707(100)	
	200~300만원 미만	1,366(71.8)	537(28.2)	1,903(100)	
	300만원 이상	1,211(72.3)	465(27.7)	1,676(100)	
주휴제도	일주일에 하루	1,863(74.7)	632(25.3)	2,495(100)	272.987***
	토요 격주, 주2일	2,467(76.1)	775(23.9)	3,242(100)	
	기타(매2주 하루, 수시, 기타)	1,704(75.0)	568(25.0)	2,272(100)	
	해당 없음	2,599(89.8)	294(10.2)	2,893(100)	
배우자유무	있음	8,298(80.1)	2,061(19.9)	10,359(100)	106.104***
	없음(사별, 이혼)	335(61.7)	208(38.3)	543(100)	
미취학자녀 존재유무	있음	2,132(80.9)	503(19.1)	2,635(100)	6.263*
	없음	6,501(78.6)	1,766(21.4)	8,267(100)	
맞벌이여부	맞벌이	3,988(76.8)	1,207(23.2)	5,195(100)	35.298***
	비맞벌이	4,645(81.4)	1,062(18.6)	5,707(100)	
성역할 태도	연속변수	2.6(0.7)	2.6(0.7)	2.6(0.7)	3.355
시간부족감 정도	연속변수	3.0(0.8)	3.2(0.8)	3.1(0.8)	-8.641***
업무 피곤함 정도	연속변수	3.3(0.7)	3.4(0.6)	3.4(0.7)	-6.549***
생활시간만족도	연속변수	3.2(0.8)	3.1(0.8)	3.2(0.8)	4.271***

감을 크게 느끼고, 업무의 피로감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시간 만족도가 낮았다.

일요일 가족공유 식사시간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면 다음 <표 4-11>과 같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집단은 20, 30대가 많아서 연령이 낮을수록(p<.001), 여성이 남성에 비해(p<.001),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p<.001)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표 4-11> 가족공유 식사시간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일요일)

		일요일			단위:연속변수:평균(표준편차), 빈도(%)
변수	구분			전체	X ² t
		공유	비공유		
성별	남성	1,507(87.0)	226(13.0)	1,733(100)	13.564***
	여성	1,796(90.8)	183(9.2)	1,979(100)	
연령	20-29세	178(92.2)	15(7.8)	193(100)	20.231***
	30-39세	1,36(91.3)	99(8.7)	1,135(100)	
	40-49세	1,292(89.0)	159(11.0)	1,451(100)	
	50-59세	797(85.4)	136(14.6)	933(100)	
교육수준	중졸	489(83.0)	100(17.0)	589(100)	40.273***
	고졸	1,618(88.4)	213(11.6)	1,831(100)	
	전문대 및 대졸	1,085(92.3)	91(7.7)	1,176(100)	
	대학원졸	111(95.7)	5(4.3)	116(100)	
경제활동여부	함	2,410(87.2)	354(12.8)	2,764(100)	35.338***
	하지 않음	893(94.2)	55(5.8)	948(100)	
직업	관리자·전문가	542(91.6)	50(8.4)	592(100)	81.587***
	사무직	412(92.4)	34(7.6)	446(100)	
	서비스·판매직	593(81.8)	132(18.2)	725(100)	
	농림·기능원·장치·단순노무직	863(86.2)	138(13.8)	1,001(100)	
	해당 없음	893(94.2)	55(5.8)	948(100)	
노동시간	없음	892(94.2)	55(5.8)	947(100)	86.132***
	상	677(80.8)	161(19.2)	838(100)	
	중	956(89.5)	112(10.5)	1,068(100)	
	하	778(90.6)	81(9.4)	859(100)	
개인 월평균소득	없음	853(94.7)	48(5.3)	901(100)	60.356***
	100만원 미만	535(85.5)	91(14.5)	626(100)	
	100~200만원 미만	804(84.5)	148(15.5)	952(100)	
	200~300만원 미만	586(89.2)	71(10.8)	657(100)	
	300만원 이상	525(91.1)	51(8.9)	576(100)	
주휴제도	일주일에 하루	755(88.9)	94(11.1)	849(100)	127.954***
	토요 격주, 주2일	1,036(92.1)	89(7.9)	1,125(100)	
	기타(매2주 하루, 수시, 기타)	620(78.4)	171(21.6)	791(100)	
	해당 없음	892(94.2)	55(5.8)	947(100)	
배우자유무	있음	3,188(89.8)	361(10.2)	3,549(100)	59.061***
	없음(사별, 이혼)	115(70.6)	48(29.4)	163(100)	
미취학자녀 존재유무	있음	790(92.1)	68(7.9)	858(100)	10.888**
	없음	2,513(88.1)	341(11.9)	2,854(100)	
맞벌이여부	맞벌이	1,611(88.0)	219(12.0)	1,830(100)	3.315
	비맞벌이	1,692(89.9)	190(10.1)	1,882(100)	
성역할 태도	연속변수	2.6(0.7)	2.6(0.7)	2.6(0.7)	.507
시간부족감 정도	연속변수	3.0(0.8)	3.2(0.8)	3.1(0.8)	3.279**
업무 피곤함 정도	연속변수	3.3(0.7)	3.5(0.6)	3.4(0.7)	3.906***
생활시간만족도	연속변수	3.1(0.8)	3.1(0.8)	3.1(0.8)	-1.595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94.2%, 하는 집단의 87.2%가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1$), 직업이 없거나, 사무직이나 관리 전문직 집단일 경우($p < .001$), 그리고 노동시간이 없거나 짧은 집단일수록($p < .001$), 개인 월평균 소득은 없거나 소득이 많은 집단일수록($p < .001$), 주휴제도가 상관없는 집단과 일주일에 2일을 쉬는 집단이($p < .001$) 유의미하게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또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가지는 집단의 노동시간이 짧고($p < .001$), 배우자가 있으며, 미취학자녀가 있고, 시간부족감이 낮고, 업무의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집단 간 차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일요일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가지는 집단은 가지지 않는 집단에 비해 20, 30대 연령층의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직업이 없거나 직업이 있다면 사무직이나 전문관리직이며, 노동시간이 없거나 짧고, 개인 월소득은 없거나 300만원 이상인 집단의 사람들이었으며, 주휴제도와 관계가 없거나 주 2일을 쉬며 노동시간이 짧아서 시간부족감이나 업무 피곤함이 없고, 배우자와 미취학자녀가 있는 사람들이다.

3) 가족공유 식사를 결정하는 영향요인

성인들이 가족간 함께 하는 식사를 하기로 결정할 때,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평일의 경우 성별, 연령, 노동시간, 개인 월평균소득, 배우자유무, 성역할태도 변수가, 일요일의 경우 성별, 노동시간, 개인 월평균소득, 배우자유무가 성인들이 가족공유 식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데 있어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대($p < .01$), 40대($p < .05$), 50대($p < .05$)가 평일 가족공유 식사를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일요일에는 연령이 가족공유 식사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평일($p < .01$), 일요일($p < .05$) 모두 가족공유 식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연보」에서 보고하는 바와 같이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49.8%)이 기혼 남성들의 참여율(83.8%)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집안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가능성도 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은 평일 가족공유 식사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이 중인 집단에 비해 노동시간이 없거나($p < .01$), 노동시간이 짧은 노동시간 하집단($p < .001$)이 가족공유 식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긴 노동시간을 하는 집단은 가족공유 식사를 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일요일의 역시 노동시간이 가족공유 식사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노동시간이 중인 집단에 비해 노동시간이 긴 집단이 가족공유 식사를 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표 4-12> 가족식사 공유 결정요인

변 인		구 분		가족식사 공유 전체			
				평일		일요일	
				B	S.E.	B	S.E.
상수항							
성별 (기준:남성)	여성	.207**	.066	.281*	.142		
연령 (기준:20-29세)	30-39세	.380**	.124	-.068	.296		
	40-49세	.296*	.129	-.104	.302		
	50-59세	.287*	.137	-.337	.314		
교육수준 (기준:고졸)	중졸	.011	.077	-.239	.152		
	전문대 및 대졸	-.087	.058	.246	.140		
	대학원이상	.002	.139	.871	.474		
노동시간 (기준:중)	없음	.376**	.118	.481	.257		
	상	-.325***	.062	-.625***	.136		
	하	.350***	.069	.170	.159		
개인 월평균소득 (기준:100~200만원 미만)	없음	.673***	.122	.457	.261		
	100만원 미만	.184*	.082	-.016	.163		
	200~300만원 미만	-.160*	.072	.364*	.163		
	300만원 이상	-.143	.078	.481*	.187		
배우자유무 (기준:없음)	있음	.891***	.100	.936***	.201		
미취학자녀 존재 여부 (기준:있음)	없음	.061	.073	-.106	.176		
맞벌이 여부 (기준:비맞벌이)	맞벌이	-.028	.059	.130	.132		
성역할태도	연속변수	.082*	.038	-.090	.085		
N		10,902		3,712			
-2 log likelihood		10511.146		2403.683			
Chi-Square		640.824***		171.689***			
Degree of freedom		18		18			

나타났다($p < .001$). 이는 평일의 경우 일요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수입노동시간과 노동스케줄이 가족간 함께 식사하는 시간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Paul과 Steven(1987)의 연구에서 노동시간이 가족공유 식사에 부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개인 월평균 소득은 평일의 경우 100~200만원의 월평균 소득을 지닌 집단을 기

준으로 보았을 때, 개인 월평균 소득이 없는($p < .001$) 집단과 개인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p < .05$)의 집단은 가족공유 식사를 할 가능성이 큰 반면 200~300만원 미만($p < .05$)의 집단은 가족공유 식사를 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의 경우 개인 월평균 소득이 200~300만원 미만($p < .05$)의 집단과 300만원 이상($p < .05$)의 집단이 개인 월평균 소득이 100~200만원미만인 집단에 비해 가족식사 공유결정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과 일요일 모두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가족공유 식사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p < .001$), 성역할태도는 평일에만 가족공유 식사 결정에 영향($p < .05$)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2. 가족공유 가사노동

1) 가사노동시간의 실태

(1) 가사노동시간 및 비율

가사노동은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함께 한 사람에 따라 혼자, 가족과 함께, 기타로 나누어 각각의 가사노동시간과 비율을 성별, 요일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4-13>을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2시간 31분이며 이를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 31분, 여성 4시간 23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8배 이상 길다. 가사노동을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로 나누어 보면 평일 가정관리는 1시간 47분인데 가족보살피기는 45분으로 가정관리시간이 가족보살피기보다 1시간 정도 길었다. 남성은 가정관리가 19분, 가족보살피기는 12분으로 가정관리시간이 가족보살피기보다 7분 정도 긴 반면 여성은 가정관리가 3시간 8분, 가족보살피기는 1시간 15분으로 그 격차가 남자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가사노동을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 혼자, 가족과 함께, 기타로 나누어 시간과 비율을 보면 혼자 하는 경우가 1시간 38분으로 전체 가사노동의 67.1%, 가족이 함께 하는 경우가 51분으로 31.8%, 기타가 2분 1.1%로 혼자 하는 경우가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보다 2배 정도 길었다. 남성은 혼자 하는 경우가 15분,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16분으로 거의 비슷한 반면 여성은 혼자 하는 경우가 2시간 56분,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1시간 23분으로 혼자 하는 시간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보다 2배 이상 길다. 혼자, 그리고 가족과 함께 수행한 가사노동의 비율을 성별로 보면 혼자 하는 경우는 남성과 여성 각자가 수행한 가사노동의 53.0%, 73.5%로 여성이 많았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가족과 함께 한 경우는 남성이 46.4%, 여성이 25.1%로 남자가 많았다. 이를 통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사노동을 할 때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정관리를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 보면 혼자 하는 경우가 1시간 38분으로 전체 가정관리시간의 90.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는 7분 8.7%, 기타는 2분에 불과했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은 가정관리를 혼자 하는 경우가 15분,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4분으로 각각 80.7%와 18.9% 인데, 여성은 혼자 2시간 56분, 가족과 함께가 9분으로 그 비율은 각각 93.7%, 5%이었다. 가족보살피기는 그 속성상 혼자 하는 경우는 없고 항상 대상이 있으며 특히 가족과 함께 하는데,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보살피기 시간은 44분으로 7분인 가정관리 시간보다 훨씬 길게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보살피기를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은 12분, 여성은 1시간 14분으로 시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6배 이상 길지만 그 비율은 남녀가 각각 99.8%, 99.1%로 차이가 없었다.

<표 4-13> 가사노동시간량 및 비율(평일)

(단위 : 시간:분)

	평일																				
	전 체			혼 자						가족						기타					
				시간량			비율			시간량			비율			시간량			비율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가사노동 (가정관리+가족보살피기)	2:31	0:31	4:23	1:38	0:15	2:56	67.1	53.0	73.5	0:51	0:16	1:23	31.8	46.4	25.1	0:02	0:00	0:04	1.1	0.6	1.4
가정관리	1:47	0:19	3:08	1:38	0:15	2:56	90.2	80.7	93.7	0:07	0:04	0:09	8.7	18.9	5.0	0:02	0:00	0:03	1.2	0.7	1.4
음식준비및정리	0:56	0:06	1:42	0:53	0:05	1:38	93.5	78.8	95.8	0:03	0:01	0:04	6.2	20.8	3.9	0:00	0:00	0:00	0.3	0.4	0.3
의류관리	0:13	0:01	0:24	0:13	0:01	0:24	98.6	92.6	99.0	0:00	0:00	0:00	1.3	7.4	0.9	0:00	0:00	0:00	0.1	0.0	0.1
청소및정리	0:21	0:05	0:36	0:20	0:04	0:35	95.6	88.9	97.1	0:01	0:01	0:01	4.3	11.1	2.8	0:00	0:00	0:00	0.1	0.0	0.1
집관리	0:03	0:03	0:04	0:03	0:02	0:04	92.8	91.6	93.4	0:00	0:00	0:00	7.2	8.4	6.6	0:00	0:00	0:00	2.3	2.3	2.3
가정관리관련물품구입	0:10	0:03	0:18	0:07	0:01	0:12	70.3	52.7	73.4	0:03	0:02	0:03	21.5	45.9	17.2	0:01	0:00	0:02	8.2	1.4	9.4
가정경영	0:03	0:02	0:04	0:02	0:01	0:03	88.6	80.3	91.1	0:00	0:00	0:00	8.8	17.6	6.2	0:00	0:00	0:00	2.6	2.1	2.7
기타가사일	0:00	0:00	0:00	0:00	0:00	0:00	92.7	90.6	93.2	0:00	0:00	0:00	6.6	9.4	6.1	0:00	0:00	0:00	0.5	0.0	0.7
가족보살피기	0:45	0:12	1:15	0:00	0:00	0:00	0.0	0.0	0.0	0:44	0:12	1:14	99.3	99.8	99.1	0:01	0:00	0:01	0.7	0.2	0.9
미취학아이보살피기	0:26	0:07	0:43	0:00	0:00	0:00	0.0	0.0	0.0	0:26	0:07	0:42	99.7	100	99.6	0:00	0:00	0:00	0.3	0.0	0.4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	0:14	0:03	0:24	0:00	0:00	0:00	0.0	0.0	0.0	0:13	0:03	0:23	98.5	99.8	98.3	0:00	0:00	0:01	1.5	0.2	1.7
배우자보살피기	0:03	0:01	0:05	0:00	0:00	0:00	0.0	0.0	0.0	0:03	0:01	0:05	99.9	98.9	100	0:00	0:00	0:00	0.1	1.1	0.0
부모및조부모보살피기	0:01	0:01	0:02	0:00	0:00	0:00	0.0	0.0	0.0	0:01	0:01	0:02	99.9	100	99.8	0:00	0:00	0:00	0.1	0.0	0.2
그 외 가족보살피기	0:01	0:00	0:02	0:00	0:00	0:00	0.0	0.0	0.0	0:01	0:00	0:02	99.4	96.2	99.8	0:00	0:00	0:00	0.6	3.8	0.2

가정관리 세부활동별 평균시간을 보면 혼자 하는 경우는 음식준비시간이 가장 길어 53분이고, 청소 20분, 의류관리 13분의 순이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음식준비와 물품구입이 모두 3분으로 가장 길었으나 각 세부활동 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은 물품구입이 21.5%로 6.2%인 음식준비보다 높게 나타나, 물품구입이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세부활동 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성별로 보면 혼자 하는 세부활동은, 남성은 음식준비 5분, 청소 및 정리 4분, 집 관리 2분의 순이었고

여성은 1시간 38분인 음식준비, 35분인 청소 및 정리, 24분인 의류관리, 12분인 물품관리의 순이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세부활동은, 남성은 물품구입이 2분, 음식준비와 청소가 각각 1분으로 물품구입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음식준비가 4분, 물품구입이 3분, 청소가 1분으로 음식준비가 가장 많았다.

가족보살피기의 세부활동별 시간을 보면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미취학아이보살피기가 26분으로 가장 많았고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가 13분, 배우자보살피기가 3분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미취학아이보살피기가 7분,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가 3분, 배우자보살피기와 부모보살피기가 각각 1분이었고, 여성은 미취학아이보살피기가 42분,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가 23분, 배우자보살피기가 5분, 부모보살피기와 그 외 가족 보살피기가 각각 2분으로 남녀 모두 미취학아이보살피기 시간이 가장 길었다.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을 보면 <표 4-14>에서와 같이 2시간 57분으로 평일보다 26분 길다. 남녀별로 보면 남성은 1시간 18분으로 평일보다 2배 이상 긴 반면 여성은 4시간 30분으로 평일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가사노동을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로 나누어 보면 일요일 가정관리는 2시간 14분인데 가족보살피기는 42분으로 가정관리시간은 평일보다 일요일에 29분 증가한 데 반해 가족보살피기는 3분 감소하였다. 성별에 따른 요일 간 차이를 보면 남성은 가정관리가 49분, 가족보살피기는 29분으로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각각 30분, 17분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가정관리시간은 일요일에 3시간 35분으로 평일보다 27분 증가하였으나, 가족보살피기는 55분으로 평일에 비해 20분이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여성보다는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그리고 가족보살피기보다는 가정관리 시간의 증가가 큼을 알 수 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을 보면 혼자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는 평균 1시간 47분으로 평일보다 9분 길며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는 1시간 9분으로 평일보다 18분 길어 혼자보다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가 더 컸다. 비율을 통해서도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하는 가사노동시간 비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일요일에 혼자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가 60.0%로 평일보다 낮은 반면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은 39.1%로 평일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남성이 혼자 하는 가사노동시간이 27분으로 평일보다 12분 길며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50분으로 평일보다 34분이 길어 혼자 보다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의 일요일 증가가 더 컸다. 여성은 혼자 하는 가사노동시간이 3시간 2분으로 평일보다 6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1시간 26분으로 평일보다 3분 증가해서 일요일과 평일의 시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는 남자의 가사노동 증가가 크며, 혼자 하는 경우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에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일요일의 가사노동 참여 비율에 있어서도 남성은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56.1%로 평일보다 9.6%, 여성은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27.3%로 평일보다 2.2% 증가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가사노동을 하는 비율이 더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 일요일의 가정관리시간을 보면 혼자 하는 경우가 1시간 47,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27분으로 평일보다 각각 9분, 20분 증가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가 더 컸는데, 비율로 보면 가정관리는 혼자 75.3%로 일요일보다 14.9% 준 반면 가족과 함께는 23.9%로 15% 증가함으로써 요인간의 차이를 더 분명히 보여주었다. 성별에 따른 가정관리시간을 보면 일요일에 남성이 혼자 하는 경우가 27분,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22분으로 각각 12분, 18분 증가하였고 여성이 혼자 하는 경우는 3시간 2분,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는 31분으로 평일보다 각각 6분, 22분 증가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이, 혼자 하는 경우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에 가정관리시간의 증가가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의 요일 간 변화를 보면 남성이 가족과 함께 하는 가정관리시간의 비율이 일요일에 39.6%, 여성은 14.1%로 평일보다 각각 20.7%, 9.1%가 늘어 일요일에 증가하는 가정관리시간의 비율이 남성의 경우에 여성보다 더 컸다. 일요일에 가족보살피기시간을 보면 남성이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는 28분으로 평일보다 16분 증가하였으나 여성은 54분으로 20분 감소하였다.

일요일의 가정관리 세부활동별 평균시간을 보면 혼자 하는 경우는 음식준비시간이 56분, 청소 23분, 의류관리 17분으로 시간순위에 있어 평일과 같았으며 다만 시간에 있어서 3~4분 길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물품구입이 13분으로 가장 길고 음식준비 7분, 청소 및 정리 5분 순이었으며 평일에 비해 각각 10분, 4분, 4분이 길어 혼자 하는 경우보다 가족과 하는 경우가 일요일에 많은 시간 증가하였다. 가족과 함께 하는 이 세부활동의 비율을 보면 물품구입이 61.5%, 음식준비가 14.3%, 청소 및 정리가 6.6%로 평일보다 많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물품구입은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아주 높은 세부활동 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혼자 하는 세부활동 중 청소 및 정리 9분, 음식준비와 집 관리가 각각 7분으로 긴 편에 속하였고 평일에 비해 각각 5분, 2분, 5분이 증가해 청소 및 정리와 집 관리 시간의 일요일 증가가 큰 편이었다. 여성은 1시간 42분인 음식준비, 37분인 청소 및 정리, 30분인 의류관리, 8분인 물품관리의 순이었으며 일요일에 음식준비는 4분, 청소 및 정리는 2분, 의류관리는 6분 증가했다. 남성이 가족과 함께 하는 세부활동은 물품구입 11분, 음식준비와 청소가 각각 4분으로 평일에 비해 물품구입은 9분, 음식준비와 청소는 각각 3분씩 증가하여 일요일의 증가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여성은 물품구입 14분, 음식준비 10분, 청소 및 정리 6분으로 남성과 같은 순이었으며 평일에 비해 각각 11분, 6분, 5분 증가하여 남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요일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이 가족과 함께 하는 세부활동의 비율을 보면 남성은 물품구입이 78.9%, 음식준비는 34.5%, 청소 및 정리는 26.3%로 일요일에 그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일요일에는 물품구입을 하는 남성의 3/4 이상이 가족과 함께 물품구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은 물품구입은 51.8%, 음식준비는 8.9%, 청소 및 정리는 12.4%로 평일에 비해 그 비율이 많이 증가했으나 남성의 비율에는 미치지

지 못하였다.

가족보살피기의 세부활동별 일요일 시간을 보면 가장 긴 시간이 미취학아이보살피기시간(26분)으로 평일과 같았고,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는 9분으로 평일보다 4분 줄었으며, 부모 및 조부모보살피기가 3분으로 평일보다 1분 증가하였으며 배우자보살피기는 2분으로 평일보다 1분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미취학아이보살피기가 18분,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가 5분, 부모보살피기가 4분으로 평일보다 각각 11분, 2분, 3분 증가하였고, 배우자보살피기는 1분으로 평일과 같았다. 여성은 미취학아이보살피기가 34분,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가 13분, 배우자보살피기가 3분으로 평일에 비해 각각 8분, 10분, 2분 감소하였으며, 부모보살피기만 3분으로 평일보다 1분 증가하였다. 이를 볼 때 가족보살피기의 세부활동별 시간이 남성의 경우에는 일요일에 증가하고 여성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비율은 가족보살피기의 속성상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비율상의 성별 차이나 요일 간 차이는 없었다.

<표 4-14> 가사노동시간량 및 비율(일요일)

(단위 : 시간:분)

	일요일																				
	전체			혼자						가족						기타					
				시간량			비율			시간량			비율			시간량			비율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가사노동 (가정관리+가족보살피기)	2:57	1:18	4:30	1:47	0:27	3:02	60.0	42.9	71.8	1:08	0:50	1:26	39.1	56.1	27.3	0:02	0:01	0:02	0.9	1.0	0.9
가정관리	2:14	0:49	3:35	1:47	0:27	3:02	75.3	59.6	85.0	0:27	0:22	0:31	23.9	39.6	14.1	0:01	0:00	0:02	0.9	0.9	0.8
음식준비및정리	1:03	0:11	1:53	0:56	0:07	1:42	85.2	64.5	90.7	0:07	0:04	0:10	14.3	34.5	8.9	0:00	0:00	0:00	0.5	1.0	0.4
의류관리	0:17	0:03	0:31	0:17	0:02	0:30	96.1	85.1	97.4	0:01	0:00	0:01	3.9	14.9	2.5	0:00	0:00	0:00	0.0	0.0	0.0
청소및정리	0:28	0:13	0:43	0:23	0:09	0:37	83.3	73.6	87.4	0:05	0:04	0:06	16.6	26.3	12.4	0:00	0:00	0:00	0.2	0.1	0.2
집관리	0:07	0:08	0:05	0:05	0:07	0:04	84.7	83.0	86.4	0:01	0:01	0:01	15.1	17.0	13.2	0:00	0:00	0:00	0.5	0.9	0.0
가정관리관련물품구입	0:18	0:13	0:23	0:05	0:02	0:08	35.2	20.0	43.6	0:13	0:11	0:14	61.5	78.9	51.8	0:01	0:00	0:01	3.3	1.2	4.5
가정경영	0:01	0:00	0:01	0:00	0:00	0:01	83.4	73.8	86.4	0:00	0:00	0:00	15.0	26.2	11.5	0:00	0:00	0:00	1.6	0.0	2.1
기타가사일	0:00	0:00	0:00	0:00	0:00	0:00	67.2	73.9	61.5	0:00	0:00	0:00	32.8	26.1	38.5	0:00	0:00	0:00	0.0	0.0	0.0
가족보살피기	0:42	0:29	0:55	0:00	0:00	0:00	0.0	0.0	0.0	0:42	0:28	0:54	99.2	99.3	99.1	0:01	0:01	0:01	0.8	0.7	0.9
미취학아이보살피기	0:27	0:19	0:34	0:00	0:00	0:00	0.0	0.0	0.0	0:26	0:18	0:34	99.6	99.7	99.6	0:00	0:00	0:00	0.4	0.3	0.4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	0:09	0:05	0:14	0:00	0:00	0:00	0.0	0.0	0.0	0:09	0:05	0:13	99.1	98.8	98.7	0:00	0:00	0:00	0.9	1.2	1.3
배우자보살피기	0:02	0:01	0:03	0:00	0:00	0:00	0.0	0.0	0.0	0:02	0:01	0:03	100	100	100	0:00	0:00	0:00	0.0	0.0	0.0
부모및조부모보살피기	0:04	0:04	0:03	0:00	0:00	0:00	0.0	0.0	0.0	0:03	0:04	0:03	95.9	93.8	97.8	0:00	0:00	0:00	4.1	6.2	2.2
그 외 가족보살피기	0:01	0:01	0:01	0:00	0:00	0:00	0.0	0.0	0.0	0:01	0:01	0:01	99.4	100	99.2	0:00	0:00	0:00	0.6	0.0	0.8

이를 종합해 볼 때 가사노동은 대부분 여성이 수행하고 있으며 평일에 가사노동을 혼자 하는 경우가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보다 시간에 있어서나 비율에 있어서나 2배 정도 많았다. 또한 여성이 가사노동을 할 경우 혼자 하는 시간이 많은 반면 남성은 혼자 하는 시간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비슷하게 나타나 남성들이 가사노

동을 할 때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혼자 하는 가사노동의 비율이 높은 것은 가정관리를 혼자 하는 비율이 높은 데 의한 것인데 남녀 모두 가정관리를 혼자 하는 비율이 가사노동의 경우보다 더 높았다. 또한 가정관리에 있어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세부활동은 물품구입이었고 특히 남성의 경우에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요일을 비교할 때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이 평일보다 다소 증가했는데 이는 가족보살피기보다는 가정관리 시간이 증가한 것, 혼자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한 것, 여성보다는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비율에 있어서도 일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가사노동시간의 비율이 평일보다 높아졌으며 남성의 경우에 여성보다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더 많이 증가했다. 특히 일요일에 남성이 가족과 함께 하는 가사노동이 증가한 것은 가사노동 중 가정관리에 있어서 가족과 함께 한 시간과 비율이 증가한 데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세부활동에 있어서 물품구입의 가족공유가 일요일에 증가하여 남성의 3/4이상과 여성의 반 이상이 가족과 함께 물품구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 공유 가사노동

①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

가족 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공유대상별, 성별로 살펴본 결과가 <표 4-15>와 같다. <표 4-15>를 보면 평일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은 51분인데 이를 남녀 별로 보면 남성은 16분인데 여성은 1시간 23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이상 많다.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공유대상별로 보면 배우자와 공유하는 시간이 8분, 미취학자녀가 25분, 그 외 가족친척이 19분으로 미취학자녀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가장 길었다. 남녀로 나누어 보면 배우자와 공유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대상의 경우에 여성이 남성보다 공유시간이 훨씬 길었다.

가사노동을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로 나누어 가족공유시간을 보면 가정관리를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이 7분인데 반해 가족보살피기는 44분으로 나타나 가족과의 공유시간의 대부분이 가족보살피기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공유대상별로 보면 가정관리 중 배우자와 공유한 시간이 4분, 미취학자녀와는 1분, 그 외 가족은 3분으로 배우자와 함께 한 경우가 가장 길었으나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아주 낮다고 하겠다. 가족보살피기의 가족대상별 공유시간은 배우자가 5분, 미취학자녀가 24분, 그 외 가족이 16분으로 미취학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길고 그 외 가족, 배우자의 순이었다. 남녀 간 차이를 보면 가정관리는 가족공유시간이 너무 짧아 그 차이가 거의 없으나 가족보살피기에서는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 남자는 12분인데 반해 여자는 1시간 14분이었으며 모든 공유대상별 가족보살피기시간에 있어서도 남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4-15>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평일)

(단위 : 시간:분)

	평 일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			그 외 가족·친척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가사노동 (가정관리+가족보살피기)	0:51	0:16	1:23	0:08	0:06	0:10	0:25	0:06	0:42	0:19	0:04	0:32
가정관리	0:07	0:04	0:09	0:04	0:04	0:04	0:01	0:00	0:01	0:03	0:01	0:05
음식준비및정리	0:03	0:01	0:04	0:01	0:01	0:01	0:00	0:00	0:00	0:01	0:00	0:03
의류관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청소및정리	0:01	0:01	0:01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집관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가정관리관련물품구입	0:03	0:02	0:03	0:01	0:01	0:01	0:01	0:00	0:01	0:01	0:00	0:01
가정경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가사일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가족보살피기	0:44	0:12	1:14	0:05	0:03	0:07	0:24	0:06	0:41	0:16	0:03	0:27
미취학아이보살피기	0:26	0:07	0:42	0:01	0:02	0:01	0:24	0:06	0:41	0:00	0:00	0:01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	0:13	0:03	0:23	0:00	0:00	0:00	0:00	0:00	0:00	0:13	0:02	0:23
배우자보살피기	0:03	0:01	0:05	0:03	0:01	0:05	0:00	0:00	0:00	0:00	0:00	0:00
부모및조부모보살피기	0:01	0:01	0:02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1	0:02
그 외 가족보살피기	0:01	0:00	0:02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2

일요일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은 <표 4-16>에서 보듯이 1시간 8분으로 평일보다 17분 많았는데 이를 남녀로 나누어 보면 남성 50분, 여성 1시간 26분으로 평일에 비해 남성은 34분, 여성은 3분이 증가해 일요일에 공유시간의 증가는 남자의 공유시간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공유대상별로 평일과 비교해보면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26분,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24분으로 평일보다 각각 1분, 5분이 늘어난 데 반해 배우자와의 공유는 27분으로 평일보다 19분이 늘어나 일요일에 증가한 가족공유시간의 대부분이 배우자와의 공유시간의 증가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일요일의 공유대상별 증가를 남녀별로 보면 남성은 모든 공유대상에서 증가한 데 반해 여성은 배우자와의 공유만 증가하고 그 외 가족은 별 변화가 없으며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일요일의 가족공유시간을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로 나누어 보면 가정관리는 27분으로 평일보다 20분이 증가했으며 남녀별로 보면 남성은 22분, 여성은 31분으로 평일에 비해 각각 18분과 22분이 증가했다. 증가량으로 보면 여성이 다소 많으나 증가율로 보면 남성의 증가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요일의 가족보살피기는 42분으로 평일보다 오히려 2분 줄어들었는데 남녀 간에 차이가 있어 남성은 28분으로 평일보다 16분이 증가한 데 반해 여성은 54분으로 20분이 줄어들었다. 요일 간 가족보살피기시간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은 남성의 가족보살피기시간은 증가한 데 반해 여성의 가족보살피기시간이 감소해서 남성의 시간의 증가를 상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요일의 가정관리 공유를 공유대상별로 보면 배우자가 19분으로 평일보다 15분이나 증가하고 그 외 가족은 11분으로 8분이 증가했으며 미취학자녀는 3분으로 2분이 증가해서 공유대상 중 배우자와의 공유시간의 증가가 가장 컸으며, 남자는 특히 배우자와의 공유에서, 여자는 배우자 및 그 외 가족과의 공유에서 증가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리 세부활동별로 공유시간을 보면 물품구입에 10분을 포함함으로써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음식준비와 청소는 각각 4분을 할애하였다. 그 외 가족과 함께 한 11분의 가정관리 공유시간은 물품구입에 5분, 음식준비에 4분, 청소는 2분 할애되었다.

일요일의 가족보살피기를 공유대상별로 보면 배우자가 8분으로 평일보다 3분 증가한 데 반해, 미취학자녀는 23분, 그 외 가족은 13분으로 평일에 비해 각각 1분, 3분이 줄어들어 미취학자녀나 학령기자녀와 함께 보내는 가족보살피기시간은 일요일에 조금 줄어들었다. 공유대상별 가족보살피기에 있어 요일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자는 모든 공유대상에서 일요일에 평일보다 2배 이상 증가한데 반해 여자는 배우자와의 공유만 1분 증가하고 다른 공유대상에서는 10분씩 감소함으로써 남녀 간에 요일 간 변화 양상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6>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일요일)

(단위 : 시간:분)

	일요일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			그 외 가족·친척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가사노동 (가정관리+가족보살피기)	1:08	0:50	1:26	0:27	0:27	0:28	0:26	0:18	0:34	0:24	0:14	0:33
가정관리	0:27	0:22	0:31	0:19	0:20	0:19	0:03	0:03	0:03	0:11	0:06	0:16
음식준비및정리	0:07	0:04	0:10	0:04	0:04	0:04	0:00	0:00	0:00	0:04	0:01	0:07
의류관리	0:01	0:00	0:01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청소및정리	0:05	0:04	0:06	0:04	0:04	0:04	0:00	0:00	0:00	0:02	0:01	0:02
집관리	0:01	0:01	0:01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가정관리관련물품구입	0:13	0:11	0:14	10:0	0:11	0:10	0:03	0:03	0:03	0:05	0:04	0:06
가정경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가사일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가족보살피기	0:42	0:28	0:54	0:08	0:07	0:09	0:23	0:15	0:30	0:13	0:08	0:17
미취학아이보살피기	0:26	0:18	0:34	0:03	0:03	0:03	0:23	0:15	0:30	0:01	0:01	0:01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	0:09	0:05	0:13	0:01	0:01	0:01	0:00	0:00	0:00	0:08	0:03	0:12
배우자보살피기	0:02	0:01	0:03	0:02	0:01	0:03	0:00	0:00	0:00	0:00	0:00	0:00
부모및조부모보살피기	0:03	0:04	0:03	0:02	0:02	0:02	0:00	0:00	0:00	0:03	0:03	0:02
그 외 가족보살피기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1	0:01

이를 볼 때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은 평일보다 일요일이 길며, 평일에는 미취학자녀와의 가족공유가 가장 길고 그 외 가족, 배우자의 순인데 반해 일요일에는 배우자와의 가족공유시간이 가장 길었다.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에 있어서 가정관리 보다는 가족보살피기가 더 길고 여성의 가족공유시간이 남성보다 길며 특히 가족보

살피기에서 남녀 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가사노동의 가족공유시간이 늘어난 것은 가정관리시간에서의 가족공유의 증가, 배우자와의 공유시간의 증가, 남성의 가족공유시간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일요일에 남성의 경우는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의 모든 공유대상에서 가족공유시간이 증가한 데 반해 여성은 가정관리에서는 증가했지만 미취학자녀보살피기와 그 외 가족보살피기에서 오히려 줄어들었으므로 일요일에 남성에 의한 미취학자녀나 학령기자녀의 보살피기의 대체가 다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

앞에서는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평균시간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가족전체와 공유대상별로 나누어서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가족전체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

평일과 일요일의 가족전체의 가족공유 가사노동 실태를 행위자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으로 본 결과가 <표 4-17>이다.

<표 4-17> 성인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시간

(단위 %)

	평 일						일요일					
	행위자 비율			행위자평균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평균시간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가사노동 (가정관리+가족보살피기)	50.5	28.9	70.7	1:40	0:55	1:58	62.6	53.6	71.1	1:49	1:33	2:01
가정관리	15.9	10.2	21.3	0:42	0:41	0:43	41.2	35.9	46.3	1:05	1:01	1:08
음식준비및정리	7.7	4.3	10.8	0:33	0:28	0:35	16.9	11.8	21.8	0:44	0:37	0:47
의류관리	0.6	0.3	0.8	0:23	0:24	0:23	2.1	1.4	2.8	0:28	0:27	0:28
청소및정리	2.9	2.3	3.5	0:32	0:31	0:32	13.2	11.5	14.8	0:38	0:38	0:39
집관리	1.1	0.7	1.4	0:31	0:39	0:27	3.6	4.1	3.1	0:33	0:33	0:33
가정관리관련물품구입	6.0	3.8	8.2	0:41	0:42	0:41	22.3	20.7	23.8	0:56	0:55	0:57
가정경영	0.9	0.8	0.9	0:31	0:33	0:29	0.4	0.4	0.4	0:23	0:23	0:23
기타가사일	0.1	0.0	0.1	0:26	0:21	0:27	0.3	0.2	0.3	0:24	0:18	0:27
가족보살피기	44.7	22.6	65.4	1:39	0:52	1:53	42.7	33.5	51.5	1:37	1:24	1:46
미취학아이보살피기	18.6	13.2	23.6	2:17	0:57	3:00	20.9	19.1	22.6	2:07	1:36	2:31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	22.8	7.9	36.8	0:58	0:32	1:04	16.8	10.2	23.0	0:54	0:45	0:58
배우자보살피기	13.6	2.4	24.0	0:22	0:29	0:21	8.4	3.1	13.4	0:23	0:21	0:23
부모및조부모보살피기	1.4	1.1	1.8	1:26	1:14	1:34	3.3	3.3	3.4	1:39	1:59	1:21
그 외 가족보살피기	3.1	0.6	5.4	0:36	0:49	0:30	2.5	1.5	3.3	0:36	0:37	0:35

<표 4-17>에서 보면 평일 가족과 함께 가사노동을 한 행위자의 비율이 50.5%이

고 이들의 평균시간은 1시간 40분이었고, 그 중 남성은 28.9%에 55분, 여성은 70.7%에 1시간 58분으로 나타나 여성이 가족과 공유하는 가사노동의 행위자 비율이나 평균시간 모두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가사노동을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정관리의 가족공유 행위자율은 15.9%이고 평균시간은 42분, 가족보살피기의 행위자율은 44.7%이고 평균시간은 1시간 39분으로 나타나 가족보살피기가 가정관리보다 행위자율도 높고 행위자 평균시간도 길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가정관리의 행위자율이 10.2%, 행위자 평균시간은 41분이고 여성은 행위자율은 21.3%, 행위자 평균시간은 43분으로 앞의 <표 4-17>에서 나타난 성별에 따른 가족공유 가정관리 평균시간의 차이는 행위자 평균시간보다는 행위자 비율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성별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은 남성이 22.6%에 52분, 여성은 65.4%에 1시간 53분으로 나타나 가족보살피기는 행위자 비율이나 평균시간에 있어 남녀 간의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세부활동을 보면 가정관리에서는 음식준비와 물품준비의 가족공유 행위자율이 5% 넘었을 뿐인데 반해 가족보살피기에서는 초·중·고등학생돌보기가 22.8%, 미취학아이보살피기가 18.6%, 배우자보살피기가 13.6%로 가정관리 세부활동보다 행위자율이 높았다. 한편 세부활동별 행위자 평균시간은 가정관리는 23분~41분 정도로 세부활동 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가족보살피기는 미취학아이보살피기가 2시간 17분으로 아주 길고 그 다음이 부모보살피기(1시간 26분),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58분) 순이며 배우자보살피기는 22분으로 가장 작아 세부활동별 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세부활동별 행위자 평균시간을 보면 가정관리는 남녀의 차이가 없으나 가족보살피기는 세부활동에 따라 남녀의 차이가 커서 미취학아이보살피기와 학동기자녀보살피기는 여성의 평균시간이 남성보다 2배~3배 정도 긴데 반해 부모보살피기는 여성이 조금 길며 배우자보살피기와 그 외 가족보살피기는 남성의 평균시간이 여성보다 길게 나타났다.

일요일 가사노동의 가족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표 4-17>에서 보면 가족전체의 가족공유 행위자 비율은 62.6%, 평균시간은 1시간 49분으로 행위자 비율은 평일보다 7.1% 높았고 평균시간은 9분 증가하였다. 성별에 따른 일요일의 가족공유 행위자율을 보면 남성은 53.6%로 평일보다 24.7%, 평균시간은 1시간 33분으로 평일보다 38분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71.1%로 평일보다 0.4%, 평균시간은 2시간 1분으로 3분 증가해 행위자 비율이나 평균시간에 있어 남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를 통해 가사노동에 가족공유로 참여하는 남녀 간 격차가 일요일에 많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로 나누어 일요일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가정관리의 가족공유 행위자율은 41.2%, 평균시간은 1시간 5분, 가족보살피기의 가족공유 행위자율은 42.7%, 평균시간은 1시간 37분으로 나타나, 가정관리는 평일보다 행위자 비율에 있어서는 거의 2배 반이 증가하였고, 평균시간에 있어서는 23분 증가

한 데 반해 가족보살피기는 평일보다 행위자 비율에 있어서 2%, 평균시간에 있어서 2분 감소하였다. 이를 볼 때 일요일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는 가정관리에 있어서의 행위자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의 증가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가정관리의 행위자율이 35.9%, 행위자 평균시간은 1시간 1분으로 평일에 비해 행위자율에서는 3.5배 증가하였고 행위자 평균시간에 있어서는 20분 증가한 데 반해 여성의 행위자율 46.3%, 행위자 평균시간은 1시간 8분으로 평일에 비해 행위자 비율은 2.1배 증가하고 평균시간은 25분 증가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가정관리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에 있어 평일보다 일요일에 많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성의 행위자 비율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성별에 따른 일요일의 가족보살피기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은 남성이 33.5%에 1시간 24분, 여성은 51.5%에 1시간 46분으로 평일에 비해 남성은 행위자 비율은 10.9%, 행위자 평균시간은 32분 증가한 데 반해 여성은 행위자 비율은 13.9%, 행위자 평균시간은 7분 감소하여 가족보살피기에 있어서의 남녀 간의 격차가 일요일에 다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부활동별 요일간 변화를 보면 가정관리는 모든 세부활동에서 행위자율과 행위자평균이 남녀 모두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족보살피기를 보면 행위자 비율은 모든 세부활동에서 남성은 평일보다 일요일에 증가한 반면 여성은 감소하였으며, 행위자평균시간은 일요일에 미취학아이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 부모보살피기에서는 남성이 증가하고 여성이 감소하였으며 배우자보살피기와 그 외 가족보살피기에서는 남성은 감소하고 여성은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여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은 행위자 비율에 있어서나 평균시간에 있어서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가족보살피기가 행위자비율은 2.8배, 행위자 평균시간은 2.4배 가정관리보다 높았다. 또한 남녀 간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격차는 가정관리에 있어서는 행위자 비율의 차이에, 가족보살피기에서는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 모두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일요일은 평일에 비해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증가했는데 이는 가정관리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에서 증가, 남성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가족보살피기에서 남성은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 모두 평일보다 증가한 데 반해 여성은 모두 감소함으로써 여성의 가족보살피기가 일요일에 남성에 의해 다소 대체됨을 알 수 있다. 세부활동별로 볼 때 행위자 비율은 모든 세부활동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지만 행위자 평균시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긴 세부활동도 있어 일단 남성들이 가사노동에 참여를 하면 상당한 시간을 이에 할애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요일의 부모보살피기에서 남성 행위자의 평균시간이 1시간 59분으로 여성보다 38분이나 길게 나타나 일요일에 부모보살피기 역할을 대체하고 보완함을 알 수 있다.

나) 공유대상별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

평일과 일요일의 공유대상별 가족공유 가사노동 실태를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

균시간으로 본 결과가 <표 4-18>과 <표 4-19>이다. 우선 평일의 공유대상별 가족 공유 가사노동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표 4-18>에서 보듯이 배우자와의 공유는 24.0%에 35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17.8%에 2시간 18분,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29.5%에 1시간 3분으로 행위자율은 그 외 가족과 공유, 배우자와의 공유,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의 순이고, 행위자 평균시간은 미취학자녀가 가장 길고, 그 외 가족과의 공유, 배우자와의 공유 순이었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정이 적기 때문에 미취학자녀와의 행위자율이 가장 적지만,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살피는데 요구되는 시간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남성이 14.1%에 45분, 여성은 33.3%에 31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남성 12%에 52분, 여성 23.3%에 3시간,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남성 10.3%에 41분, 여성 47.4%에 1시간 7분으로 행위자율은 모든 공유대상에 있어서 여성이 높고 특히 그 외 가족과의 공유에서 남녀 간의 행위자율의 격차가 가장 큰 반면, 행위자 평균시간에 있어서는 공유대상 중 미취학자녀와 그 외 가족과의 공유에서는 여성의 평균시간이 남성보다 길고 특히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3.5배 정도 긴 데 반해 배우자와의 공유에서는 남성의 평균시간이 여성보다 길었다. 이를 통해 배우자와 함께 집안일을 하는 남성이 14%로 낮은 수준이지만 남성이 집안일을 할 경우에는 여성보다 긴 시간을 투입함을 알 수 있다.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로 나누어 공유대상별로 가정관리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가 9.1%에 39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가 2.4%에 35분, 그 외 가족과의 공유가 6.4%에 44분으로 행위자율은 배우자와의 공유가 가장 많고, 그 외 가족과의 공유, 미취학자녀와의 공유 순이었으며 행위자 평균시간은 공유대상 별로 큰 차이가 없이 35~44분 정도이었다. 성별에 따라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남성이 8.9%에 39분, 여성이 9.4%에 38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남성이 1.0%에 36분, 여성이 3.8%에 34분이며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남성 2.0%에 40분, 여성 10.6%에 45분으로 배우자와의 공유는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 모두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와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행위자율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으나 행위자 평균시간에 있어서는 남녀가 격차가 거의 없었다.

가족보살피기의 가족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공유대상별로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가 17.4%에 28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가 17.6%에 2시간 15분, 그 외 가족과의 공유가 26.5%에 59분으로 행위자 비율은 그 외 가족이 가장 높고 배우자와의 공유와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그보다 낮지만 비슷한 비율을 보인 반면, 행위자 평균시간은 미취학자녀와의 공유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그 외 가족과의 공유였으며 배우자와의 공유는 28분으로 낮았다. 성별로 나누어보면, 배우자와의 공유가 남성 6.9%에 41분, 여성 27.2%에 25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남성 11.6%에 50분, 여성 23.3%에 2시간 54분,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남성 8.9%에 39분, 여성 43.0%에 1시간 3분으로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와 그 외 가족 공유에서는 행위자 비율과 평균

시간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으나 배우자와의 공유에서는 행위자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4배 가까이 높았으나 행위자 평균시간은 남성이 여성의 1.6배 수준이었다.

가족보살피기의 세부활동 중 미취학아이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 배우자보살피기에 주목하여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미취학자녀보살피기는 배우자가 함께 하는 경우 남성이 3.5%에 44분, 여성이 2.8%에 41분으로 아주 낮은 비율의 가정만이 배우자가 함께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는 남성이 7.3%에 31분, 여성은 36.6%에 1시간 3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행위자율에서는 5배, 평균시간에서는 2배 많이 학령기자녀보살피기에 참여하였다. 즉 여성은 1/3 이상이 학령기자녀보살피기에 참여하는 반면 남성은 10%에도 못 미치는 낮은 비율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배우자보살피기는 남성은 2.4%에 29분, 여성은 23.9%에 21분으로 행위자 비율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10배 정도 많았으나 평균시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공유대상별 가사노동의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시간(평일)

(단위 : 시간분, %)

	평 일																	
	배우자						미취학자녀						그 외 가족·친척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가사노동 (가정관리+가족보살피기)	24.0	14.1	33.3	0:35	0:45	0:31	17.8	12.0	23.3	2:18	0:52	3:00	29.5	10.3	47.4	1:03	0:41	1:07
가정관리	9.1	8.9	9.4	0:39	0:39	0:38	2.4	1.0	3.8	0:35	0:36	0:34	6.4	2.0	10.6	0:44	0:40	0:45
음식준비및정리	4.0	3.6	4.4	0:27	0:28	0:26	0.2	0.0	0.4	0:27	0:12	0:29	4.0	0.9	6.8	0:38	0:31	0:38
의류관리	0.3	0.3	0.3	0:24	0:24	0:24	0.0	0.0	0.1	0:16	0:10	0:18	0.3	0.0	0.5	0:22	0.0	0:22
청소및정리	2.0	1.9	2.1	0:30	0:30	0:30	0.2	0.2	0.3	0:22	0:20	0:23	0.8	0.3	1.3	0:36	0:43	0:35
집관리	0.5	0.5	0.6	0:28	0:31	0:26	0.1	0.1	0.1	0:14	0:10	0:16	0.2	0.1	0.2	0:28	0:32	0:26
가정관리관련물품구입	3.2	3.4	3.1	0:43	0:42	0:44	1.9	0.7	3.0	0:36	0:42	0:34	2.0	0.7	3.3	0:44	0:43	0:44
가정경영	0.6	0.7	0.5	0:34	0:33	0:35	0.2	0.0	0.3	0:23	0:40	0:21	0.1	0.1	0.2	0:27	0:25	0:29
기타가사일	0.1	0.0	0.1	0:23	0:27	0:21	0.0	0.0	0.0	0:10	0.0	0:10	0.0	0.0	0.0	0:40	0:13	1:12
가족보살피기	17.4	6.9	27.2	0:28	0:41	0:25	17.6	11.6	23.3	2:15	0:50	2:54	26.5	8.9	43.0	0:59	0:39	1:03
미취학아이보살피기	3.1	3.5	2.8	0:43	0:44	0:41	17.6	11.6	23.2	2:15	0:50	2:54	0.9	0.4	1.4	0:51	0:38	0:55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	1.0	1.0	1.1	0:27	0:29	0:25	0.1	0.0	0.1	0:19	0.0	0:19	22.4	7.3	36.6	0:58	0:31	1:03
배우자보살피기	13.5	2.4	23.9	0:22	0:29	0:21	0.1	0.0	0.1	0:29	0.0	0:29	0.1	0.0	0.2	0:23	0:32	0:21
부모및조부모보살피기	0.2	0.2	0.2	2:21	2:19	2:23	0.0	0.0	0.1	0:15	0:10	0:17	1.4	1.0	1.7	1:29	1:17	1:35
그 외 가족보살피기	0.2	0.2	0.2	0:41	0:35	0:47	0.0	0.0	0.0	0:20	0:20	0:20	3.0	0.5	5.3	0:31	0:51	0:30

일요일의 공유대상별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표 4-19>에서 보듯이 배우자와의 공유는 41.5%에 1시간 6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20.6%에 2시간 6분,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33.3%에 1시간 11분으로 모든 공유대상

에서 행위자율이 평일보다 증가하였는데 증가정도는 배우자와의 공유가 가장 커서 평일에는 그 외 가족과의 공유 행위자율이 가장 높았던 데 반해 일요일에는 배우자와의 공유가 가장 높았다. 또 행위자 평균시간은 배우자와의 공유가 31분 증가해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줄었고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조금 증가해 평일과 비교할 때 배우자와의 공유가 행위자 비율이나 평균시간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남성이 39.0%에 1시간 10분, 여성은 43.9%에 1시간 3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남성 19.0%에 1시간 33분, 여성 22.0%에 2시간 32분,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남성 21.5%에 1시간 3분, 여성 44.4%에 1시간 15분으로 나타났다.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배우자와의 공유는 남성과 여성 모두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에 있어 증가했는데,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남성은 행위자 비율과 평균 모두 증가한 반면, 여성은 행위자 비율과 평균 모두 감소했으며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남성은 행위자 비율과 평균 모두 증가한 반면 여성은 행위자율은 감소하고 평균시간은 다소 증가하였다. 일요일에도 모든 공유대상에 있어서 여성의 행위자율이 남성보다 높지만 남성은 행위자 비율과 평균이 일요일에 모든 공유대상에서 평일보다 증가한 반면 여성은 그렇지 않음으로써 가족공유에 있어서 여성과의 격차가 일요일에 감소하였다.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로 나누어 공유대상별로 일요일의 가정관리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가 31.0%에 1시간 3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가 6.2%에 50분, 그 외 가족과의 공유가 19.2%에 57분으로 평일에 비해 모든 공유대상에서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배우자와의 공유의 증가 정도가 가장 컸다. 공유대상별로 일요일의 가족보살피기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17.6%에 45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19.8%에 1시간 55분,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22.1%에 58분으로 가정관리에서는 평일과 일요일 간에 가족공유 가사노동 참여정도의 변화가 큰 데 반해 가족보살피기에서는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에서 큰 차이가 없고 다만 배우자와의 공유의 행위자 평균시간만 60% 정도 일요일에 증가했을 뿐이다. 따라서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은 가정관리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이 증가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공유대상별 가정관리의 가족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남성이 31.8%에 1시간 3분, 여성이 30.3%에 1시간 2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남성이 5.7%에 53분, 여성이 6.7%에 49분이며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남성 12.0%에 46분, 여성 26.1%에 1시간 2분으로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남성과 여성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모든 공유대상에서 증가했으며, 행위자 비율의 증가가 행위자 평균시간의 증가보다 더 두드러졌고 공유대상별 행위자 평균시간의 증가는 배우자와의 공유에서 가장 컸다.

성별에 따른 공유대상별 가족보살피기의 가족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가 남성 13.3%에 53분, 여성 21.8%에 40분, 미취학자녀와의 공

유는 남성 17.8%에 1시간 23분, 여성 21.6%에 2시간 20분,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남성 13.7%에 59분, 여성 30.2%에 57분으로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남성은 행위자 비율과 평균이 모든 공유대상에서 증가한 반면 여성은 행위자 비율은 모든 공유대상에서 감소하고 행위자 평균시간은 배우자와의 공유만 제외하고 나머지 공유대상인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와 그 외 가족과의 공유에서 감소하였다. 일요일의 가족보살피기의 가족공유에서 남성은 그 참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우 감소했기 때문에 남녀 성인의 가족보살피기의 가족공유는 요일에 따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4-19> 공유대상별 가사노동의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시간(일요일)

(단위 : 시간:분, %)

	일요일																	
	배우자						미취학자녀						그외가족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가사노동 (가정관리+가족보살피기)	41.5	39.0	43.9	1:06	1:10	1:03	20.6	19.0	22.0	2:06	1:33	2:32	33.3	21.5	44.4	1:11	1:03	1:15
가정관리	31.0	31.8	30.3	1:03	1:03	1:02	6.2	5.7	6.7	0:50	0:53	0:49	19.2	12.0	26.1	0:57	0:46	1:02
음식준비및정리	9.8	10.4	9.3	0:39	0:38	0:40	0.3	0.2	0.4	0:20	0:20	0:21	9.3	2.9	15.4	0:44	0:30	0:47
의류관리	1.6	1.3	1.8	0:27	0:26	0:28	0.0	0.1	0.0	0:50	0:50	0:00	0.6	0.0	1.1	0:26	0:20	0:26
청소및정리	10.5	10.5	10.5	0:37	0:38	0:35	0.4	0.4	0.5	0:34	0:37	0:31	3.9	2.1	5.6	0:39	0:31	0:42
집관리	2.7	2.9	2.6	0:32	0:31	0:33	0.3	0.4	0.1	0:32	0:38	0:13	1.2	1.7	0.8	0:28	0:29	0:26
가정관리관련물품구입	18.0	18.8	17.2	0:58	0:58	0:58	5.5	4.9	6.1	0:51	0:53	0:50	9.0	7.2	10.8	0:54	0:50	0:56
가정경영	0.3	0.4	0.3	0:24	0:23	0:25	0.0	0.0	0.0	0:00	0:00	0:00	0.1	0.0	0.1	0:19	0:00	0:19
기타가사일	0.3	0.2	0.3	0:20	0:18	0:22	0.0	0.0	0.0	0:00	0:00	0:00	0.0	0.0	0.1	0:20	0:00	0:20
가족보살피기	17.6	13.3	21.8	0:45	0:53	0:40	19.8	17.8	21.6	1:55	1:23	2:20	22.1	13.7	30.2	0:58	0:59	0:57
미취학아이보살피기	6.1	6.5	5.8	0:52	0:53	0:51	19.8	17.8	21.6	1:54	1:22	2:20	2.2	1.6	2.8	0:49	0:51	0:47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	2.4	2.4	2.4	0:45	0:49	0:42	0.0	0.0	0.0	0:00	0:00	0:00	15.8	8.6	22.7	0:51	0:40	0:55
배우자보살피기	8.0	2.8	13.0	0:22	0:20	0:23	0.3	0.4	0.3	0:21	0:27	0:13	0.4	0.3	0.6	0:13	0:10	0:15
부모및조부모보살피기	1.5	1.6	1.5	1:45	1:49	1:41	0.1	0.0	0.1	0:46	1:40	0:36	2.9	2.7	3.0	1:36	2:00	1:15
그 외 가족보살피기	0.6	0.5	0.6	0:35	0:28	0:41	0.0	0.0	0.0	0:00	0:00	0:00	2.2	1.3	3.1	0:37	0:40	0:36

가족보살피기의 세부활동 중 미취학아이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 배우자보살피기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의 요일에 따른 변화를 보면 미취학자녀보살피기를 배우자가 함께 하는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일요일에 증가했으며,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는 남성의 경우 행위자 비율과 평균

시간은 일요일에 다소 증가했으나 여성의 경우는 모두 감소했으며, 배우자보살피기는 남성은 행위자율은 증가, 평균시간은 감소한 데 반해, 여성은 행위자율은 크게 감소한 반면 행위자 평균시간은 다소 증가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공유대상별로 가족공유 행위자율은 그 외 가족과의 공유가 가장 크고, 배우자와의 공유,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의 순인데 반해 행위자 평균시간은 미취학자녀가 가장 크게 나타나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정이 적어서 행위자율은 낮지만 미취학자녀 가정은 이들을 돌보기 위해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한 요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족공유 행위자율은 모든 공유대상에 있어 여성이 높고 행위자 평균시간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와 그 외 가족과의 공유에서는 여성이 높지만 배우자와의 공유에서의 행위자 평균시간은 남성이 길게 나타남으로써 남성이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할 경우 여성보다 긴 시간을 투입함을 알 수 있다.

공유대상에 따라 또한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에 따라 남녀 간의 격차는 다른 양상은 보이는데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와 그 외 가족과의 공유의 경우 남녀 간의 격차가 가정관리에서는 행위자비율의 차이에, 가족보살피기에서는 행위자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에 기인하지만 배우자와의 공유의 경우 가정관리에서는 남녀 간 격차가 없으며 가족보살피기에서는 행위자율은 여성이 높으나 평균시간에 있어서는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일요일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증가는 공유대상 중에서 배우자와의 공유의 증가, 남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증가, 가정관리의 가족공유 증가가 모든 공유대상의 행위자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에서 이루어진 데 기인하고 있다. 공유대상 중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행위자율에서는 증가했으나 행위자 평균시간에서는 감소했으며, 여성은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에서 행위자비율과 평균시간이 감소하고, 그 외 가족과의 공유에서 행위자율이 감소했으며, 가족보살피기에 있어서는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에서 요일 간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유배우자 부부의 맞벌이여부 및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족공유 가사노동

본 연구에서는 취업한 기혼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함에 있어 자녀 양육 문제가 가장 어렵다는 데 주목하여 유배우자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맞벌이여부 및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실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유배우자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맞벌이 여부 및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보면 다음의 <표 4-20>과 같다. 우선 평일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보면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가정이 2시간 31분으로 가장 길고, 다음이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 미취학자녀가 없는 비맞벌이 가정, 미취학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정의 순이었다. 이를 보면 맞벌이 여부 보다는 미취학자녀 유무가 가족공유가사노동시간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취학자녀가 없는 가정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이 낮은 것은 미취학자녀 보살피기가 가족공유 가사

노동시간에서 큰 비중을 갖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의 가족공유시간이 39분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35분의 가족공유시간을 보이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가정이며 미취학자녀가 없는 가정은 맞벌이 여부와 관련 없이 낮은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보여주었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정의 남편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은 평균시간에 있어서는 맞벌이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행위자 비율에서는 차이를 보여 맞벌이가정 남성의 행위자 비율이 63.4%로 비맞벌이 가정의 남편보다 10.3% 높았는데 행위자 평균시간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를 볼 때 맞벌이 여부에 따른 남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는 행위자 비율의 차이에 의한다고 하겠다.

여성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가정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이 4시간 36분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다음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 미취학자녀가 없는 비맞벌이 가정, 미취학자녀가 없는 맞벌이가정의 순이었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가정의 여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길지만 미취학자녀를 가진 맞벌이가정 여성의 가사노동시간도 2시간 15분으로 길어 미취학자녀가 없는 비맞벌이 가정의 여성(1시간 2분)보다 2배 정도 길었고 미취학자녀가 없는 맞벌이가정의 여성은 28분으로 가장 짧았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은 행위자비율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행위자 평균시간에서 차이를 보여 비맞벌이 가정의 여성의 평균시간이 맞벌이 가정의 여성보다 2배 정도 길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미취학자녀 유무가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었으며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남성은 행위자율에서 맞벌이 가정의 남편이 높은 반면 여성은 행위자율의 차이는 없고 행위자 평균에서는 차이를 보여 비맞벌이 가정의 여성이 맞벌이 가정의 여성보다 2배 정도 길었다.

가정관리의 가족공유 시간을 보면 맞벌이 여부 및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이 낮은 수준이었으며 남녀 간의 차이도 여성이 남성보다 2~3배 긴 정도로 집단 간에 차이가 별로 없었다. 행위자 비율을 보면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가정의 경우가 가장 크고 나머지 집단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남녀 간의 차이도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가정의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정도로 가장 큰 행위자율의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 집단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컸다. 행위자 평균시간에 있어서는 미취학자녀 유무와 관계 없이 비맞벌이 가정이 맞벌이가정보다 길었으며 남녀 간의 행위자 평균시간은 각 집단별로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가족보살피기 가족공유 시간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가정,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 미취학자녀가 없는 비맞벌이 가정, 미취학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정의 순으로 맞벌이 여부 및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라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보살피기 행위자 비율을 보면 맞벌이 여부와 관련 없이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정이 미취학자녀가 없는 가정보다 2배 정도 높았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맞벌이 여부에 따라 남녀 간에 차이를 보여 여성의 행위자율은 맞벌이 여부와 관련 없이

거의 모든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반면 남성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가 10% 정도 높았으며 행위자 평균시간에 있어서는 남성은 맞벌이 여부와 관련 없이 행위자 평균시간이 비슷한 반면 여성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비맞벌이 가정의 경우가 맞벌이 가정 보다 2배 정도 길었다.

<표 4-20> 맞벌이 여부, 미취학자녀 유무 별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평일)

구분		평일																	
		유미취학자녀									무미취학자녀								
		가족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가족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맞벌이 가구	가사노동	1:25	0:39	2:15	79.9	63.4	98.1	1:47	1:02	2:18	0:17	0:07	0:28	37.5	18.3	42.8	0:46	0:36	0:49
	가정관리	0:07	0:05	0:09	16.8	12.5	21.4	0:39	0:37	0:40	0:04	0:03	0:06	12.3	8.4	16.3	0:34	0:30	0:36
	가족보살피기	1:19	0:35	2:07	77.8	60.3	97.1	1:41	0:58	2:11	0:13	0:04	0:22	30.8	11.4	50.6	0:42	0:36	0:43
비맞 벌이 가구	가사노동	2:31	0:35	4:36	75.4	53.1	99.7	3:20	1:07	4:37	0:39	0:10	1:02	47.5	18.7	71.4	1:21	0:55	1:27
	가정관리	0:10	0:05	0:15	22.9	11.4	35.5	0:43	0:45	0:43	0:08	0:06	0:10	17.0	11.2	21.8	0:49	0:50	0:48
	가족보살피기	2:21	0:30	4:21	74.2	50.8	99.7	3:10	1:00	4:22	0:30	0:05	0:52	39.8	10.1	64.5	1:16	0:47	1:20

일요일을 보면 <표 4-21>에서와 같이 미취학자녀 유무와 관련 없이 맞벌이 가정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증가가 비맞벌이 가정보다 길어서 맞벌이 여부에 따른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격차가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평일에 비해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는 미취학자녀를 가진 맞벌이 부부, 미취학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정, 미취학자녀가 없는 비맞벌이 가정,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모든 집단에서 여성 보다는 남성의 일요일 가사노동시간의 증가가 더 컸는데, 일요일 남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의 남성은 1시간 44분,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가정의 남성은 1시간 41분, 미취학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정은 34분, 미취학자녀가 없는 비맞벌이 가정은 31분으로 평일에 비해 각각 1시간 5분, 1시간 6분, 27분, 21분 증가하였고 특히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맞벌이 여부와 관련 없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대폭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일요일 여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의 여성은 3시간 3분,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가정의 여성은 3시간 32분, 미취학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정은 49분으로 평일에 비해 각각 48분 증가, 1시간 4분 감소, 21분 증가하였고 미취학자녀가 없는 비맞벌이 가정은 1시간 2분으로 평일과 같은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여성에 있어서 미취학자녀 유무와 관련 없이 일요일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데 반해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가정 여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은 일요일에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일요일에 남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은 모든 집단에서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의 증가에 의한 것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는 요일 간의 변화에 집단에 따라 복잡한 양상은 보이고 있다. 즉,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 여성

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증가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정은 행위자 평균시간의 증가에, 미취학자녀가 없는 가정은 행위자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의 증가에 의한 것이고, 비맞벌이 가정의 경우에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한 것은 여성의 행위자 평균시간이 감소했기 때문이고 미취학자녀가 없는 여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이 요일 간에 변화가 없는 것은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에 있어 변화가 없는 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비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에 변화가 없는 것은 남성은 행위자율과 평균시간에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행위자 평균시간이 대폭 감소한 데 기인한다고 하겠다.

일요일의 가정관리의 가족공유 시간을 통해 보면 맞벌이 여부 및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집단 간에 차이가 없이 전체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에 있어 평일보다 증가했으며 성별로 볼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 모두 전체 평균시간, 행위자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에서 증가하였다. 가사노동 중 가정관리의 비중이 미취학자녀가 없는 가정의 경우에 크기 때문에 일요일의 가족공유 가정관리시간이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미취학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일요일의 가족보살피기 가족공유 시간은 맞벌이 여부와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데,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에 있어서만 일요일에 평균시간이 증가하였고 미취학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정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비맞벌이 가정은 미취학자녀 유무와 관련 없이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맞벌이 여부 및 미취학자녀유무에 따른 네 집단에서 일요일의 가족보살피기가 모두 증가한 반면 여성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에서만 증가하고 나머지 세 가정에서는 감소하였으며 특히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의 여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은 2시간 54분으로 평일보다 1시간 27분이나 감소하였다. 남성의 일요일 가족보살피기시간의 증가는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의 증가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는 데 여성은 집단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의 여성의 일요일 가족보살피기시간의 증가는 행위자 평균시간의 증가에 의한 것인 데 반해 미취학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정에 있어 여성의 가족보살피기시간이 일요일에 조금 감소한 것은 여성의 행위자비율은 감소한 데 반해 행위자 평균시간은 증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 여성의 가족보살피기의 일요일 감소는 행위자 비율에는 차이가 없으나 행위자 평균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기인한 것이며 미취학자녀가 없는 비맞벌이 가정에서의 감소는 행위자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이 모두 감소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은 맞벌이 여부보다 미취학자녀 유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정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볼 때 물론 비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보다 2배 정도 길지만 맞벌이 여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도 상당히 길어 이들이 가정과 일을 양립함에 있어 자녀 양육에서 오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맞벌이 여성과 비맞벌이 여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하면 행위자비율에서

는 차이가 없이 거의 모든 여성이 참여하고 있으나 행위자 평균시간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맞벌이 여성이 자녀양육에 참여하면서 취업으로 인한 시간의 부담을 자녀 양육 시간량을 감소함으로써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은 맞벌이 여부에 따른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행위자 비율에 있어 차이를 보여 맞벌이 가정의 남성이 비맞벌이 가정의 남성보다 10% 정도 참여율이 높았다. 행위자의 평균시간에서는 맞벌이 여부에 따라 남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차이가 없었다.

가족공유 가정관리시간은 미취학자녀 유무보다는 맞벌이 여부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비맞벌이 가정의 가정관리 시간이 맞벌이 가정보다 길었고 여성의 가정관리시간이 남성보다 길었다. 가족보살피기는 미취학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 그리고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미취학자녀 유무의 영향이 맞벌이 여부보다 더 컸고 남녀 간의 차이도 가정관리시간에 있어서의 남녀 간의 차이보다 더 커서 여성의 가족보살피기시간이 남성보다 상당 수준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맞벌이 여부, 미취학자녀 유무 별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일요일)

구분		일요일																	
		유미취학자녀									무미취학자녀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	남	여	전	남	여	전	남	여	전	남	여	전	남	여	전	남	여
맞벌이 가구	가사노동	2:21	1:44	3:03	89.4	80.9	99.0	2:38	2:08	3:05	0:41	0:34	0:49	53.6	46.1	61.4	1:17	1:14	1:20
	가정관리	0:31	0:24	0:40	48.4	40.8	56.9	1:05	0:58	1:10	0:27	0:24	0:31	40.3	36.5	44.2	1:09	1:06	1:11
	가족보살피기	1:50	1:20	2:24	85.5	74.6	97.9	2:09	1:47	2:27	0:14	0:10	0:18	26.1	17.7	34.9	0:52	0:55	0:51
비맞 벌이 가구	가사노동	2:33	1:41	3:32	90.8	84.6	97.8	2:49	1:59	3:37	0:48	0:31	1:02	56.0	40.3	68.9	1:26	1:17	1:30
	가정관리	0:32	0:26	0:38	51.2	44.5	58.6	1:01	0:57	1:05	0:25	0:18	0:30	38.2	31.1	43.9	1:05	0:58	1:09
	가족보살피기	2:02	1:15	2:54	85.9	76.1	96.9	2:22	1:39	2:59	0:23	0:13	0:32	33.5	19.2	45.2	1:09	1:07	1:10

일요일은 평일보다 가족공유 가사노동 시간이 길었는데 맞벌이 가정이 비맞벌이 가정보다, 또한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보다 더 증가했다. 미취학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와 관련 없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증가했는데 특히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일요일 가사노동시간이 대폭 증가했으며 맞벌이 가정의 여성의 경우 미취학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했다. 한편 비맞벌이 여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은 일요일에 감소했는데 이는 행위자 비율에 있어서는 요일 간에 변화가 없었으나 행위자 평균시간이 많이 줄어든 데 기인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남성은 일요일에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공유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고 여성은 맞벌이하는 경우에만 미취학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함을 알 수 있다.

2)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 여부별 집단 간 특성의 차이

여기서는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 여부의 집단 간 차이를 보기위해 X^2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평일의 경우를 <표 4-22>에서 살펴보면, 남정보다 여성이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p<.001$). 가사노동 가족공유 여부는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연령이 가장 낮은 20대가 가사노동을 가족과 함께 하는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그 비율이 낮아져 50대가 가장 낮았다($p<.001$).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가사노동 가족공유 여부에 차이가 있어 대졸의 가사노동 가족공유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고 고졸, 대학원졸, 중졸의 순으로 낮아졌다($p<.001$).

가족공유 가사노동 유무에 따른 집단 간 경제적인 특성을 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며, 직업이 없고 그래서 개인의 소득이 없으며 주휴제도와는 상관이 없는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대체로 전업주부 집단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사무직, 서비스·판매직이, 또 노동시간에 있어서는 노동시간이 적은 집단일수록 가사노동의 가족 공유 비율이 높았다. 개인 월평균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이 적은 집단일수록 가사노동을 가족이 공유하는 집단의 비율이 높았고 주휴제도에 있어서는 토요일 격주 휴무나 주5일제로 근무하는 집단의 가사노동의 가족 공유 비율이 높았다.

사별이나 이혼집단의 41.8%, 유배우자 집단의 52.9%가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 미취학자녀가 있는 집단의 79.3%, 미취학자녀가 없는 집단의 43.8%가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미취학자녀를 가지고 있는 집단의 가사노동 공유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p<.001$). 그리고 맞벌이 가정은 47.0%, 비맞벌이 가정은 57.2%가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비맞벌이 가정이 맞벌이 가정에 비해 더 많이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었다($p<.001$).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가지는 집단은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보다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졌으며($p<.001$) 시간부족감이 낮고($p<0.05$) 생활시간만족도는 높았다($p<.001$). 업무 피곤함의 정도는 가사노동 가족공유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평일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갖는 집단의 특성은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연령이 젊고, 전문대나 대졸의 학력을 갖고 있고 여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개인소득이 없으며, 배우자가 있고 미취학 자녀가 있으며 맞벌이를 하지 않으며, 직업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성역할태도에 있어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생활시간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 월소득이 적고 주2일 휴무제를 갖는 사람들이다. 반면,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갖지 못하는 집단은 남성이고 연령이 높으며 학력이 중졸이하이며, 경제

<표 4-22>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평균)

단위:연속변수:평균(표준편차), 빈도(%)

변수	구분			전체	X ² t
		공유	비공유		
성별	남성	1,529(30.3)	3,521(69.7)	5,050(100)	1838.752***
	여성	4,179(71.4)	1,673(28.6)	5,852(100)	
연령	20-29세	384(75.4)	125(24.6)	509(100)	1124.285***
	30-39세	2,355(72.4)	900(27.6)	3,255(100)	
	40-49세	2,104(47.5)	2,327(52.5)	4,431(100)	
	50-59세	865(32.0)	1,842(68.0)	2,707(100)	
교육수준	중졸	695(38.8)	1,094(61.2)	1,789(100)	174.709***
	고졸	2,876(54.3)	2,425(45.7)	5,301(100)	
	전문대 및 대졸	1,974(57.1)	1,485(42.9)	3,459(100)	
	대학원졸	163(46.2)	190(53.8)	353(100)	
경제활동여부	합	3,438(42.9)	4,569(57.1)	8,007(100)	1072.630***
	하지 않음	2,270(78.4)	625(21.6)	2,895(100)	
직업	관리자·전문가	797(46.8)	906(53.2)	1,703(100)	1154.804***
	사무직	625(46.7)	714(53.3)	1,339(100)	
	서비스·판매직	953(47.2)	1,067(52.8)	2,020(100)	
	농림·기능원·장치·단순노무직	1,056(36.0)	1,874(64.0)	2,930(100)	
	해당 없음	2,277(78.2)	633(21.8)	2,910(100)	
노동시간	없음	2270(78.5)	623(21.5)	2893(100)	1262.238***
	하	1347(52.5)	1220(47.5)	2567(100)	
	중	1298(42.6)	1750(57.4)	3048(100)	
	상	793(33.1)	1601(66.9)	2394(100)	
개인 월평균소득	없음	2,207(79.6)	565(20.4)	2,772(100)	1367.954***
	100만원 미만	1062(57.6)	782(42.4)	1,844(100)	
	100~200만원 미만	1,196(44.2)	1,511(55.8)	2,707(100)	
	200~300만원 미만	689(36.2)	1,214(63.8)	1,903(100)	
	300만원 이상	554(33.1)	1,122(66.9)	1,676(100)	
주휴제도	일주일에 하루	995(39.9)	1,500(60.1)	2,495(100)	1098.856***
	토요 격주, 주2일	1,492(46.0)	1,750(54.0)	3,242(100)	
	기타(매2주 하루, 수시, 기타)	951(41.9)	1,321(58.1)	2,272(100)	
	해당 없음	2,270(78.5)	623(21.5)	2,893(100)	
배우자유무	있음	5,481(52.9)	4,878(47.1)	10,359(100)	25.511***
	없음(사별, 이혼)	227(41.8)	316(58.2)	543(100)	
미취학자녀유무	있음	2,089(79.3)	546(20.7)	2,635(100)	1009.639***
	없음	3,619(43.8)	4,648(56.2)	8,267(100)	
맞벌이여부	맞벌이	2443(47.0)	2,752(53.0)	5195(100)	113.081***
	비맞벌이	3265(57.2)	2442(42.8)	5707(100)	
성역할 태도	연속변수	2.7(0.7)	2.5(0.0)	14.8(0.4)	-12.107***
시간부족감 정도	연속변수	3.1(0.8)	3.1(0.8)	3.1(0.8)	2.166*
업무 피곤함 정도	연속변수	3.3(0.7)	3.3(0.7)	3.3(0.7)	0.925
생활시간만족도	연속변수	3.2(0.8)	3.1(0.8)	3.2(0.8)	-4.154***

활동을 하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이나 단순노무직을 갖고 개인 월소득이 높을 수록,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며 노동시간이 긴 사람들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미취학자녀도 없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보다 보수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생활시간 만족도가 낮았다.

일요일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면 다음 <표 4-23>과 같다.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가사노동을 하는 집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p<.001), 연령은 20, 30대가 많아서 연령이 낮을수록(p<.001), 그리고 교육수준이 대졸인 집단이(p<.001)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갖는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73.8%, 하는 집단의 56.8%가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 직업이 없거나, 사무직인 경우(p<.001), 그리고 개인 월평균 소득이 없는 집단일수록(p<.001),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주휴제도와 상관없는 집단과 일주일에 2일을 쉬는 집단이(p<.001) 가족공유 가사노동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가지는 집단은 노동시간이 짧고(p<.001), 배우자가 있으며, 미취학자녀가 있고, 비맞벌이 가정이며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부족감이나 업무의 피곤함, 그리고 생활시간만족도는 가사노동 가족공유여부에 따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4-23>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일요일)

단위:연속변수:평균(표준편차),
빈도(%)

변수	구분			전체	X ² t
		공유	비공유		
성별	남성	891(51.4)	842(48.6)	1,733(100)	130.542***
	여성	1,380(69.7)	599(30.3)	1,979(100)	
연령	20-29세	169(87.6)	24(12.4)	193(100)	487.534***
	30-39세	924(81.4)	211(18.6)	1,135(100)	
	40-49세	831(57.3)	620(42.7)	1,451(100)	
	50-59세	347(37.2)	586(62.8)	933(100)	
교육수준	중졸	254(43.1)	335(56.9)	589(100)	156.591***
	고졸	1,080(59.0)	751(41.0)	1,831(100)	
	전문대 및 대졸	860(73.1)	316(26.9)	1,176(100)	
	대학원졸	77(66.4)	39(33.6)	116(100)	
경제활동여부	함	1,571(56.8)	1,193(43.2)	2,764(100)	85.913***
	하지 않음	700(73.8)	248(26.2)	948(100)	
직업	관리자·전문가	384(64.9)	208(35.1)	592(100)	198.958***
	사무직	331(74.2)	115(25.8)	446(100)	
	서비스·판매직	356(49.1)	369(50.9)	725(100)	
	농림·기능원·장치·단순노무직	499(49.9)	502(50.1)	1,001(100)	
	해당 없음	701(73.9)	247(26.1)	948(100)	

노동시간	없음	700(73.9)	247(26.1)	947(100)	128.703***
	하	537(62.5)	322(37.5)	859(100)	
	중	632(59.2)	436(40.8)	1068(100)	
	상	402(48.0)	436(52.0)	838(100)	
개인 월평균소득	없음	679(75.4)	222(24.6)	901(100)	105.416***
	100만원 미만	354(56.5)	272(43.5)	626(100)	
	100~200만원 미만	516(54.2)	436(45.8)	952(100)	
	200~300만원 미만	390(59.4)	267(40.6)	657(100)	
	300만원 이상	332(57.6)	244(42.4)	576(100)	
주휴제도	일주일에 하루	490(57.7)	359(42.3)	849(100)	189.667***
	토요 격주, 주2일	741(65.9)	384(34.1)	1,125(100)	
	기타(매2주 하루, 수시, 기타)	340(43.0)	451(57.0)	791(100)	
	해당 없음	700(73.9)	247(26.1)	947(100)	
배우자유무	있음	2,204(62.1)	1,345(37.9)	3,549(100)	28.931***
	없음(사별, 이혼)	67(41.1)	96(58.9)	163(100)	
미취학자녀 유무	있음	779(90.8)	79(9.2)	858(100)	412.030***
	없음	1,492(52.3)	1,362(47.7)	2,854(100)	
맞벌이여부	맞벌이	1050(57.4)	780(42.6)	1,830(100)	21.979***
	비맞벌이	1221(64.9)	661(35.1)	1882(100)	
성역할 태도	연속변수	2.6(0.7)	2.6(0.7)	2.6(0.7)	-3.115**
시간부족감 정도	연속변수	3.1(0.8)	3.0(0.9)	3.1(0.9)	-1.569
업무 피곤함 정도	연속변수	3.3(0.7)	3.3(0.7)	3.3(0.7)	1.050
생활시간만족도	연속변수	3.2(0.8)	3.1(0.8)	3.2(0.8)	-1.094

이상을 종합해서 일요일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가지는 집단의 특성을 보면 평일 가족공유 가사노동 가지는 집단과 별 차이가 없고 다만 직업에 있어서 사무직이 많다는 것과 개인 월 소득의 크기에 따른 차이가 없어지는 특성을 보였으며 생활시간만족도에서의 차이도 없어졌다. 요일에 따라 개인 월소득의 특성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소득이 높은 집단은 평일에는 업무에의 부담으로 인해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갖지 못하지만 일요일에는 휴무이므로 가족을 위해 가사노동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가사노동 가족공유 여부를 결정하는 영향요인

앞에서 가사노동의 가족공유 여부별 집단 간 특성의 차이를 보았는데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 본 특성 중 가사노동 가족공유 여부를 결정짓는 변수를 선정하여 그들의 영향요인을 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표 4-24>에서 보듯이 평일의 경우 성별, 연령, 교육수준, 노동시간, 개인월평균소득, 미취학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 성역할태도가 가사노동 가족공유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유무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

<표 4-24> 가사노동 가족공유 여부의 결정요인

변인		가사노동 전체		일요일	
		평일		B	S.E.
		B	S.E.		
상수항		-.218	.197	1.594 ***	.362
성별	여성	1.537 ***	.064	.820 ***	.105
연령 (기준:20-29세)	30-39세	.368 **	.132	-.410	.249
	40-49세	-.066	.134	-.911 ***	.245
	50-59세	-.782 ***	.141	-1.642 ***	.253
교육수준 (기준:고졸)	중졸	-.354 ***	.070	-.075	.114
	전문대 및 대졸	.153 **	.058	.394 ***	.096
	대학원이상	.153	.141	.411	.232
노동시간 (기준:중)	없음	1.088 ***	.106	.363 *	.177
	하	.258 ***	.065	.132	.107
	상	-.324 ***	.066	-.385 ***	.105
개인 월평균소득 (기준:100~200만원 미만)	없음	.311 **	.101	.261	.173
	100만원 미만	.189 *	.076	.163	.126
	200~300만원 미만	-.183 *	.075	.241 *	.122
	300만원 이상	-.184 *	.082	.362 **	.131
배우자유무 (기준:없음)	있음	.107	.106	.380 *	.184
미취학자녀 유무	없음	-1.628 ***	.075	-1.662 ***	.144
맞벌이 여부	맞벌이	.241 ***	.061	.067	.100
성역할태도	연속변수	.150 ***	.036	.021	.059
N		10902		3712	
-2 log likelihood		10968.995		4048.001	
Chi-Square		4120.143***		909.959***	
Degree of freedom		18		18	

족공유를 하며, 연령은 20대보다는 30대가 가족공유를 하는데 반해 50대는 가족공유를 하지 않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교육수준은 고졸에 비해 중졸이하가 가족공유를 하지 않으며 전문대 및 대졸은 가족공유를 더 많이 하였다. 노동시간은 중간 정도인 집단에 비해 노동시간이 없는 집단과 낮은 집단이 가족공유를 하는데 비해 '상'에 속하는 집단은 가족공유를 하지 않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개인 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이 가족공유를 하였고 200~300만원 미만인 집단과 300만원 이상인 집단은 가족공유를 하지 않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집단과 맞벌이 가족이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많이 하였으며,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수록 가족공유를 많이 하였다.

일요일을 보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 노동시간, 개인 월평균소득, 배우자유무, 미취학자녀 존재여부가 가사노동 가족공유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여부와 성역할태도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과 비교하면 일요일의 가족공유 여부에 배우자유무가 영향요인에 포함되고 맞벌이 여부와 성역할태도의 영향이 없어지는 차이를 보였다. 영향을 보다 자세히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족공유를 하며, 20대에 비해 30대는 가족공유 여부에 차이가 없으나 40대와 50대는 가족공유를 하지 않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에 비해 전문대 및 대졸이 가족공유를 더 많이 하였다. 노동시간은 중간 정도인 집단에 비해 노동시간이 없는 집단은 가족공유를 하는 집단에, '상'인 집단은 가족공유를 하지 않는 집단에 각각 속할 확률이 높았다. 개인 소득은 100~200만원인 집단에 비해 200~300만원 미만의 집단과 300만원 이상인 집단이 가족공유를 많이 하였으며 배우자가 있는 집단과 미취학자녀가 있는 집단이 가족공유를 많이 하였다.

3. 가족공유 여가

1) 여가시간의 실태

(1) 여가의 평균시간

가족 여가 실태를 혼자, 가족과 함께, 기타로 나누어 평균시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4-25>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일 평균 여가시간은 3시간 44분이며 이를 성별에 따라 보면 남자 3시간 32분, 여자 3시간 55분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3분 길다. 이를 혼자, 가족과 함께, 기타로 나누어 보면 혼자 하는 경우가 2시간 5분이고 가족이 공유하는 경우가 52분, 기타가 47분으로 혼자 하는 경우가 가족과 공유하는 경우보다 2배 이상 길었다. 남자는 혼자 하는 경우가 2시간 2분,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46분, 여자는 혼자 하는 경우가 2시간 6분,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58분으로

<표 4-25> 여가의 평균시간(평일)

(단위 : 시간:분)

	평 일											
	전 체			혼 자			가족			기타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활동	3:44	3:32	3:55	2:05	2:02	2:06	0:52	0:46	0:58	0:47	0:43	0:51
교제활동	0:39	0:34	0:44	0:01	0:02	0:01	0:12	0:09	0:15	0:26	0:24	0:28
일반인의학습	0:08	0:06	0:11	0:05	0:05	0:06	0:00	0:00	0:00	0:03	0:01	0:04
미디어이용	1:50	1:45	1:55	1:15	1:12	1:18	0:34	0:32	0:36	0:01	0:01	0:01
종교활동	0:08	0:03	0:12	0:04	0:01	0:06	0:00	0:00	0:01	0:04	0:01	0:06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01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0:25	0:24	0:26	0:14	0:16	0:13	0:04	0:03	0:05	0:07	0:05	0:08
취미및그 외여가활동	0:31	0:39	0:24	0:24	0:27	0:22	0:01	0:01	0:01	0:06	0:11	0:02
교제및여가활동물품구입	0:01	0:00	0:02	0:01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1
기타여가관련행동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로 남녀 모두 혼자 하는 여가활동을 하는 시간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보다 2배 이상 길다.

<표 4-26>은 일요일의 평균 여가시간으로 5시간 35분으로 평일보다 1시간 51분 길다. 남녀별로 보면 남자는 6시간 21분으로 평일보다 2배 가까이 긴 반면 여자는 4시간 52분으로 평일보다 1시간 못되게 긴 수준이다. 일요일에 혼자 여가를 하는 경우는 평균 2시간 24분으로 평일보다 19분 길며,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는 2시간 8분으로 평일보다 1시간 16분 길고, 기타 사람과 여가를 공유하는 시간은 1시간 3분으로 평일보다 16분 증가하여 혼자나 기타 사람과 보다 가족이 공유하는 시간의 증가가 더 컸다. 남녀별로 보면 남자 혼자 하는 경우가 2시간 59분으로 평일보다 57분 길며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는 2시간 15분으로 평일보다 1시간 18분이 길어 혼자 보다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의 일요일 증가가 더 컸다. 여자는 혼자 하는 경우가 1시간 51분으로 평일보다 15분 감소하였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는 2시간 4분으로 평일보다 1시간 16분 증가하였다. 따라서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는 남녀 모두 가족과의 공유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자의 경우는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는 혼자 하는 여가 시간이 오히려 줄고 있어 여자들이 일요일에 가족과 여가를 공유 하려는 성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4-26> 여가의 평균시간(일요일)

(단위 : 시간:분)

	일요일											
	전체			혼자			가족			기타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활동	5:35	6:21	4:52	2:24	2:59	1:51	2:08	2:12	2:04	1:03	1:09	0:57
교제활동	0:48	0:51	0:44	0:01	0:02	0:01	0:25	0:26	0:24	0:21	0:23	0:20
일반인의학습	0:04	0:05	0:02	0:03	0:05	0:02	0:00	0:00	0:00	0:00	0:00	0:00
미디어이용	2:50	3:13	2:28	1:30	1:50	1:10	1:19	1:21	1:18	0:01	0:01	0:01
종교활동	0:30	0:23	0:37	0:05	0:02	0:07	0:03	0:03	0:03	0:23	0:18	0:27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03	0:02	0:03	0:00	0:00	0:00	0:02	0:02	0:02	0:01	0:00	0:01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0:41	0:54	0:29	0:14	0:21	0:08	0:15	0:16	0:14	0:12	0:17	0:07
취미및그 외여가활동	0:37	0:49	0:26	0:29	0:37	0:22	0:03	0:03	0:02	0:05	0:09	0:02
교제및여가활동물품구입	0:01	0:01	0:02	0:01	0:00	0:01	0:01	0:01	0:01	0:00	0:00	0:00
기타여가관련행동	0:01	0:02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여가활동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여가활동은 미디어 이용으로 평일 1시간 50분이고 일요일에는 2시간 50분으로 평일에 비하여 1시간 증가하고 있다. 평일 미디어 이용의 혼자 하는 시간은 1시간 12분,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은 34분, 기타 사람과 하는 시간은 47분으로 나타나 평일에는 혼자 미디어 이용을 하는 비율이 가족이나 기타 사람과 공유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을 남녀별로 보면 남자 혼자 하는 경우가 평일 1시간 12분 일요일은 1시간 50분 평일보다 38분 길며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는 평일은 32분 일요일은 1

시간 21분으로 평일보다 48분이 길며, 기타사람과 함께 하는 경우는 평일과 일요일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보다 가족과 공유하는 미디어 이용 시간의 일요일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디어 이용의 경우는 평일과 일요일 모두 가족 이외의 기타 사람과는 거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자는 혼자 하는 경우는 평일 1시간 18분 일요일 1시간 21분으로 평일보다 3분 증가 하였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는 평일 36분, 일요일 1시간 18분으로 평일보다 42분 증가하여 남자와 마찬가지로 혼자 보다 가족과 공유하는 미디어 이용 시간의 일요일 증가가 더 컸다. 기타 사람과의 미디어 공유는 여자의 경우도 남자와 같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디어 이용 다음으로 교제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스포츠 및 집 밖의 여가활동의 여가시간이 높은 활동인데 모두 평일에 비하여 일요일에 활동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교제 활동은 이 활동의 성격 때문에 평일이나 일요일 모두 가족과 함께든지 기타사람과 함께 하고 있었고,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은 평일과 휴일 모두 혼자 하는 시간이 가족이나 기타 사람과 공유하는 시간보다 길게 나타났다.

스포츠 및 집 밖의 여가활동의 경우는 평일에는 혼자 하는 시간이 길고 일요일에는 혼자 하거나 가족과 함께 혹은 기타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량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타사람과 함께 하는 활동이 가장 긴 경우는 일요일의 종교활동으로 23분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볼 때 함께 한 사람에 관계없이 평일은 여자의 여가가 남자에 비해 약간 더 많은데 반해 일요일은 남녀의 차이가 커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또한 남녀 모두 요일에 상관없이 가족과의 여가보다는 혼자 즐기는 여가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특히 평일 가족여가 필요성이 제기된다. 게다가 대부분의 여가활동이 미디어 이용에 치중되어 있어 가족여가를 위한 프로그램, 시설 등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여가를 혼자, 가족과 함께, 기타로 나누어 보았는데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를 공유대상으로 나누어 보다 자세히 보고자 한다.

(2) 가족공유 여가

① 가족공유 여가시간

<표 4-27>에 의하면 평일의 가족공유 여가시간 혼자 하는 경우가 2시간 5분인데 반해, 가족이 공유하는 경우가 52분으로 혼자 하는 시간의 반보다 약간 적게 나타났다. 가족공유 중 배우자와 공유하는 시간이 36분, 미취학자녀가 5분, 그 외 가족 친척이 22분으로 배우자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가장 길었다. 이는 주중에 배우자와의 공유여가시간이 1시간 18분으로 나타난 이기영 외 2인(1996)의 연구결과나

Gatenby(2001)의 4시간 38분으로 나타난 영국 부부의 주중 여가공유시간, 주중의 프랑스 부부의 8시간 넘는 부부공유 시간(Barnet-Verzat et.al.) 에 비하여 훨씬 짧은 것이다.

세부적 여가활동에 대한 가족공유시간을 보면 미디어 이용이 34분으로 가장 길고 다음이 교제 활동으로 12분,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4분,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이 1분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다른 여가활동은 가족공유시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평일의 가족과의 공유여가 시간의 대부분이 미디어이용과 교제활동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TV 시청이 공유 여가시간 중에 가장 길게 나타난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이기영 외 2인, 1996; Kingston& Knock, 1987; Gatenby, 2001). 가족공유형태별로 보면 미디어 이용의 경우는 배우자와 공유한 시간이 24분, 미취학자녀와는 3분, 그 외 가족 및 친척은 12분으로 배우자와 공유한 시간이 가장 길고 미취학자녀와 공유한 시간이 가장 짧다. 교제활동의 가족형태별 공유시간은 배우자가 6분, 미취학자녀가 1분, 그 외 가족이 8분으로 그 외 가족 및 친척, 배우자 미취학자녀의 순이었다.

<표 4-27> 가족공유 여가시간(평일)

(단위 : 시간:분)

	평 일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			그 외 가족·친척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활동	0:52	0:46	0:58	0:36	0:37	0:35	0:05	0:03	0:06	0:22	0:16	0:27
교제활동	0:12	0:09	0:15	0:06	0:07	0:06	0:01	0:00	0:01	0:08	0:04	0:11
일반인의학습	0:00	0:00	0:00	0:0	0:0	0:0	0:00	0:00	0:00	0:00	0:00	0:00
미디어이용	0:34	0:32	0:36	0:24	0:25	0:23	0:03	0:02	0:04	0:12	0:10	0:14
종교활동	0:00	0:00	0:01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0:04	0:03	0:05	0:03	0:03	0:04	0:01	0:00	0:01	0:01	0:01	0:02
취미및그 외여가활동	0:01	0:01	0:01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교제및여가활동물품구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여가관련행동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일요일의 가족공유시간을 보면 혼자 2시간 24분으로 평일보다 19분 많은 반면 가족공유는 2시간 8분으로 평일보다 1시간 16분 많아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혼자보다는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의 증가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국내외 선행연구(이기영 외 2인, 1996; 이승미·이기영, 1998; Kingston& Knock, 1987; Gatenby, 2001)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공유형태별로 평일과 비교해보면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15분,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1시간 13분으로 평일보다 각각 10분, 51분이 늘어난 데 반해 배우자와의 공유는 1시간 38분으로 평일보다 1시간 2분이 늘어나 일요일에 증가한 가족공유 여가시간의 대부분이 배우자와 그 외 가족과의 공유시간 증가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요일에 배우자

와의 공유여가시간이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의 배우자공유 여가 시간이 5시간 32분으로 나타난 이기영 외 2인(1996)의 연구나, 영국 부부의 주말 배우자 공유여가시간이 6시간 13분으로 나타난 Gatenby(2010)의 연구나, 주말의 프랑스 부부의 11시간 넘는 부부공유 시간(Barnet-Verzat et.al.)에 비하여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의 가족공유 여가시간을 세부적 여가활동에 대한 가족공유시간을 보면(<표 4-28>) 미디어 이용은 1시간 19분으로 평일보다 45분이, 교제활동은 25분으로 13분이,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15분으로 11분이 증가하였다. 평일에 비하여 가장 증가한 가족공유 여가시간은 미디어 이용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종교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도 모두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가족 공유 여가시간이 증가하였다. 여가활동 세부영역별로 공유시간을 보면 미디어이용의 경우, 가족공유형태별로 보면 배우자가 54분으로 평일보다 30분이나 증가하고 그 외 가족은 39분으로 27분이 증가했으며 미취학자녀는 9분으로 6분이 증가해서 미디어 이용에 대한 가족공유형태 중 배우자와 그 외 가족과의 공유시간의 증가가 가장 컸다. 교제활동의 경우는 배우자와의 공유시간이 9분, 그 외 가족과의 공유시간이 12분 증가하여 그 외 가족과의 공유시간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반해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시간은 평일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의 경우, 가족공유형태별로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10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2분,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5분 증가하여 배우자와의 공유시간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가족공유 여가시간(일요일)

(단위 : 시간:분)

	일 요 일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			그 외 가족·친척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활동	2:08	2:12	2:04	1:38	1:44	1:33	0:15	0:16	0:15	1:13	1:13	1:12
교제활동	0:25	0:26	0:24	0:15	0:16	0:15	0:01	0:02	0:01	0:20	0:21	0:20
일반인의학습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미디어이용	1:19	1:21	1:18	0:54	0:57	0:51	0:09	0:10	0:09	0:39	0:39	0:39
종교활동	0:03	0:03	0:03	0:11	0:11	0:11	0:02	0:01	0:02	0:04	0:03	0:05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02	0:02	0:02	0:02	0:02	0:02	0:00	0:00	0:00	0:01	0:01	0:01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0:15	0:16	0:14	0:13	0:14	0:13	0:03	0:03	0:02	0:06	0:07	0:06
취미및그 외여가활동	0:03	0:03	0:02	0:02	0:02	0:02	0:00	0:00	0:00	0:02	0:03	0:02
교제및여가활동물품구입	0:01	0:01	0:01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여가관련행동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종교활동의 경우 평일에는 배우자나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시간이 전혀 없었으나 일요일에는 11분과 2분으로 나타나 일요일만 배우자나 미취학자녀와 함께 종교활동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가족과의 종교활동 공유는 평일과 같은 시간으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의 경우는 미미하지만 배우자

와 그 외 가족과의 공유시간이 평일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가족공유 중 배우자와의 공유와 그 외 가족 및 친척에 비해 미취학자녀와의 여가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으며 자녀의 정서적,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리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모든 여가활동에서 미디어 이용, 교제활동,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을 제외하고는 다른 영역에서의 여가활동이 거의 없나 5분 미만으로 나타나 여가활동의 균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② 가족공유 여가의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시간

평일 여가의 가족공유 행위자율을 보면(<표 4-29>) 응답자의 68.5%가 어떤 가족공유형태이든지 상관없이 가족과 여가시간을 공유하였으며 이들의 평균시간을 보면 1시간 16분이다. 그 중 남자는 63.5%에 1시간 13분, 여자는 73.1%에 1시간 19분을 가족과 공유함으로써 여자가 남자보다 가족과 공유하는 비율이 약 10% 정도 높았고 평균시간은 6분 길게 나타났다. 가족공유 중 배우자와의 공유는 51.6%에 1시간 9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7.2%에 1시간 1분,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37.2%에 59분으로 배우자와 공유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나 행위자 평균시간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평일의 배우자와의 여가공유 행위자 비율이 79.4%로 나타난 이기영 외 2인(1995)의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서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남자가 53.4%에 1시간 8분, 여자가 50%에 1시간 10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남자 5.7%에 1시간 1분, 여자 8.6%에 여자 1시간 9분,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남자 27.2%에 59분, 여자 46.5%에 59분으로 배우자와의 공유비율은 남자가 많으나 행위자 평균시간은 여자가 길고, 미취학자녀와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여자가 가족과 공유하는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이 남자보다 높았으나 수준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 가족과의 공유에서는 행위자 비율이 여자가 훨씬 높으나 행위자 평균 시간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유에 참여하는 비율은 남녀 간 다르지만 일단 공유를 하게 되면 참여시간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여가 중 미디어 이용의 가족공유 행위자율과 평균시간은 48.7%에 1시간 9분, 교제활동은 36.5%에 34분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거의 반이 미디어 활동을, 1/3을 넘는 수가 교제활동을 가족과 함께 하고 있었다.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은 5.8%에 1시간 11분으로 미디어 이용이나 교제활동보다는 행위자 비율이 많이 떨어지지만 다른 여가활동에 비하여 행위자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행위자 평균은 미디어 이용과 같은 수준이다. 이 세 여가 활동을 제외하고는 다른 여가활동의 가족 공유여가활동의 행위자 비율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 비율은 미미 하지만 행위자 평균 시간이 높은 여가 활동은 일반인 학습(0.1%에 1시간 41분),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5.8%에 1시간 31분), 관람 및 문화행사(0.4%에 1시간 35분), 종교활동(1%에 51분),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1.7%

에 48분)으로 나타났다. 남녀 차이를 보면 행위자 비율은 모든 여가활동에서 여자가 높고 행위자 평균시간의 경우도 일반인 학습과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자의 평균 공유 시간이 높았다.

세부적 여가활동에 대한 배우자와의 공유 행위자 비율이 높은 활동은 미디어 이용(36.6%), 교제(23.4%)활동이고, 이들의 평균시간을 보면 각 1시간 5분과 29분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의 배우자 공유 행위자 비율은 4.5%에 1시간 15분으로 미디어 이용이나 교제활동보다는 행위자 비율이 많이 떨어지지만 다른 여가활동에 비하여 행위자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행위자 평균은 미디어 이용과 같은 수준이다. 배우자공유 행위자 비율은 1% 내외로 낮으나 행위자 평균시간이 높은 여가활동은 일반인의 학습 1시간 52분,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1시간 32분,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1시간 15분, 종교활동이 1시간 11분으로 나타났다.

<표 4-29> 가족공유 여가의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평일)

(단위 : %, 시간:분)

	평 일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						그 외 가족·친척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활동	68.5	63.5	73.1	1:16	1:13	1:19	51.6	53.4	50.0	1:09	1:08	1:10	7.2	5.7	8.6	1:06	1:01	1:09	37.2	27.2	46.5	0:59	0:59	0:59
교제활동	36.5	30.7	42.2	0:34	0:31	0:36	22.2	23.4	21.1	0:29	0:28	0:29	1.6	1.4	1.9	0:37	0:32	0:40	22.7	13.3	31.4	0:34	0:33	0:35
일반인의학습	0.1	0.1	0.1	1:41	1:45	1:38	0.1	0.1	0.1	1:52	1:50	1:47	0.0	0.0	0.0	0:40	0:00	0:40	0.0	0.0	0.1	1:18	0:51	1:30
미디어이용	48.7	46.4	50.8	1:09	1:09	1:10	36.6	38.3	35.1	1:05	1:05	1:06	5.3	3.9	6.6	0:58	0:58	0:59	19.4	16.3	22.2	1:02	1:04	1:01
종교활동	1.0	0.9	1.0	0:51	0:49	0:52	1.2	1.2	1.2	1:11	1:02	1:20	0.3	0.2	0.3	1:16	1:34	1:07	0.4	0.3	0.6	0:58	0:52	1:00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4	0.3	0.4	1:35	1:33	1:36	0.3	0.3	0.3	1:32	1:33	1:30	0.1	0.1	0.1	1:41	1:47	1:36	0.2	0.1	0.2	1:28	1:15	1:35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5.8	4.7	6.8	1:11	1:09	1:13	4.5	4.4	4.6	1:15	1:12	1:17	0.9	0.5	1.3	0:59	0:57	0:59	1.5	0.8	2.2	1:12	1:13	1:11
취미및그 외여가활동	1.7	1.7	1.7	0:48	0:51	0:45	1.2	1.1	1.2	0:52	1:57	0:49	0.3	0.3	0.3	0:45	0:38	0:52	1.0	1.0	1.0	0:47	0:45	0:49
교제및여가활동물품구입	0.4	0.3	0.6	0:30	0:24	0:33	0.3	0.3	0.3	0:30	0:29	0:30	0.1	0.1	0.1	0:25	0:11	0:32	0.2	0.1	0.3	0:31	0:12	0:34
기타여가관련행동	0.2	0.2	0.2	0:24	0:23	0:24	0.2	0.2	0.2	0:28	0:26	0:30	0.0	0.0	0.1	0:17	0:00	0:17	0.1	0.0	0.1	0:17	0:20	0:15

미취학자녀와의 행위자 비율은 전반적으로 1% 내외(미디어 이용의 경우만 5.3%)로 낮으나 행위자 평균 공유시간이 비교적 많은 여가활동은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종교활동,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미디어 이용으로 나타났다. 이들 활동의 경우 자녀와의 공유 시간은 1시간을 넘거나 거의 1시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남녀 별 차이를 보면 행위자 평균시간이 종교활동과 관람 및 문화 행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자보다 여자가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가족과의 행위자 평균 비율이 높은 활동은 교제활동이 22.7%로 가장 높고 미디어 이용이 19.4%로 다음으로 높으며 나머지 활동은 1% 내외로 낮은 행위자 비율을 보이고 있다. 공유시간이 비교적 많은 여가활동은 일반인 학습,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미디어 이용, 종교활동 순서로 나타났으며 일반인 학습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자보다 여자가 그 외 가족과의 공유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가족과 공유하는 미디어 이용은 행위자 비율도 높고 행위자 평균 시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제활동은 행위자 비율은 가장 높으나 행위자 평균 시간은 34분으로 다른 활동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 외 가족과의 공유에서 남녀 간 행위자 평균 공유시간이 20분 이상 차이를 보이는 그 외 가족과의 공유여가 활동은 일반인 학습,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교제 및 여가활동 물품 구입으로 나타났다.

일요일 여가의 가족공유 행위자율을 보면(<표 4-30>) 응답자의 84.7%가 가족과 여가를 공유해 평일보다 16.2% 높았고 행위자 평균시간은 2시간 31분으로 평일보다 1시간 15분 많아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가족과 공유하는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일요일의 가족공유 행위자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남자는 84.1%에 2시간 37분, 여자는 85.3%에 2시간 25분로 평일에 비해 남자는 20.6%에 1시간 24분, 여자는 12.2%에 1시간 6분 증가해 남자의 행위자율과 평균시간의 증가가 높았다. 또한 남자가 행위자 비율은 여자보다 1.2% 낮으나 행위자 평균 시간은 12분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가에 가족공유로 참여하는 남녀 간 격차가 일요일에 다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가족공유형태별로 행위자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69.7%에 2시간 21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13.6%에 1시간 52분,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59.8%에 2시간 2분으로 나타났다 행위자 비율의 경우 평일에 비해 증가한 정도는 그 외 가족과 배우자와 공유하는 경우가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에 비해 두드러졌다. 그리고 배우자와 공유하는 경우가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가장 많았고, 배우자와의 공유에 비하여 미취학자녀와의 공유 행위자율은 56.1%, 그 외 가족과의 공유 행위자 비율은 약 10% 낮으나 행위자 평균 시간은 모두 2시간 내외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요일의 배우자와의 여가공유 행위자 비율이 96.6%로 나타난 이기영외 2인(1995)의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남자가 71.9%에 2시간 24분, 여자가 67.6%에 2시간 18분에,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남자 14%에 1시간 53분, 여자 13.3%에 1시간 52분이며,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남자 56.1%에 2시간 11분, 여자 63.4%에 1시간 53분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 모든 가족공유형태에서 가족의 여가공유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평일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공유와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의 경우는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길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 가족과의 공유의 경우는 행위자 비율은 여자가 높으나 평균시간은 남자가 길게 나타났다. 대체로 평일에는 여자가 행위자 비율이나 평균시간이 긴 것에 비해 일요일에는 남자가 가족과 공유하는 비율도 높고 평균시간이 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평일에 직장일 등으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여가를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가 중 일요일의 미디어 이용 행위자율과 평균시간은 69.6%에 1시간 54분, 교제활동은 43.4%에 57분으로, 종교활동은 3.7%에 1시간 23분으로 각각 평일보다 20.9%에 54분, 2.9%에 15분, 2.7%에 32분 증가해 미디어 이용의 일요일 행위자율과

평균시간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요일에 여가의 가족공유가 증가하는 것은 미디어 이용의 가족공유 참여 증가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가족공유형태별로 일요일의 미디어 이용의 행위자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가 53.2%에 1시간 42분, 미취학자녀가 9.9%에 1시간 33분, 그 외 가족이 38.8%에 1시간 39분으로 배우자와 함께 미디어 이용에 참여하는 비율과 평균시간이 가장 높았으며, 평일에 비한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 증가는 배우자의 경우가 16.6%에 37분, 미취학자녀의 경우가 4.6%에 35분, 그 외 가족의 경우가 19.4%에 37분으로 나타나 그 외 가족과의 공유에 참여하는 경우 행위자 비율의 증가는 가장 두드러졌지만 평균시간의 증가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공유형태별로 교제활동의 일요일의 행위자율과 평균시간 증가를 보면 배우자와 공유는 9.2%에 20분, 미취학자녀의 경우는 1.6%에 10분, 그 외 가족의 경우는 10.7%에 8분이 평일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행위자율 증가는 미취학자녀와의 공유가 가장 높고 평균시간 증가는 배우자와의 공유가 가장 높다. 가족공유형태별로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의 일요일의 행위자율 증가를 보면 배우자와 공유는 11.2%에 23분, 미취학자녀의 경우는 2.5%에 14분, 그 외 가족의 경우는 5.7%에 5분이 평일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와의 공유증가 비율과 평균시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공유형태별로 종교활동의 일요일의 행위자율 증가를 보면 배우자와 공유는 7%에 1시간 1분, 미취학자녀의 경우는 1.3%에 30분, 그 외 가족의 경우는 4%에 33분이 평일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활동 역시 배우자와의 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에도 행위자 비율은 미미 하지만 행위자 평균 시간이 높은 여가 활동은 일반인 학습(0.1%에 1시간 28분),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6.1%에 1시간 33분), 관람 및 문화행사(1.7%에 1시간 54분), 종교활동(3.7%에 1시간 23분),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5.5%에 50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활동 모두 평일에 비하여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차이를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행위자 비율이 높은 여가활동은 교제활동, 일반인 학습, 종교 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이고 평균시간이 높은 활동은 종교 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물품구입, 기타 여가관련활동으로 나타나 종교 활동을 제외하고는 남녀 간에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 우위 활동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일에 대부분 여가활동에서 여자가 행위자 비율이 높고 행위자 평균시간의 경우도 일반인 학습과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자의 평균 시간이 높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남자가 여자에 비해 가족과 공유 여가활동을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 비하여 일요일의 여가활동은 남녀 구별 없이 모든 가족공유형태에서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 여가활동에서 배우자 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 증가가 미취학자녀나 그 외 가족과의 증가보다 증

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일요일에도 미디어 이용을 가족과 함께 더 많이 공유하기는 하지만 평일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적극적 여가 활동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며 가족 중 특히 배우자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가족공유 여가의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일요일)

(단위 : %, 시간:분)

	일요일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						그 외 가족·친척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활동	84.7	84.1	85.3	2:31	2:37	2:25	69.7	71.9	67.6	2:21	2:24	2:18	13.6	14.0	13.3	1:52	1:53	1:52	59.8	56.1	63.4	2:02	2:11	1:54
교제활동	43.4	40.2	46.4	0:57	1:04	0:51	31.4	32.2	30.7	0:49	0:51	0:47	3.2	3.4	3.0	0:42	0:45	0:39	33.4	28.7	38.0	1:01	1:15	0:52
일반인의학습	0.1	0.0	0.2	1:28	0:00	1:28	0.1	0.0	0.2	1:25	1:00	1:26	0.0	0.0	0.0	0:00	0:00	0:00	0.1	0.0	0.1	0:26	0:00	0:26
미디어이용	69.6	69.6	69.6	1:54	1:57	1:52	53.2	54.9	51.7	1:42	1:45	1:39	9.9	10.3	9.5	1:33	1:33	1:33	38.8	38.2	39.3	1:39	1:40	1:39
종교활동	3.7	3.5	3.9	1:23	1:21	1:24	8.2	8.2	8.2	2:12	2:17	2:08	1.6	1.4	1.8	1:46	1:42	1:49	4.4	3.4	5.4	1:31	1:29	1:32
관람및문화행사참여	1.7	1.6	1.8	1:54	1:55	1:52	1.4	1.5	1.3	2:01	1:58	2:05	0.2	0.2	0.2	1:13	1:09	1:16	0.9	0.7	1.0	1:59	2:08	1:52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6.1	6.5	5.8	1:33	1:36	1:30	15.7	14.2	13.1	1:38	1:37	1:40	3.4	3.5	3.3	1:13	1:14	1:12	7.2	7.3	7.1	1:17	1:33	1:21
취미및그 외여가활동	5.5	6.3	4.8	0:50	0:55	0:44	4.2	4.5	3.8	0:48	0:50	0:46	0.7	0.7	0.7	0:40	0:44	0:36	3.6	4.2	3.1	0:57	1:63	0:50
교제및여가활동물품구입	2.0	2.2	1.8	0:31	0:30	0:32	1.0	2.1	1.8	0:29	0:30	0:29	0.3	0.3	0.2	0:28	0:27	0:30	0.8	0.9	0.8	0:32	0:26	0:37
기타여가관련행동	1.2	1.4	1.0	0:21	0:18	0:25	1.1	1.3	0.9	0:21	0:19	0:25	0.1	0.1	0.0	0:10	0:10	0:00	0.3	0.4	0.3	0:18	0:15	0:21

이상을 정리해 보면 평일 여가의 가족공유 행위자율을 보면 응답자의 68.5%가 어떤 가족공유형태이든지 상관없이 가족과 여가시간을 공유하였으며 이들의 평균시간을 보면 1시간 16분이다. 여자가 남자보다 가족과 공유하는 비율이 약 10% 정도 높았고 평균시간은 6분 길게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공유비율은 남자가 많으나 행위자 평균시간은 여자가 길고, 미취학자녀와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여자가 공유하는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이 남자보다 높았으나 수준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 가족과의 공유에서는 행위자 비율이 여자가 훨씬 높으나 행위자 평균 시간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유에 참여하는 비율은 남녀 간 다르지만 일단 공유를 하게 되면 참여시간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의 거의 반이 미디어 활동을 1시간 9분하고, 1/3을 넘는 수가 34분의 교제활동을 가족과 함께 하고 있었다.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미디어 이용이나 교제활동보다는 행위자 비율이 많이 떨어지지만 다른 여가활동에 비하여 행위자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행위자 평균은 미디어 이용과 같은 수준이다.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가족과 공유하는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의 행위자율과 평균시간의 증가가 여자보다 높았다. 또한 남자가 행위자 비율은 여자보다 1.2%가 낮으나 행위자 평균 시간은 12분 높게 나타나 가족여가 공유의 남녀 간 격차가 일요일에 다소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평일에는 여자가 행위자 비율이나 평균시간이 긴 것에 비해 일요일에는 남자가 가족과 공유하는 비율도 높고 평균시간이 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평일에

직장일 등으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여가를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이용의 일요일 행위자율과 평균시간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요일에 여가의 가족공유가 증가하는 것은 미디어 이용의 가족공유 참여 증가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평일과 일요일 모두 행위자 비율은 미미 하지만 행위자 평균 시간이 높은 여가 활동은 일반인 학습,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 종교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활동 모두 평일에 비하여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 여가 활동에서 배우자 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 증가가 미취학자녀나 그 외 가족과의 증가보다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일요일에도 미디어 이용을 가족과 함께 더 많이 공유하기는 하지만 평일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적극적 여가 활동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며 가족 중 특히 배우자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유대상별 여가시간 비율

여기에서는 전체시간량 대비 각각 행동을 한 시간의 비율을 측정하여 함께 한 사람 및 공유대상별 여가시간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평일 성인의 여가 시간을 참여형태별로 나누어 보면(<표 4-31>) 혼자 수행한 경우가 53.3%, 가족과 함께 수행한 경우가 25.9%, 기타가 21.2%로 혼자 여가활동을 한 경우가 가족과 함께 한 경우나 기타사람과 한 경우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혼자형이 45.4%로 나타난 안동선(1982)의 연구결과와 36.1%로 나타난 Orthner(1974)의 연구결과에 비하여 혼자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보면 혼자 여가활동을 한 경우 남자는 55.1%, 여자는 50.9%로 남자가 많았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가족이 함께 한 경우는 남자가 23.9%, 여자가 27.7%로 여자가 많았다.

평일 가족과 함께 한 경우를 공유대상별로 나누어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가 17.5%, 미취학자녀와의 공유가 2.5%, 그 외 가족과의 공유가 10.9%로 나타나 배우자와 공유한 여가시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여가 활동 비율이 33.7%로 나타난 안동선(1982)의 연구결과와 31.7%로 나타난 Orthner(1974) 연구결과에 비하여 배우자 공유여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자는 배우자가 18.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그 외 가족 10.9%, 미취학자녀 1.9% 순이었다. 여자도 배우자가 16.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그 외 가족 8.1%, 미취학자녀 3.1% 순서로 나타나 남녀 모두 배우자와의 공유가 가장 많고 미취학자녀와의 공유가 가장 적었다. 본 연구의 배우자와의 공유여가 비율을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본 연구는 혼자형 비율이 높은 반면 배우자 공유여가 비율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평일 성인의 여가 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미디어 이용시간을

참여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혼자 수행한 경우가 65.8%, 가족과 함께 수행한 경우가 23.5%, 기타가 1.2%로 혼자 여가활동을 한 경우가 가족과 함께 한 경우나 기타사람과 한 경우보다 월등히 높았다. 성별에 따라 보면 혼자 미디어 이용을 한 경우 남자는 67%, 여자는 64.6%로 남자가 많았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가족이 함께 한 경우는 남자가 31.8%, 여자가 34%로 여자가 많았다. 기타 사람과 한 경우는 남녀 모두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일 혼자 한 비율이 높은 여가활동은 기타 여가활동 관련 물품 구입,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미디어 이용, 교제 및 여가활동 물품구입, 미디어 이용, 학습, 종교활동으로 나타났는데 이 활동들의 혼자 하는 비율은 52.1%에서 87.2%에 이르고 있다. 남녀 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혼자 하는 비율이 가장 큰 여가 활동은 기타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89.9%)이고, 여자가 혼자 하는 비율이 가장 큰 활동은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91.9%)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 별로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을 제외하고는 이들 여가활동의 경우 남자가 혼자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31> 공유 대상별 여가시간 비율(평일)

(단위 : 시간분, %)

요일	평 일																				
	평균시간량		혼자		가족												기타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			그 외 가족·친척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활동	3:44	3:32	3:55	53.0	55.1	50.9	25.9	23.9	27.7	17.5	18.9	16.1	2.5	1.9	3.1	10.9	8.1	13.5	21.2	21.0	21.3
교제활동	0:39	0:34	0:44	3.5	4.5	2.6	33.8	28.8	38.1	17.9	21.0	15.2	1.3	1.1	1.4	19.6	12.0	26.3	62.7	66.6	59.2
일반인의학습	0:08	0:06	0:11	64.3	79.0	56.5	0.7	0.8	0.7	0.4	0.8	0.2	0.0	0.0	0.0	0.5	0.3	0.6	35.0	20.1	42.8
미디어이용	1:50	1:45	1:55	65.8	67.0	64.6	32.9	31.8	34.0	23.5	25.0	22.1	3.3	2.4	4.1	11.7	10.1	13.3	1.2	1.1	1.4
종교활동	0:08	0:03	0:12	52.1	53.3	51.8	8.6	18.6	5.6	13.1	28.9	8.2	2.5	4.5	1.9	3.8	4.7	3.5	39.2	28.1	42.6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01	0:00	0:01	4.7	1.1	6.4	64.4	85.8	54.3	55.0	85.0	40.7	18.8	28.2	14.3	26.6	28.5	25.7	30.8	13.0	39.3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0:25	0:24	0:26	61.6	68.7	54.9	16.7	13.8	19.5	12.8	13.0	12.6	2.8	1.4	4.0	4.3	2.2	6.3	21.7	17.5	25.6
취미및그 외여가활동	0:31	0:39	0:24	85.0	79.7	91.9	2.3	1.9	2.9	1.6	1.3	2.1	0.4	0.4	0.5	1.4	1.2	1.6	2.5	18.4	5.2
교제및여가활동물품구입	0:01	0:00	0:02	65.2	75.3	60.9	15.9	18.5	14.8	10.7	17.4	7.9	3.0	3.9	2.6	6.8	4.4	7.9	18.9	6.2	24.3
기타여가관련행동	0:01	0:01	0:01	87.2	89.9	84.9	7.2	6.4	23.7	6.3	6.9	5.7	1.4	0.0	2.6	2.1	1.7	2.5	5.6	3.6	7.2

평일 가족전체와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64.4%)이고 그 뒤를 이어, 교제활동(33.8%), 미디어 이용(32.9%),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16.7%), 교제 및 여가활동 물품구입(15.9%)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31.5% 높아 남녀 간 가족전체와 하는 여가 참여 비율 격차를 가장 많이 보이는 여가 활동으로 나타났다.

평일 배우자와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35%)이고 그 뒤를 이어, 미디어 이용(23.5%), 교제활동(17.9%),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12.8%), 교제 및 여가활동 물품구입(10.7%)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남녀 간 배우자와 함께 하는 여가 참여 비율 격차를 가장 많이 보이는 여가 활동은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로 나타났는데 남자가 여자에 비해 30% 높게 나타났다. 종교활동도 남녀 간 배우자와 공유하는 비율의 격차가 20.7%로서 다른 활동에 비해 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 활동인데 이 활동 역시 남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평일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역시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18.8%)로 나타났고 남녀 간 참여 격차를 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평일 그 외 가족과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26.6%)이고 그 뒤를 이어, 교제활동(19.6%), 미디어 이용(11.7%)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교제활동은 여자가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는 남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 성인의 여가 시간을 참여형태별로 나누어 보면(<표 4-32>) 42.4%, 가족과 함께 수행한 경우가 40.3%, 기타가 17.3%로 평일에 혼자 여가활동을 한 경우가 가족과 함께 한 경우나 기타사람과 한 경우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에 비하여 일요일은 두 항목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혼자 수행한 비율은 10.9% 감소한데 비하여 가족과 함께 수행한 비율은 14.4%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성별에 따라 보면 혼자 여가활동을 한 경우 남자는 47.1%, 여자는 37.9%로 남자가 많았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가족이 함께 한 경우는 남자가 35.4%, 여자가 45%로 여자가 많았다. 기타 사람과 한 비율은 남녀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일요일 가족과 함께 한 경우를 공유대상별로 나누어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가 29.5%, 미취학자녀와의 공유가 5.7%, 그 외 가족과의 공유가 23.2%로 나타나 평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공유한 여가시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일에 비해 일요일은 배우자와의 공유는 12%,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과의 공유 증가율은 유사하고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2.2%로 증가율이 두 집단보다 훨씬 작게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자는 배우자가 18.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그 외 가족 10.9%, 미취학자녀 1.9% 순이었다. 여자도 배우자가 16.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그 외 가족 8.1%, 미취학자녀 3.1% 순서로 나타나 남녀 모두 배우자와의 공유가 가장 많고 미취학자녀와의 공유가 가장 적었다.

일요일 성인의 여가 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미디어 이용시간(2시간 50분)을 참여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혼자 수행한 경우가 51.8%, 가족과 함께 수행한 경우가 47.4%, 기타가 0.8%로 평일에 비해 혼자 여가활동을 한 비율은 14% 감소한 반면 가족과 함께 한 경우는 23.9% 증가하여 가족과 함께한 증가 비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보면 혼자 미디어 이용을 한 경우 남자는 57.4%, 여자는 46.2%로 남자가 많았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가족이 함께 한 경우는 남자가 41%, 여자가 52.7%로 여자가 많았다. 기타 사람과 한 경우는 남녀 모두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요일 혼자 한 비율이 높은 여가활동은 학습(89.6%),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84.6%), 여가활동관련 물품구입(70.7%), 미디어 이용(51.8%)으로 나타났다. 남녀 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혼자 하는 비율이 가장 큰 활동은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남: 81.9%, 여: 88%)으로 나타났는데 여자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 별로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을 제외하고는 이들 여가활동의 경우 남자가 혼자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요일 가족전체와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71.2%)이고, 그 뒤를 이어 교제활동(49.8%), 교제 및 여가활동 물품구입(49%), 미디어 이용(47.4%),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40.4%)의 순서로 나타나 활동별 순서는 평일과 다르나 상위 여가활동 유형은 유사하다. 대부분 여가활동의 비율이 평일에 비하여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공유 대상별 여가시간 비율(일요일)

(단위 : 시간분, %)

요일	일요일																				
	평균 시간량		혼자			가족												기타			
						가족			배우자			미취학 자녀			그 외 가족·친 척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여가활동	5:35	6:21	4:52	42.4	47.1	37.9	40.3	35.4	45.0	29.5	27.1	31.7	5.7	4.8	6.5	23.2	19.7	26.5	17.3	17.4	17.1
교제활동	0:48	0:51	0:44	3.0	3.4	2.7	49.8	45.6	53.8	32.1	32.8	31.4	3.1	3.4	2.8	37.2	32.3	41.8	47.0	51.0	43.5
일반인의학습	0:04	0:05	0:02	89.6	96.	79.6	4.2	0.0	10.6	3.7	0.4	8.8	0.0	0.0	0.0	0.9	0.0	2.3	6.3	4.0	9.8
미디어이용	2:50	3:13	2:28	51.8	57.4	46.2	47.4	41.0	52.7	31.9	29.4	34.5	5.7	5.0	6.4	22.9	19.6	26.1	0.8	0.6	1.0
종교활동	0:30	0:23	0:37	18.2	11.6	22.1	14.7	17.5	13.0	38.5	5.5	30.1	8.4	9.3	7.9	17.6	17.6	17.7	67.2	71.0	64.9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03	0:02	0:03	7.3	9.5	5.6	0.8	75.3	67.1	59.4	70.6	50.4	8.4	9.2	7.7	34.7	32.9	36.1	21.9	15.2	27.3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0:41	0:54	0:29	40.2	44.3	34.7	40.4	33.5	49.5	34.0	28.7	41.0	9.1	7.9	10.7	17.5	13.8	22.4	19.4	22.2	15.7
취미및그 외여가활동	0:37	0:49	0:26	84.6	81.9	88.0	7.1	6.9	7.4	4.9	4.4	5.7	0.9	0.7	1.2	5.0	4.8	5.2	8.3	11.3	4.6
교제및여가활동물품구입	0:01	0:01	0:02	38.9	4.8	34.8	49.0	50.1	47.8	47.9	49.7	45.9	5.9	6.8	5.1	20.4	19.2	21.5	12.1	7.1	17.4
기타여가관련행동	0:01	0:02	0:01	70.7	73.6	65.2	21.2	18.8	25.7	19.8	17.1	24.8	1.2	1.8	0.0	5.2	5.1	5.4	8.1	7.5	9.0

일요일 배우자와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59.4%)이고 그 뒤를 이어, 교제 및 여가활동 물품구입(47.9%), 종교활동(38.5%),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34%), 교제활동(32.1%), 미디어 이용(31.9%)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활동의 비율이 평일에 비하여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교제 및 여가활동 물품구입과 종교활동 증가율이 다른 활동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남녀 간 배우자와 함께 하는 여가 참여 비율 격차를 가장 많이 보이는 여가 활동은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와 종교활동으로 나타났는데 전자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20.2% 높고 종교활동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24.6% 높게 나타났다.

일요일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전반적으로 평일보다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종교활동 비율이 높은 비율을 보

고 있다. 일요일 그 외 가족과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교체활동(37.2%)이고 그 뒤를 이어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34.7%) 미디어 이용(22.9%)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여가활동 모두 평일에 비하여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폭이 가장 큰 활동은 교체 활동으로 평일에 비해 17.6% 증가하였다. 모든 활동에서 교체활동은 여자가 남자보다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평일의 경우 가족이나 기타사람과 보다는 혼자 여가를 즐기는 경우가 많았으며 남자가 약 5% 더 혼자 즐기며, 가족들과는 여자가 3.8% 더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여가 대비하여 가족과는 25.9%로 공유하며 다음으로는 배우자, 그 외 가족 및 친척, 미취학자녀 순으로 약 1/4를 가족과의 시간에 할애했다. 혼자 여가를 하는 경우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교체활동을 제외하고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관람 및 교체활동 특성 상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라 이 둘만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평균시간량이 많은 활동별로 살펴보면 미디어 이용의 경우 혼자 하는 경우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미취학자녀와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비율이 다소 높아 남녀 차이를 보였다. 교체활동은 전체적으로 가족보다는 기타 사람들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기타 사람들과의 교체는 많은 반면, 가족과의 교체활동은 여자에 비해 적었다. 가족과의 교체활동 중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특징적으로 그 외 가족 친척과의 교체활동 비율이 높아 여자의 가정 내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는 평균시간량은 적지만 그에 대비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배우자 공유에 기인한 것이다. 학습의 경우 가족과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 하거나 기타 사람과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요일의 경우 혼자 하는 비율이 평일에 비해 감소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배우자, 그 외 가족 및 친척과의 공유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기타 사람들과의 비율도 감소하여 주말에는 혼자 또는 기타 사람들보다는 가족과 조금 더 함께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자는 혼자여가를 더 많이 하고 가족여가는 여자가 더 많이 하는 등의 남녀차이는 존재한다. 미디어의 평균시간 2시간 50분 대비 약 절반 이상 혼자 하고 나머지는 주로 가족과 함께 하며, 교체활동은 평일 기타사람과 많이 하는 것에 반해 가족과 더 많은 공유 비율을 보였다.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은 혼자 하거나 가족이 함께 하였는데 주로 배우자와의 공유에 의한 것이다.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은 누군가와 같이 하기보다는 주로 혼자하며 이는 평일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4) 미취학자녀 유무별 · 맞벌이 여부별 가족여가 공유

본 절에서는 미취학자녀 유무별, 맞벌이 여부별에 따라 가족여가 공유 정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4개 집단을 동시에 비교할 경우 미취학자녀가 없는 집단에서는 비

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라 맞벌이와 비맞벌이 집단을 나누었다. 가족여가는 부부중심의 가사노동과는 달리, 부부 뿐만 아니라 미취학자녀와도 함께 즐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족의 여가 공유 실태

①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의 여가 공유 실태

가. 가족공유 여가시간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의 평일의 가족공유 여가시간을 보면(<표 4-33>) 37분이다. 가족공유 중 배우자와 공유하는 시간이 24분, 미취학자녀가 14분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에 비하여 배우자와의 공유시간은 28분 짧고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시간은 9분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유미취학자녀, 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시간 (평일)

(단위 : 시간:분)

	평 일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활동	0:37	0:37	0:38	0:24	0:26	0:23	0:14	0:13	0:16
교제활동	0:11	0:09	0:13	0:06	0:06	0:07	0:02	0:02	0:02
일반인의학습	0:00	0:00	0:22	0:00	0:00	0:00	0:00	0:00	0:00
미디어이용	0:23	0:25	0:22	0:16	0:18	0:13	0:09	0:08	10:1
종교활동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0:02	0:02	0:02	0:01	0:01	0:01	0:01	0:01	0:01
취미및그 외여가활동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교제및여가활동물품구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여가관련행동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세부적 여가활동에 대한 가족공유시간을 보면 미디어 이용이 23분으로 가장 길고 다음이 교제 활동으로 11분,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2분,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과 종교활동이 각각 1분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다른 여가활동은 가족공유시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평일의 가족과의 공유여가 시간의 대부분이 미디어 이용과 교제활동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와 유사하나 전체 응답자의 공유시간에 비하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공유형태별로 보면 미디어 이용의 경우는 배우자와 공유한 시간이 16분, 미취학자녀와는 9분, 배우자와 공유한 시간은 전체 응답자 평균보다 8분 짧으나 가장 길고 미취학자녀와 공유한 시간은 6분 길게 나타났다. 교제활동의 가족형태별 공유시간은 배우자가 6분, 미취

학자녀가 2분으로 전체 응답자 공유시간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일요일의 가족공유시간(<표 4-34>)은 1시간 43분으로 평일보다 45분 많아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의 증가정도가 많으나 전체 응답자의 공유시간에 비하여 증가 정도가 적게 나타났다. 가족공유형태별로 평일과 비교해보면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51분, 배우자와의 공유는 53분 평일보다 늘어나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시간 증가가 전체응답자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증가한 반면 배우자와의 공유시간 증가 정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가 평일에 못한 미취학자녀와의 여가를 함께 일요일에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의 가족공유시간을 세부적 여가활동에 대한 가족공유시간을 보면 미디어 이용은 1시간 12분으로 평일보다 49분이, 교제활동은 21분으로 10분이,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12분으로 10분이 증가하였다. 평일에 비하여 가장 증가한 가족공유 여가시간은 미디어 이용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응답자에 비하여 증가 폭이 작다. 이외에 종교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도 모두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가족 공유 여가시간이 증가하였다. 미디어 이용의 경우, 가족공유형태별로 보면 배우자가 45분으로 평일보다 29분이 증가하고 미취학자녀는 43분으로 34분이 증가해서 미디어 이용에 대한 가족공유형태 중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시간의 증가가 가장 컸다.

<표 4-34> 유미취학자녀, 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시간 (일요일)

(단위 : 시간:분)

	일 요 일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활동	1:53	1:51	1:55	1:17	1:19	1:14	1:05	1:06	1:05
교제활동	0:21	0:20	0:22	0:16	0:16	0:17	0:05	0:05	0:05
일반인의 학습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미디어이용	1:12	1:11	1:12	0:45	0:47	0:43	0:43	0:44	0:41
종교활동	0:03	0:01	0:04	0:04	0:04	0:04	0:05	0:02	0:07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02	0:01	0:02	0:01	0:01	0:01	0:02	0:01	0:02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0:12	0:13	0:11	0:09	0:10	0:08	0:10	0:11	0:10
취미및그 외여가활동	0:03	0:04	0:02	0:01	0:01	0:01	0:01	0:02	0:01
교제및여가활동물품구입	0:01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여가관련행동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교제활동의 경우는 배우자와의 공유시간이 10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시간은 5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의 경우, 가족공유형태별로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약9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10분, 증가하여 역시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시간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활동의 경우 평일에는 배우자나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시간이 거의 없었으나 일요일에는 4분과 5분으로 나타나

일요일만 배우자나 미취학자녀와 함께 종교활동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의 경우는 미미하지만 배우자와 그 외 가족과의 공유시간이 평일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족공유 여가의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

평일 여가의 가족공유 행위자율과 평균시간을 보면(<표 4-35>) 응답자의 64.2%가 어떤 가족공유형태이든지 상관없이 58분 가족과 여가시간을 공유하였으며 그 중 남자는 61.6%에 1시간, 여자는 67%에 46분 가족과 공유함으로써 여자가 남자보다 가족과 공유하는 비율이 5.4% 높았으나 평균시간은 14분 적게 나타났다. 가족공유 유형에 따른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48.7%에 50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26.4%에 54분으로 배우자와의 공유 비율이 훨씬 높았지만 공유 평균시간은 미취학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길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남자가 50.8%에 52분, 여자가 46.5%에 48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남자 23.5%에 55분, 여자 29.6%에 52분으로 배우자와의 공유는 남자가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높았으며,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행위자 비율이 높았으나 평균시간은 3분 짧게 나타났다.

<표 4-35> 유미취학자녀, 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평일)

(단위 : %, 시간:분)

	평 일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여가활동	64.2	61.6	67.0	0:58	1:00	0:46	48.7	50.8	46.5	0:50	0:52	0:48	26.4	23.5	29.6	0:54	0:55	0:52
교제활동	35.4	32.9	38.1	0:30	0:27	0:33	24.6	25.9	23.2	0:27	0:25	0:29	6.7	5.7	7.7	0:31	0:33	0:30
일반인의학습	0.1	0.0	0.2	0:34	0:10	0:40	0.0	0.0	0.0	0:00	0:00	0:00	0.1	0.0	0.2	0:40	0:00	0:40
미디어이용	40.8	40.8	40.7	0:57	1:00	0:54	28.8	30.4	27.0	0:54	0:58	0:50	18.7	16.9	20.7	0:49	0:49	0:49
종교활동	1.3	1.2	1.5	1:09	1:11	1:08	1.2	1.3	1.1	1:16	1:12	1:22	1.3	1.1	1.5	1:09	1:11	1:08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0	0.0	0.0	1:50	0:00	1:50	0.0	0.0	0.0	0:00	0:00	0:00	0.0	0.0	0.0	1:50	0:00	1:50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2.7	2.7	2.6	1:09	1:09	1:08	1.5	1.7	1.2	1:20	0:16	1:26	2.1	2.0	0.2	1:07	1:05	1:09
취미및그 외여가활동	2.5	2.9	2.0	0:27	0:29	0:23	0.7	0.1	1.3	0:25	0:56	0:21	1.4	2.3	0.4	0:29	0:28	0:33
교제및여가활동물품구입	0.6	0.7	0.6	0:18	0:11	0:26	0.3	0.3	0.3	0:12	0:12	0:13	0.7	0.7	0.7	0:21	0:11	0:30
기타여가관련행동	0.0	0.0	0.0	0:00	0:00	0:00	0.0	0.0	0.0	0:00	0:00	0:00	0.0	0.0	0.0	0:00	0:00	0:00

여가 중 미디어 이용의 가족공유 행위자율과 평균시간은 40.8%에 57분, 교제활동은 35.4%에 30분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과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은 각각 2.7%에 1시간 9분으로 미디어 이용이나 교

제활동보다는 행위자 비율이 많이 떨어지지만 평균시간은 높게 나타났다. 이 세 여가 활동을 제외하고는 다른 여가활동의 가족 공유여가활동의 행위자 비율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종교 활동은 행위자 비율은 미미 하지만 행위자 평균 시간은 모두 1시간이 넘게 나타나고 있다.

일요일 여가의 가족공유 행위자율을 보면(<표 4-36>) 응답자의 84.6%가 가족과 여가를 2시간 12분 공유해 평일보다 행위자율은 20.4%, 평균시간은 1시간 12분 높았다. 성별에 따른 일요일의 가족공유 행위자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남자는 82.2%에 1시간, 여자는 87.4%에 46분으로 평일에 비해 남자는 20.4%에 1시간 15분, 여자는 20.6%에 1시간 26분 증가해 여자가 남자에 비해 행위자율과 평균시간 증가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공유형태별로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 증가를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19.6%에 1시간 3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31.4%에 1시간 11분, 일요일에 행위자 비율은 미취학자녀가 배우자 증가에 비해 훨씬 컸으나 행위자 평균 시간 증가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 행위자 비율은 남자와 여자 모두 68.5%인데 평균 시간은 남자는 52분 여자는 48분으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시간이 4분 높게 나타났다. 미취학자녀와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 시간은 남자 58.8%에 1시간 56분으로 평일에 비해 35.3%에 59분 증가하였고, 여자 43.2%에 1시간 55분으로 평일에 비해 13.6%에 1시간 3분 증가하였다. 일요일에는 평일에 비해 남자가 미취학자녀와의 공유 행위자 비율이 여자에 비해 훨씬 증가 폭이 컸으나 평균 시간은 오히려 여자가 남자보다 4분 더 증가하였다.

여가 중 일요일의 미디어 이용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은 68.7%에 1시간 44분, 교제활동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은 41.3%에 51분으로 각각 평일보다 27.9%에 47분, 5.9%에 21분 증가해 미디어 이용의 일요일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요일에 여가의 가족공유가 증가하는 것은 미디어 이용의 가족공유 참여 증가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가족공유형태별로 일요일의 미디어 이용의 행위자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가 48.7%에 1시간 33분, 미취학자녀가 44.1%에 1시간 36분으로 배우자나 미취학자녀와 함께 미디어 이용에 참여하는 비율과 평균시간 정도가 유사하였으며, 평일에 비한 증가는 배우자의 경우가 19.9%에 42분, 미취학자녀의 경우가 25.4%에 47분으로 나타나 배우자와의 공유에 참여하는 증가보다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에 참여하는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공유형태별로 교제활동의 일요일의 행위자율과 평균시간 증가를 보면 배우자와 공유는 7.4%에 24분, 미취학자녀의 경우는 6.3%에 9분 평일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공유형태별로 종교활동의 일요일의 행위자율 증가를 보면 배우자와 공유는 3%에 16분, 미취학자녀의 경우는 3.4%에 28분이 평일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활동의 경우는 배우자와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증가 행위자 비율은 유사하나 평균시간 증가는 미취학자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 비하여 일요일의 여가활동은 남녀 구별 없이 모든 가족공유형태에서 행위자율과 평균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기영외 2인(1995)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표 4-36> 유미취학자녀, 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일요일)

(단위 : %, 시간:분)

	일요일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활동	84.6	82.2	87.4	2:12	2:15	2:12	68.3	68.3	68.3	1:53	1:56	1:49	57.8	58.8	43.2	1:53	1:52	1:55
교제활동	41.3	36.2	47.1	0:51	0:56	0:47	32.0	29.8	34.6	0:50	0:52	0:49	13.0	13.0	12.9	0:40	0:41	0:39
일반인의학습	0.0	0.0	0.0	0:00	0:00	0:00	0.0	0.0	0.0	0:00	0:00	0:00	0.0	0.0	0.0	0:00	0:00	0:00
미디어이용	68.7	67.1	70.4	1:44	1:46	1:46	48.7	49.2	48.1	1:33	1:36	1:29	44.1	45.5	42.5	1:36	1:37	1:36
종교활동	4.5	2.9	6.4	1:00	0:44	1:08	4.6	4.4	4.8	1:30	1:33	1:37	4.7	3.3	6.2	1:37	1:10	1:54
관람및문화행사참여	2.0	1.3	2.9	1:17	1:39	1:06	1.3	1.3	1.3	1:42	1:39	1:46	1.5	1.3	1.7	1:38	1:39	1:37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15.7	16.0	15.3	1:17	1:20	1:14	11.6	12.6	10.5	1:17	1:16	1:18	13.3	13.0	13.5	1:16	1:26	1:11
취미및그 외여가활동	6.6	7.1	6.0	0:40	0:50	0:26	3.2	3.0	3.5	0:29	0:35	0:23	2.7	2.7	2.7	0:49	1:02	0:34
교제및여가활동물품구입	1.5	1.3	1.7	0:51	0:31	1:07	0.7	0.7	0.7	0:15	0:14	0:15	0.5	0.8	0.2	0:44	0:46	0:30
기타여가관련행동	1.3	1.5	1.0	0:10	0:10	0:10	1.3	1.5	1.0	0:10	0:10	0:10	0.0	0.0	0.0	0:00	0:00	0:00

정리하면 미취학자녀가 있으면서 맞벌이인 가족의 경우 평일은 바쁜 맞벌이 생활로 인해 가족여가가 적었지만 일요일의 경우 평일의 약 3배 이상의 높은 증가를 보였고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공유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나 일요일 증가분은 주로 미디어 이용에 기인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평일은 미디어나 교제활동으로 가족공유 여가를 보냈으며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미디어와 교제활동도 높았지만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으로도 시간을 보냈으며 이는 미취학자녀와의 시간이 미비하지만 더 많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미취학자녀가 있고 맞벌이의 경우 평소 시간부족을 느낄 것으로 예상하므로 가족여가 역시 공유 시간량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인다.

평일 미취학자녀가 있으면서 맞벌이인 가족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가족과 공유하는 비율이 5.4% 높았으나 평균시간은 14분 적게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공유 비율이 훨씬 높았지만 공유 평균시간은 미취학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길었다. 일요일의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해 행위자율과 평균시간 증가가 높게 나타났다. 일요일에 행위자 비율은 미취학자녀가 배우자 증가에 비해 훨씬 컸으나 행위자 평균 시간 증가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의 일요일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와의 공유에 참여하는 증가보다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에 참여하는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 비하여 일요일의 여가활동은

남녀 구별 없이 모든 가족공유형태에서 행위자율과 평균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전반적 배우자와의 공유 보다는 미취학자녀와의 공유가 행위자율과 평균시간이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인 경우 평일에 직장생활로 인해 미취학자녀와 여가활동을 일요일에 더 많이 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②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가족의 여가 공유 실태

가. 가족공유 여가시간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가족의 평일의 가족공유 여가시간을 보면(<표 4-37>) 56분이다. 가족공유 중 배우자와 공유하는 시간이 35분, 미취학자녀가 23분으로 나타나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배우자와의 공유시간은 19분 길고 미취학자녀와의 공유 시간은 9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 여가활동에 대한 가족공유시간을 보면 미디어 이용이 35분으로 가장 길고 다음이 교제 활동으로 14분,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4분,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과 종교활동이 각각 1분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족에서는 이를 제외한 다른 여가활동은 가족공유시간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는데 비맞벌이 가족에서는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와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도 각각 1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맞벌이 가족도 비맞벌이 가족과 마찬가지로 평일의 가족과의 공유여가 시간의 대부분이 미디어이용과 교제활동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맞벌이 가족의 경우와 유사하나 맞벌이 가족의 공유시간에 비하여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유미취학자녀, 비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시간 (평일)

(단위 : 시간:분)

	평 일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활동	0:56	0:44	1:08	0:35	0:37	0:33	0:23	0:14	0:33
교제활동	0:14	0:11	0:18	0:09	0:09	0:09	0:03	0:02	0:04
일반인의학습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미디어이용	0:35	0:29	0:42	0:22	0:24	0:21	0:15	0:09	0:22
종교활동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0:04	0:02	0:05	0:02	0:02	0:02	0:03	0:01	0:05
취미및그 외여가활동	0:01	0:01	0:02	0:01	0:01	0:01	0:01	0:01	0:01
교제및여가활동물품구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여가관련행동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가족공유형태별로 보면 미디어 이용의 경우는 배우자와 공유한 시간이 22분, 미취

학자녀와는 15분으로 맞벌이 가족의 배우자와 미취학자녀와의 공유 시간보다 6분 길게 나타났다. 모든 세부 여가 활동에서도 비맞벌이 가족은 맞벌이 가족에 비해 배우자나 미취학자녀와의 공유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Kingston과 Nock(1987)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일요일의 가족공유시간(<표4-38>)은 2시간 10분으로 평일보다 1시간 14분 많아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의 증가정도가 많으며 이는 맞벌이 가족의 공유시간에 비하여 증가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가족공유형태별로 평일과 비교해보면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41분, 배우자와의 공유는 1시간 4분 평일보다 늘어나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시간 증가가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큰 반면 배우자와의 공유시간 증가 정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맞벌이 가족도 맞벌이 가족과 마찬가지로 평일에 못한 미취학자녀와의 여가를 함께 일요일에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의 가족공유시간 세부적 여가활동에 대한 가족공유시간을 보면 미디어 이용은 1시간 1시간 23분으로 평일보다 48분이, 교제활동은 26분으로 12분이,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12분으로 8분이 증가하였다. 평일에 비하여 가장 증가한 가족공유 여가시간은 미디어 이용으로 나타났는데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증가 폭이 조금 크게 나타났다.

<표 4-38> 유미취학자녀, 비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시간 (일요일)

(단위 : 시간:분)

	일 요 일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활동	2:10	2:13	2:06	1:39	1:41	1:37	1:03	0:59	1:08
교제활동	0:26	0:30	0:21	0:15	0:16	0:14	0:06	0:06	0:05
일반인의학습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0	0:00
미디어이용	1:23	1:21	1:15	0:59	1:00	0:57	0:36	0:34	0:39
종교활동	0:04	0:03	0:04	0:13	0:13	0:13	0:09	0:07	0:10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0:12	0:13	0:12	0:09	0:09	0:09	0:11	0:10	0:11
취미및그 외여가활동	0:01	0:04	0:02	0:01	0:01	0:02	0:01	0:01	0:01
교제및여가활동물품구입	0:00	0:01	0:01	0:01	0:01	0:01	0:00	0:00	0:00
기타여가관련행동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종교활동도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가족 공유 여가시간이 증가하였으나 다른 활동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이용의 경우, 가족공유형태별로 보면 배우자가 59분으로 평일보다 37분이 증가하고 미취학자녀는 36분으로 21분이 증가했다. 맞벌이 가족은 미디어 이용의 경우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시간의 증가가 가장 컸으나 비맞벌이 가족은 오히려 배우자와의 공유시간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교제활동의 경우는 배우자와의 공유시간이 6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시간은 3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의 경우, 가족공유형태별로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7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8분, 증가하여 역시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활동의 경우 평일에는 배우자나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시간이 1분이었으나 일요일에는 13분과 9분으로 나타나 일요일에 배우자나 미취학자녀와 함께 종교활동을 공유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일요일의 가족 전체 공유, 배우자와 미취학자녀와의 공유 시간은 평일에 비하여 증가하지만 비맞벌이 가족의 증가폭이 맞벌이 가족의 증가폭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 맞벌이 가족의 경우 부부가 취업으로 인하여 가족과 여가를 공유하지 못한 시간을 일요일에 보완하기 위하여 공유시간을 더 가지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그 증가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나. 가족공유 여가의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

평일 여가의 가족공유 행위자율과 평균시간을 보면(<표 4-39>) 응답자의 72.7%가 어떤 가족공유형태이든지 상관없이 가족과 1시간 16분의 여가시간을 공유하였으며 그 중 남자는 66.1%에 1시간 7분, 여자는 79.9%에 1시간 25분을 가족과 공유함으로써 여자가 남자보다 가족과 공유하는 비율은 2.3% 높고 평균시간은 9분 높았다.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가족공유 행위자 비율은 8.5% 평균시간은 18분 높았으며, 남자는 행위자 비율은 4.5% 평균 시간은 7분, 여자는 행위자 비율은 12.9% 행위자 평균시간은 39분 각각 높게 나타났다. 비맞벌이 가족의 여자가 평일에 가족과 공유하는 여가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맞벌이 가족의 여자에 비하여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비맞벌이 가족여가 공유 비율과 평균시간이 높은 것은 주로 여자의 공유비율과 평균시간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맞벌이 가족의 여자가 평일에 직장생활로 인하여 가족과 여가를 공유할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족공유 중 배우자와의 공유비율과 평균시간은 56.8%에 1시간 1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비율은 32%에 1시간 12분으로 맞벌이 가족과 비교해 볼 때 배우자와의 공유비율은 8.1% 평균시간은 11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비율은 5.6%에 평균시간은 41분 높은 행위자 비율을 보이고 있다. 맞벌이 가족과 비교해 볼 때 비맞벌이 가족의 경우는 미취학자녀와의 공유하는 행위자 평균 시간의 차이가 배우자와의 공유하는 평균시간의 차이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비율과 평균시간은 남자가 58.6%에 1시간 2분, 여자가 54.8%에 1시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남자 21.1%에 1시간 4분, 여자 43.9%에 1시간 15분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공유 행위자 비율은 남자가,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이상 가족과 공유하는 비율이 높았다. 행위자 평균 시간은 배우자와의 공유 시간은 남녀가 거의 차이가 없고, 미취학자녀

와의 공유 행위자 비율의 남녀의 차이가 2배 이상인 것에 비하여 행위자 평균 시간은 11분으로 나타났다.

평일의 경우 맞벌이와 비맞벌이 가족의 남녀를 통틀어 비맞벌이 가족의 여자가 행위자 비율과 평균 시간이 가장 높고, 맞벌이 가족의 남자가 행위자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평균시간의 경우는 맞벌이 가족의 여자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네 집단 중 비맞벌이 여자의 경우 가장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집단이므로 미취학자녀와 여가를 함께 하는 비율도 높고 함께 하는 시간도 많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맞벌이 가족의 여자의 경우 직장생활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미취학자녀와 함께 하는 여가시간이 적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비맞벌이 가족의 남자의 경우 행위자 비율은 낮으나 일단 미취학자녀와 여가를 공유하게 되면 일정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미취학자녀와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여가 중 미디어 이용의 가족공유 행위자율과 평균시간은 53%에 1시간 7분, 교제활동은 40.1%에 35분으로 나타나 맞벌이 가족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보다 각각 12.2%에 13분, 4.7%에 8분 높게 나타났다.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과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은 각각 6.2%에 57분, 2%에 1시간 1분으로 미디어 이용이나 교제활동보다는 행위자 비율이 많이 떨어지지만 행위자 평균시간은 유사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많거나 보이고 있다.

<표 4-39> 유미취학자녀, 비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평일)

(단위 : %, 시간:분)

	평 일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활동	72.7	66.1	79.9	1:16	1:07	1:25	56.8	58.6	54.8	1:01	1:02	1:00	32.0	21.1	43.9	1:12	1:04	1:15
교제활동	40.1	35.6	45.1	0:35	0:31	0:39	28.4	29.9	26.8	0:30	0:30	0:32	7.0	5.1	8.1	0:40	0:31	0:45
일반인의학습	0.0	0.0	0.0	0:00	0:00	0:00	0.0	0.0	0.0	0:00	0:00	0:00	0.0	0.0	0.0	0:00	0:00	0:00
미디어이용	53.0	45.4	61.2	1:07	1:04	1:08	38.2	39.7	36.7	0:58	1:00	0:56	24.1	14.4	34.6	1:03	1:04	1:02
종교활동	0.6	0.6	0.7	1:18	1:08	1:20	0.6	0.7	0.5	1:33	1:21	1:50	0.9	0.4	1.5	1:21	1:10	1:07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7	0.7	0.8	1:41	1:47	1:36	0.7	0.7	0.7	1:45	1:47	1:43	0.7	0.7	0.8	1:41	1:47	1:36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6.2	3.5	9.0	0:57	0:57	0:57	2.9	3.0	2.7	1:00	0:57	1:03	4.7	1.9	7.8	0:57	0:53	0:58
취미및그 외여가활동	2.0	1.5	2.5	1:01	1:07	0:58	1.1	1.1	1.1	1:03	1:10	0:55	1.3	0.8	1.7	0:55	0:55	0:55
교제및여가활동물품구입	0.6	0.4	0.8	0:35	0:38	0:33	0.3	0.4	0.3	0:38	0:38	0:38	0.2	0.0	0.4	0:34	0:00	0:34
기타여가관련행동	0.3	0.0	0.5	0:17	0:00	0:17	0.0	0.0	0.0	0:00	0:00	0:00	0.3	0.0	0.5	0:17	0:00	0:17

이 네 가지 여가 활동을 제외하고는 다른 여가활동의 가족 공유여가활동의 행위자 비율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맞벌이 가족에서와 마찬가지로 비

맞벌이 가족에서도 종교활동(1시간 18분)과 관람 및 문화행사(1시간 41분) 행위자 비율은 낮으나 평균시간이 긴 공유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활동의 성격상 가족 유형과 상관없이 일단 참여하게 되면 오랜 시간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요일 여가의 가족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보면(<표 4-40>) 응답자의 89.7%가 가족과 여가를 2시간 25분 공유해 평일보다 행위자 비율은 17% 높았고 평균시간은 1시간 19분 높았다. 성별에 따른 일요일의 가족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남자는 88.6%에 2시간 30분, 여자는 90.9%에 2시간 19분로 평일에 비해 남자는 22.5%에 1시간 23분, 여자는 11%에 54분 증가해 남자의 행위자 비율 증가는 여자의 2배 이상이었고 평균시간 증가는 29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맞벌이 가족의 일요일의 가족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은 맞벌이 가족보다 5.1%에 13분 높게 나타났다. 가족공유형태별로 행위자율을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77.9%에 2시간 10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는 56.4%에 1시간 51분으로 나타나 일요일 배우자와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은 21.1%에 1시간 6분 미취학자녀와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은 24.4%에 30분 증가하여 행위자 비율은 미취학자녀, 평균시간은 배우자와의 공유의 증가폭이 컸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배우자와의 행위자 비율은 남녀 모두 77.9%로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평균시간도 2시간 10분과 2시간 4분으로 남자의 평균시간이 6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행위자 비율은 6.7%, 평균시간은 남자의 경우는 5분 여자의 경우는 8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의 경우 비맞벌이 가족의 배우자와의 공유는 남자와 여자 모두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맞벌이 가족의 남자와 여자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맞벌이 가족의 남녀가 일요일에 배우자와 여가를 함께함으로써 평일에 배우자와 함께 하지 못한 여가를 보상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취학자녀와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은 남자 51.6%에 1시간 54분으로 평일에 비해 30.5%에 50분 증가하였고, 여자 61.8%에 1시간 49분으로 평일에 비해 17.9%에 34분 증가하여 남자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 증가폭이 여자에 비해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났다. 일요일의 맞벌이 가족과 비교해 볼 때 일요일 남자의 미취학자녀와의 행위자 비율은 맞벌이 가족보다 다소 낮고 평균시간은 맞벌이 가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비맞벌이 가족의 여자의 경우는 행위자 비율은 맞벌이 가족보다 다소 높고 평균시간은 맞벌이 가족보다 다소 낮아 남자와 여자의 경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의 경우 맞벌이와 비맞벌이 가족의 남녀를 통틀어 맞벌이 가족의 여자가 미취학자녀와의 공유 행위자 비율은 가장 낮으나 평균시간은 이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맞벌이 여자는 행위자 비율은 가장 높으나 평균시간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여자의 경우 일요일에도 가사노동 등으로 미취학자녀와의 행위자 비율은 낮으나 일단 미취학자녀와 여가를 함께 하게 되면 평일에 함께하지 못한 여가시간을 보충하려는 의도로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네 집단의 행위자 비율은 각각 다르나 평균시간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여가 중 일요일의 미디어 이용 행위자율과 평균시간은 73.1%에 1시간 54분, 교체활동의 행위자율은 47.1%에 54분으로 각각 평일보다 20.1%에 47분, 7%에 19분 증가해 미디어 이용의 일요일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요일에 여가의 가족공유가 증가하는 것은 미디어 이용의 가족공유 참여 증가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가족공유형태별로 일요일의 미디어 이용의 행위자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가 59.6%에 1시간 54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가 40%에 1시간 30분으로 배우자와의 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보다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배우자와의 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은 10.9%에 11분 높으나 미취학자녀와의 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은 4.1%에 6분 낮게 나타났다. 비맞벌이 가족의 경우는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일요일에 미취학자녀와의 미디어 이용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모두 낮은 것으로 보인다. 가족공유형태별로 교체활동의 일요일의 행위자율과 평균시간 증가를 보면 배우자와 공유는 7.7%에 11분, 미취학자녀의 경우는 6.5%에 3분 평일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비맞벌이 가족의 교체활동은 행위자 비율 증가는 낮으나 평균시간 증가는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가족공유형태별로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의 일요일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 증가를 보면 배우자와 공유는 9.2%에 13분, 미취학자녀의 경우는 10.1%에 15분이 평일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미취학자녀와의 공유 행위자 비율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가족공유형태별로 종교활동의 일요일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 증가를 보면 배우자와 공유는 8.4%에 50분, 미취학자녀의 경우는 6.9%에 28분이 평일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활동의 경우는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배우자와 미취학자녀와의 일요일 공유 행위자 비율이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시간의 증가를 보면 배우자와의 평균시간 증가는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34분이나 더 증가하였으나 미취학자녀와의 평균시간 증가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족과 마찬가지로 평일에 비하여 일요일의 여가활동은 남녀 구별 없이 모든 가족공유형태에서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가족의 경우 평일 평균 1시간에 못 미치는 가족공유 여가를 보냈으나 그래도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에 비해 조금 더 많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비맞벌이 가족원이 한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여가가 많아봤자 30분 정도였다. 남자에 비해 비교적 여자가 미취학자녀와의 여가 공유가 더 많은 것은 비맞벌이인 경우 대개 여자가 미취업자이기 때문이다. 일요일은 약 2배정도 증가하여 2시간 조금 넘게 가족여가를 공유하고 있었으나 그 증가폭은 오히려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이 더 커 이들 집단이 평일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대신 일요일을 더 잘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가족에 비해 미취업 배우자가 있는 비맞벌이 집단의 경우, 절대적인 시간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히 평일 별 특징을 보이지 않고 있는 미취학자녀와의 공유 여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표 4-40> 유미취학자녀, 비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일요일)

(단위 : %, 시간:분)

	일 요 일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여가활동	89.7	88.6	90.9	2:25	2:30	2:19	77.9	77.9	77.8	2:07	2:10	2:04	56.4	51.6	61.8	1:51	1:54	1:49
교계활동	47.1	47.9	46.2	0:54	1:02	0:46	36.1	37.4	34.7	0:41	0:41	0:40	13.5	13.1	13.8	0:43	0:47	0:39
일반인의학습	0.5	0.0	0.8	1:40	0:00	1:40	0.5	0.0	0.8	1:40	0:00	1:40	0.0	0.0	0.0	0:00	0:00	0:00
미디어이용	73.1	71.9	74.4	1:54	1:53	1:55	59.6	60.1	59.1	1:39	1:40	1:37	40.0	36.9	43.5	1:30	1:31	1:29
종교활동	4.6	4.3	4.9	1:22	1:18	1:25	9.0	9.1	9.0	2:23	2:26	2:21	7.8	6.5	9.3	1:49	1:50	1:48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5	0.5	0.5	0:40	0:35	0:45	0.5	0.5	0.5	0:37	0:35	0:40	0.5	0.5	0.5	0:40	0:35	0:45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26.6	17.2	16.0	1:14	1:16	1:12	12.1	12.4	11.7	1:13	1:12	1:15	14.8	14.0	15.7	1:12	1:12	1:13
취미및그 외여가활동	6.0	6.5	5.4	1:49	0:53	0:42	3.9	3.5	4.3	0:48	0:50	0:47	3.2	2.9	3.5	0:36	0:35	0:37
교계및여가활동물품구입	4.0	4.4	3.5	0:28	0:30	0:25	3.7	3.9	3.5	0:29	0:33	0:24	1.4	1.6	1.3	0:26	0:23	0:30
기타여가관련행동	0.9	1.8	0.0	0:10	0:10	0:00	0.8	1.5	0.0	0:10	0:10	0:00	0.4	0.7	0.0	0:10	0:10	0:00

비맞벌이 가족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가족과 공유하는 비율은 2.3% 높고 평균 시간은 9분 높았다. 비맞벌이 가족의 여자가 평일에 가족과 공유하는 여가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맞벌이 가족의 여자에 비하여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비맞벌이 가족여가 공유 비율과 평균시간이 높은 것은 주로 여자의 공유비율과 평균시간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맞벌이 가족의 여자가 평일에 직장생활로 인하여 가족과 여가를 공유할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가족과 비교해 볼 때 비맞벌이 가족의 경우는 미취학자녀와의 공유하는 행위자 평균 시간의 차이가 배우자와의 공유하는 평균시간의 차이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일의 경우 맞벌이와 비맞벌이 가족의 남녀를 통틀어 비맞벌이 가족의 여자가 행위자 비율과 평균 시간이 가장 높고, 맞벌이 가족의 남자가 행위자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평균시간의 경우는 맞벌이 가족의 여자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네 집단 중 비맞벌이 여자의 경우 가장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집단이므로 미취학자녀와 여가를 함께 하는 비율도 높고 함께 하는 시간도 많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맞벌이 가족의 여자의 경우 직장생활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미취학자녀와 함께 하는 여가시간이 적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비맞벌이 가족의 남자의 경우 행위자 비율은 낮으나 일단 미취학자녀와 여가를 공유하게 되면 일정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미취학자녀와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맞벌이 가족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맞벌이 가족에

서도 종교활동(1시간 18분)과 관람 및 문화행사(1시간 41분) 행위자 비율은 낮으나 평균시간이 긴 공유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활동의 성격상 가족 유형과 상관없이 일단 참여하게 되면 오랜 시간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맞벌이 가족의 일요일의 가족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은 맞벌이 가족보다 5.1%에 13분 높게 나타났다. 일요일의 경우 비맞벌이 가족의 배우자와의 공유는 남자와 여자 모두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맞벌이 가족의 남자와 여자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맞벌이 가족의 남녀가 일요일에 배우자와 여가를 함께함으로써 평일에 배우자와 함께하지 못한 여가를 보상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의 경우 맞벌이와 비맞벌이 가족의 남녀를 통틀어 맞벌이 가족의 여자가 미취학자녀와의 공유 행위자 비율은 가장 낮으나 평균시간은 이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맞벌이 여자는 행위자 비율은 가장 높으나 평균시간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여자의 경우 일요일에도 가사노동 등으로 미취학자녀와의 행위자 비율은 낮으나 일단 미취학자녀와 여가를 함께 하게 되면 평일에 함께하지 못한 여가시간을 보충하려는 의도로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네 집단의 행위자 비율은 각각 다르나 평균시간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미디어 이용의 경우 비맞벌이 가족은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일요일에 배우자와의 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은 높으나 미취학자녀와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모두 낮은 것으로 보인다. 종교 활동의 경우는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배우자와 미취학자녀와의 일요일 공유 행위자 비율이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시간의 증가를 보면 배우자와의 평균시간 증가는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34분이나 더 증가하였으나 미취학자녀와의 평균시간 증가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족과 마찬가지로 평일에 비하여 일요일의 여가활동은 남녀 구별 없이 모든 가족공유형태에서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 미취학자녀가 없는 가족의 여가 공유 실태

① 미취학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족의 여가 공유 실태

가. 가족공유 여가시간

미취학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족의 평일의 가족공유 여가시간을 보면(<표 4-41>) 44분이다. 가족공유 중 배우자와 공유하는 시간이 32분으로 나타나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족 비하여 가족전체 여가와 배우자와의 공유시간이 각각 7분과 8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 여가활동에 대한 가족공유시간을 보면 미디어 이용이 29분으로 가장 길고

다음은 교체 활동으로 11분,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3분, 취미 및 그 외 여가 활동이 각각 1분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다른 여가활동은 가족공유시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평일의 가족과의 공유여가 시간의 대부분이 미디어이용과 교체활동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과 비교하면 미디어 이용이 6분 정도 길고 다른 여가 활동 공유시간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공유형태별로 보면 미디어 이용의 경우는 배우자와 공유한 시간이 21분으로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의 배우자와의 공유 시간보다 5분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체활동의 배우자와의 공유시간은 6분으로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의 배우자와의 공유시간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가 없는 가족은 있는 가족에 비하여 배우자와의 공유 시간이 다소 길게 나타나고 있다.

<표 4-41> 무미취학자녀, 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시간 (평일)

(단위 : 시간:분)

	평 일					
	가족			배우자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활동	0:44	0:43	0:45	0:32	0:33	0:31
교체활동	0:11	0:09	0:12	0:06	0:06	0:06
일반인의학습	0:00	0:00	0:00	0:00	0:00	0:00
미디어이용	0:29	0:29	0:29	0:21	0:22	0:21
종교활동	0:00	0:00	0:00	0:01	0:01	0:01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00	0:00	0:00	0:00	0:00	0:00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0:03	0:03	0:03	0:03	0:03	0:03
취미및그 외여가활동	0:01	0:01	0:01	0:01	0:01	0:01
교체및여가활동물품구입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여가관련행동	0:00	0:00	0:00	0:00	0:00	0:00

일요일의 가족공유시간(<표 4-42>)은 2시간 2분으로 평일보다 1시간 18분 많아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의 증가정도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의 공유시간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다. 가족공유형태별로 평일과 비교해보면 배우자와의 공유가 1시간 7분 평일보다 늘어나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에 비해 배우자와의 공유시간 증가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의 가족공유시간을 세부적 여가활동에 대한 가족공유시간을 보면 미디어 이용은 1시간 15분으로 평일보다 46분이, 교체활동은 25분으로 13분이,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13분으로 10분이 증가하였다. 평일에 비하여 가장 증가한 가족 공유 여가시간은 미디어 이용으로 나타났으나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과 증가 폭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종교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도 모두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가족 공유 여가시간이 증가하였다. 미디어이용의 경우, 가족공유형태별로 보면 미디어 이용의 경우, 배우자의 공유가

51분으로 평일보다 30분이 증가하여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과 증가 폭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 배우자와의 공유시간이 교제활동과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각각 10분, 10분, 종교활동은 11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과 같이 이러한 배우자와의 공유 여가 활동이 평일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이들 가족과 비교해 볼 때 작지만 증가폭은 크게 나타났다.

<표 4-42> 무미취학자녀, 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시간
(일요일)

(단위 : 시간:분)

	일 요 일					
	가족			배우자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활동	2:02	2:10	1:54	1:39	1:43	1:35
교제활동	0:25	0:27	0:24	0:16	0:16	0:16
일반인의학습	0:00	0:00	0:00	0:00	0:00	0:00
미디어이용	1:15	1:19	1:10	0:51	0:55	0:48
종교활동	0:03	0:03	0:03	0:12	0:12	0:12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03	0:03	0:03	0:03	0:03	0:03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0:13	0:15	0:12	0:14	0:14	0:14
취미및그 외여가활동	0:02	0:03	0:02	0:02	0:02	0:01
교제및여가활동물품구입	0:01	0:01	0:01	0:01	0:01	0:01
기타여가관련행동	0:00	0:00	0:00	0:00	0:00	0:00

나. 가족공유 여가의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

미취학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족의 평일 여가의 가족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보면(<표 4-43>) 응답자의 64%가 어떤 가족공유형태이든지 상관없이 가족과 1시간 8분 여가시간을 공유하였으며 그 중 남자는 60.7%에 1시간 10분, 여자는 67.4%에 1시간 7분 가족과 공유함으로써 여자가 남자보다 가족과 공유하는 비율이 6.7% 높았으나 평균시간은 3분 적게 나타났다. 미취학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족의 가족공유 행위자 비율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과 유사한 수준이나 평균시간의 경우는 21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49.8%에 1시간 5분으로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보다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높았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남자가 50.6%에 1시간 6분, 여자가 48.9%에 1시간 4분으로 배우자와의 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남자가 높았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과 비교해보면 남자는 유사한 행위자 비율을 보이고 여자는 2.4% 높은 행위자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시간의 경우는 남자는 11분 여자는 15분 높았다.

여가 중 미디어 이용의 가족공유 행위자율은 45.8%에 1시간 3분, 교제활동의 행위자율은 33.1%에 32분으로 나타나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보다 미디어 이

용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은 높고 교제활동의 경우는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다소 낮으나 평균시간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과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은 각각 4.3%에 1시간 4분, 1.3%에 45분으로 미디어 이용이나 교제활동보다는 행위자 비율이 많이 떨어지지만 다른 여가활동에 비하여 행위자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네 가지 여가 활동을 제외하고는 다른 여가활동의 가족 공유여가활동의 행위자 비율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인의 학습,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등은 행위자 비율은 낮으나 평균시간이 1시간이 넘는 활동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여가활동에 대한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 경향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과 유사하다.

<표 4-43> 무미취학자녀, 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평일)

(단위 : %, 시간:분)

	평 일											
	가족						배우자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활동	64.0	60.7	67.4	1:08	1:10	1:07	49.8	50.6	48.9	1:05	1:06	1:04
교제활동	33.1	28.4	37.9	0:32	0:32	0:31	21.4	21.9	20.8	0:28	0:29	0:27
일반인의학습	0.2	0.2	0.2	1:51	1:50	1:52	0.2	0.2	0.2	1:53	1:50	1:57
미디어이용	45.8	45.7	45.9	1:03	1:04	1:03	35.6	37.0	34.3	1:00	1:59	1:00
종교활동	1.1	1.0	1.2	0:35	0:36	0:35	1.7	1.6	1.8	0:56	0:48	1:04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2	0.2	0.2	1:18	1:17	1:18	0.2	0.2	0.2	1:16	1:16	1:15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4.3	4.0	4.7	1:04	1:07	1:02	3.9	4.0	3.8	1:11	1:13	1:10
취미및그 외여가활동	1.3	1.3	1.3	0:45	0:48	0:42	1.1	1.2	1.2	0:53	0:52	0:53
교제및여가활동물품구입	0.3	0.2	0.4	0:27	0:25	0:29	0.3	0.3	0.4	0:33	0:33	0:33
기타여가관련행동	0.1	0.1	0.1	0:20	0:20	0:20	0.1	0.1	0.1	0:30	0:30	0:30

일요일 여가의 가족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보면(<표 4-44>) 응답자의 82.5%가 가족과 2시간 28분 여가를 공유해 평일보다 행위자 비율은 18.5% 평균시간은 1시간 10분 높았는데 미취학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족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행위자 비율은 2.1% 낮고 평균시간은 16분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일요일의 가족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남자는 82.5%에 2시간 38분, 여자는 82.9%에 2시간 18분으로 평일에 비해 남자는 21.3%에 1시간 10분, 여자는 15.5%에 1시간 11분 증가해 남자가 행위자 비율의 증가는 더 크나 평균시간은 거의 비슷하나 여자의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미취학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족은 남자가 평일에 비해 행위자 비율이 증가 폭이 여자에 비해 크나 평균시간 증가폭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족의 경우 일요일 가족공유형태별로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70.2%에 2시간 21분으로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에 비해 행위자 비율은 1.9% 평균시간은 28분 높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남자 71.8% 여자 68.6%로 남자가 미미하지만 높았고 미취학자녀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남녀 모두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평균시간을 보면 남자는 2시간 23분 여자는 2시간 18분으로 역시 남자가 다소 높은 시간을 보이는데 미취학자녀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남자는 29분 여자는 22분 높았다. 일요일에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은 미취학자녀가 없는 가족에 비하여 배우자 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중 일요일의 미디어 이용 행위자율과 평균시간은 67.4%에 1시간 50분, 교체활동은 42.3%에 1시간으로 각각 평일보다 21.6%에 47분, 9.2%에 28분 증가해 미디어 이용의 일요일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요일에 여가의 가족공유가 증가하는 것은 미디어 이용의 가족공유 참여 증가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미취학자녀 맞벌이 가족과 비교해 볼 때 평일에 비해 일요일은 미디어 이용 행위자 비율 증가 비율은 적고 교체활동 증가 비율은 크게 나타났다. 평균시간의 경우 미디어이용 증가시간은 같고 교체활동 증가 시간은 적게 나타났다. 가족 공유 행위자 비율 중 남녀의 행위자 비율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활동은 교체 활동으로 나타났는데 여자의 행위자 비율이 6.8% 높게 나타났다.

교체활동의 평균시간도 여자가 16분 적게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교체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다른 여가 활동의 가족공유 행위자 비율은 남녀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평균 시간도 유사한 수준을 보이거나 일반인 학습의 경우 남자는 일요일에 평균시간이 0시간인데 비하여 여자는 40분을 나타내고 있었다.

가족공유형태별로 일요일의 미디어 이용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가 52.6%에 1시간 38분으로 나타나 미취학자녀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행위자 비율은 3.9% 평균시간은 5분 높았다. 가족공유형태별로 교체활동의 일요일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 증가를 보면 배우자와 공유는 9.9%에 23분 평일에 비하여 증가 하였는데 미취학자녀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행위자 비율 증가폭은 2.5% 평균시간 증가폭은 2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공유형태별로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과 종교활동의 일요일의 배우자 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 증가는 각각 9.3%에 31분과 7.4%에 1시간 46분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족의 경우 미디어이용 다음으로 일요일에 종교활동의 평균시간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미취학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족의 경우는 미취학자녀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종교활동의 일요일 평균시간 증가폭이 두드러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미취학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족의 경우도 미취학자녀 맞벌이 가족과 마찬가지로 평일에 비하여 일요일의 여가활동은 남녀 구별 없이 가족 전체와 배우자 공유 행위자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미취학자녀가 없으면서 맞벌이인 가족의 경우 미취학자녀가 있고 맞벌이인 가족에 비해 평일 및 일요일 가족여가가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배우자 여가 공유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지만 미취학자녀가 있으면서 비
 맞벌이인 가족에 비해서는 배우자 공유 여가가 약간 더 적어 배우자의 취업유무가
 배우자와의 여가 공유에 다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 4-44> 무미취학자녀, 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일요일)

(단위 : %, 시간:분)

	일 요 일											
	가족						배우자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활동	82.5	82.0	82.9	2:28	2:38	2:18	70.2	71.8	68.6	2:21	2:23	2:18
교제활동	42.3	38.9	45.7	1:00	1:08	0:52	31.3	32.0	30.7	0:51	0:51	0:51
일반인의학습	0.0	0.0	0.1	0:40	0:00	0:40	0.0	0.0	0.0	1:00	1:00	1:00
미디어이용	67.4	67.9	66.9	1:50	1:56	1:44	52.6	53.7	51.4	1:38	1:42	1:33
종교활동	3.9	3.9	3.9	1:17	1:17	1:18	8.5	8.3	8.7	2:23	2:27	2:20
관람및문화행사참여	2.0	1.9	2.1	2:15	2:11	2:19	2.0	2.1	2.0	2:16	2:10	2:21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14.7	15.4	14.0	1:31	1:36	1:26	13.6	13.6	13.6	1:42	1:41	1:42
취미및그 외여가활동	5.0	5.5	4.6	0:48	0:55	0:39	3.6	3.6	3.6	0:41	0:43	0:40
교제및여가활동물품구입	2.1	2.3	1.8	0:29	0:28	0:30	2.1	2.5	1.7	0:28	0:27	0:29
기타여가관련행동	1.3	1.5	1.1	0:25	0:24	0:27	1.2	1.4	1.1	0:25	0:24	0:27

이 집단의 가족여가는 거의 배우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평일 64% 가
 족여가를 하는데 1시간 8분 사용하고 배우자와의 여가는 49.8%가 공유했는데 그 시
 간이 1시간 5분이다. 미디어 및 교제활동의 가족공유의 행위자 비율 중 약 10% 정
 도는 그 외 가족 및 친척과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그 시간은 주로 배우자
 와 함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활동 외 행위자 비율은 5% 미만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행위자 평균을 살펴보면, 일반인의 학습이 1시간 51분 가량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나 일부 소수 집단에서는 자기계발형 여가를 즐길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관람, 스포츠, 취미 등의 활동도 골고루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요일의 경우 평일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교제활동 및 미디어 이용을 제외하
 고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행위자 비율이 약 10% 증가하였는데 이 역시 배우
 자 공유에 기인한 것이다. 행위자 평균으로는 가족공유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가 2
 시간 15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또한 특징적으로 배우자와의 종교활동 공유가 2시간
 23분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집단에서는 이러한 여가활동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행위자 평균의 경우 미취학자녀가 없는 이 집단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배우자와의 공유 여가가 앞선 두 가족에 비해 가장 많았다. 특히 다른 가족들
 과는 달리 배우자와 평일의 경우 배우자와 학습하는 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일요일

은 종교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 다른 가족이 미디어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비교적 바람직한 여가시간 배분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미취학자녀가 없는 비맞벌이 가족의 여가 공유 실태

가. 가족공유 여가시간

미취학자녀가 없는 비맞벌이 가족의 평일의 가족공유 여가시간을 보면(<표 4-45>) 1시간 7분이다. 가족공유 중 배우자와 공유하는 시간이 48분으로 나타나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족 비하여 가족전체 여가와 배우자와의 공유시간이 각각 11분과 13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 여가활동에 대한 가족공유시간을 보면 미디어 이용이 43분으로 가장 길고 다음이 교제 활동으로 15분,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7분,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이 각각 1분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다른 여가활동은 가족공유시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평일의 가족과의 공유여가 시간의 대부분이 미디어이용과 교제활동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가족과 비교하면 미디어 이용이 8분 정도 길고 다른 여가 활동 공유 시간은 유사거나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공유형태별로 보면 미디어 이용의 경우는 배우자와 공유한 시간이 33분으로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가족의 배우자와의 공유 시간보다 11분,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은 4분 긴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교제활동은 2분 더 적었다. 비맞벌이의 경우, 미취학자녀가 없는 가족은 있는 가족에 비하여 가족공유, 배우자와의 공유 시간이 다소 길게 나타나고 있다.

<표 4-45> 무미취학자녀, 비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시간 (평일)

(단위 : 시간:분)

	평 일					
	가족			배우자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활동	1:07	0:56	1:16	0:48	0:47	0:48
교제활동	0:15	0:09	0:19	0:07	0:07	0:06
일반인의학습	0:00	0:00	0:00	0:00	0:00	0:00
미디어이용	0:43	0:40	0:46	0:33	0:33	0:33
종교활동	0:01	0:00	0:00	0:01	0:01	0:01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01	0:00	0:01	0:00	0:00	0:00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0:07	0:05	0:08	0:06	0:05	0:06
취미및그 외여가활동	0:01	0:01	0:01	0:01	0:01	0:01
교제및여가활동물품구입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여가관련행동	0:00	0:00	0:00	0:00	0:00	0:00

일요일의 가족공유시간(<표 4-46>)은 2시간 25분으로 평일보다 1시간 18분 많아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의 증가정도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가족의 공유시간에 비하여 4분 정도 더 길었다. 가족공유형태별로 평일과 비교해보면 배우자와의 공유가 1시간 56분으로 평일보다 1시간 4분 늘어났는데 이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가족의 배우자와의 공유시간 증가 정도가 같은 것이었다.

일요일의 가족공유시간을 세부적 여가활동에 대한 가족공유시간을 보면 미디어 이용은 1시간 30분으로 평일보다 47분이, 교제활동은 26분으로 17분이,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20분으로 13분이 증가하였다. 평일에 비하여 가장 증가한 가족공유 여가시간은 미디어 이용으로 나타났으나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가족과 증가 폭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일반인의 학습을 제외한 모든 여가활동이 평일에 비해 가족 공유 여가시간이 증가하였다. 가족공유형태별로 보면 미디어 이용의 경우, 배우자의 공유가 1시간 4분으로 평일보다 31분이 증가하였는데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가족의 증가 폭보다는 약간 더 적었다.

일요일 배우자와의 공유시간 중 교제활동과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평일에 비해 각각 10분, 12분, 종교활동은 10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가족과 같이 이러한 배우자와의 공유 여가 활동이 평일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이들 가족과 비교해 볼 때 미디어, 종교활동은 증가폭이 적게, 교제활동 및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크게 나타났다.

<표 4-46> 무미취학자녀, 비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시간 (일요일)

(단위 : 시간:분)

	일 요 일					
	가족			배우자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활동	2:25	2:27	2:24	1:56	2:04	1:49
교제활동	0:26	0:26	0:27	0:17	0:18	0:15
일반인의 학습	0:00	0:00	0:00	0:00	0:00	0:00
미디어이용	1:30	1:31	1:29	1:04	1:08	1:24
종교활동	0:03	0:03	0:03	0:11	0:12	0:11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02	0:02	0:02	0:01	0:02	0:01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0:20	0:20	0:19	0:18	0:19	0:17
취미및그 외여가활동	0:03	0:04	0:03	0:03	0:04	0:03
교제및여가활동물품구입	0:01	0:00	0:01	0:01	0:00	0:01
기타여가관련행동	0:00	0:00	0:00	0:00	0:00	0:00

나. 가족공유 여가의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

평일 여가의 가족공유 행위자 비율을 보면(<표 4-47>) 응답자의 74.4%가 1시간 30분정도 어떤 가족공유형태이든지 상관없이 가족과 여가시간을 공유하였으며 그 중 남자는 67.4%가 1시간 23분, 여자는 80.2%가 1시간 34분 가족과 공유함으로써 여자가 남자보다 가족과 공유하는 비율이 12.8%, 행위자 평균이 11분 많았다. 가족 공유 중 배우자와의 공유비율은 59.5%, 1시간 31분으로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맛별이 가족보다 2.7% 더 높은 행위자 비율과 30분 많은 행위자 평균을 보이고 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남자가 60.4%, 여자가 58.7%로 배우자와의 공유 행위자 비율은 남자가 높았으나 그 시간량은 여자가 더 많았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맛별이 가족에 비해 남녀 모두 더 높은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취학자녀의 보살피기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가 중 미디어 이용의 가족공유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은 54.3%, 1시간 19분이며 교제활동은 39.2%의 사람들이 37분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맛별이 가족과 행위자 비율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미디어 이용에서는 약 12분 정도 차이가 났다.

<표 4-47> 무미취학자녀, 비맛별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평일)

(단위 : %, 시간:분)

	평 일											
	가족						배우자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활동	74.4	67.4	80.2	1:30	1:23	1:34	59.5	60.4	58.7	1:31	1:19	1:22
교제활동	39.2	29.4	47.3	0:37	0:31	0:41	23.0	23.7	22.4	0:28	0:28	0:29
일반인의학습	0.1	0.0	0.1	0:38	0:00	1:38	0.0	0.0	0.0	0:00	0:00	0:00
미디어이용	54.3	51.3	56.8	1:19	1:17	1:20	44.2	45.3	43.2	1:15	1:13	1:17
종교활동	0.9	0.8	1.0	0:58	0:53	1:02	1.2	1.2	1.2	1:28	1:17	1:37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5	0.5	0.6	1:38	1:30	1:44	0.4	0.4	0.4	1:32	1:33	1:31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8.5	7.0	8.7	1:20	1:15	1:13	7.3	6.9	7.6	1:19	1:14	1:23
취미및그 외여가활동	1.9	1.8	2.0	0:52	0:59	0:47	1.5	1.5	1.5	0:52	0:56	0:48
교제및여가활동물품구입	0.5	0.3	0.8	0:32	0:22	0:35	0.2	0.2	0.3	0:25	0:23	0:26
기타여가관련행동	0.4	0.5	0.4	0:26	0:24	0:29	0.5	0.5	0.4	0:27	0:25	0:29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의 경우 8.5%로 대개 1% 미만으로 나온 다른 여가활동이 비해 행위자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1시간 20분정도의 시간을 가족들과 공유하고 있었다. 이 세 여가 활동을 제외하고는 다른 여가활동의 가족 공유 여가활동의 행위자 비율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위자 평균의 경우 관람 및 문화행사가 1시간 38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취학자녀가 있으면

서 비맞벌이인 가족에서도 가장 높게 나온 것과 일치한다. 그러다 행위자 비율은 두 집단 모두 1%가 되지 않는다. 가족공유와 배우자공유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거나 배우자와 종교활동을 공유하는 사람(1.2%)들의 행위자 평균이 1시간 28분으로 나와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활동이 배우자와의 중요한 여가활동이 됨을 알 수 있다.

일요일 여가의 가족공유 행위자 비율을 보면(<표 4-48>) 응답자의 88.1%가 2시간 45분 정도 가족과 여가를 공유하였고 이는 평일보다 13.7% 높았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가족에 비해서는 행위자 비율이 1.6% 적게 나타났지만 행위자 평균은 20분 더 많았다. 성별에 따른 일요일의 가족공유 행위자율을 보면 남자는 86.8%, 여자는 89.1%로 여자의 행위자 비율이 높지만 시간량은 남자가 약 8분정도 더 많았다.

일요일 가족공유형태별로 행위자 비율을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74.8%로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가족에 비해 오히려 3.1% 적게 나타났지만 행위자 평균은 오히려 길어, 같은 비맞벌이라 하더라도 미취학자녀가 있는 집단의 배우자와의 여가는 비율이 다소 높지만 시간량은 오히려 미취학자녀가 없는 가족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는 남자 77.0% 여자 73.0%로 남자가 4% 높았다.

여가 중 일요일의 가족공유 미디어 이용 행위자율은 74.0%, 행위자 평균은 2시간 1분으로 가족들끼리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교제활동의 행위자율은 45.4%이지만 58분 정도 공유하고 있었다.

<표 4-48> 무미취학자녀, 비맞벌이 가족의 가족,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여가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일요일)

(단위 : %, 시간:분)

	일 요 일											
	가족						배우자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여가활동	88.1	86.8	89.1	2:45	2:49	2:41	74.8	77.0	73.0	2:35	2:41	2:30
교제활동	45.4	39.5	50.3	0:58	1:06	0:53	66.8	66.6	66.9	0:50	0:55	0:47
일반인의학습	0.1	0.0	0.2	1:30	0:00	1:30	0.1	0.0	0.2	1:10	0:00	1:10
미디어이용	74.0	73.6	74.4	2:01	2:04	1:59	59.2	60.7	57.9	1:48	1:52	1:46
종교활동	3.2	2.9	3.5	1:39	1:42	1:37	9.4	9.3	9.5	2:00	2:05	1:56
관람및문화행사참여	1.9	1.7	2.1	1:48	1:56	1:44	1.3	1.5	1.1	1:54	1:55	1:53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18.9	18.8	19.1	1:44	1:46	1:42	16.8	18.1	15.8	1:47	1:47	1:48
취미및그 외여가활동	6.0	7.2	5.0	0:54	0:56	0:53	5.8	7.2	4.6	0:56	0:57	0:54
교제및여가활동물품구입	1.3	1.1	1.5	0:36	0:36	0:36	1.5	1.3	1.6	0:33	0:33	0:33
기타여가관련행동	1.3	1.3	1.3	0:23	0:19	0:25	1.2	1.1	1.3	0:23	0:21	0:25

다음으로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을 공유하는 비율은 18.9%로 1시간 44분정

도 가족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었으며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종교활동의 행위자 비율은 낮지만 시간량은 약 1시간 40분대를 나타내고 있었다. 미취학자녀가 있고 비맞벌이 가족과 비교하면 미디어, 교제활동은 비슷하나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의 행위자 비율이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공유형태별로 일요일의 미디어 이용의 행위자율을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가 59.2%로 평균 1시간 48분 정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가족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미취학자녀가 없는 비맞벌이 가족의 경우 배우자와의 공유 여가활동 행위자 비율이 교제활동, 미디어,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순으로 나타나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족과는 행위자 비율에서 다른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 가족의 일요일 배우자와의 교제활동 행위자 비율이 일요일 큰 폭(44.8%)로 상승했다. 행위자 평균으로 살펴보면 종교활동이 2시간으로 가장 많은 시간량을 보였다.

정리하면 이 집단의 가족여가 공유실태를 보면 앞선 3집단에 비해 평일 및 일요일 가장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약 20분가량 그 외 가족 및 친척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미디어 이용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절대적인 시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를 균형있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취학자녀도 없고 맞벌이도 아닌 이 집단의 평일 가족여가 및 배우자 여가 행위자 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요일의 경우는 미비하지만 오히려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집단에 비해 적어 요일에 따라서도 미취학자녀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일요일의 경우 다른 집단별, 여가활동에 비해 특징적인 것은 배우자와의 교제활동 행위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약 3배)하였는데 이는 미디어 이용보다 앞선 것으로 주말을 이용해 부부끼리 교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위자 평균 역시 다른 3집단에 비해 가장 많은 시간을 보여 평일 배우자와는 1시간 반, 일요일은 2시간 반가량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특징적인 것은 미디어 이용뿐만 아니라 스포츠, 관람, 종교활동에도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일요일 배우자와의 종교활동이 2시간 가량으로 높게 나타났다.

2) 가족여가 공유 여부별 집단 간 특성의 차이

(1) 가족여가 공유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가족여가를 공유하는 집단과 공유하지 않는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평일의 경우(<표 4-49>) 미취학자녀 존재유무, 성역할태도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4-49> 가족여가 공유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평균)

(단위 : 빈도(%), 평균(표준편차))

변수	구분	전체			X ² t
		공유	비공유		
성별	남자	3,209(63.5)	1,841(36.5)	5,050(100.0)	112.993***
	여자	4,273(73.0)	1,579(27.0)	5,852(100.0)	
연령	20-29세	390(76.6)	119(23.4)	509(100.0)	56.427***
	30-39세	2,348(72.1)	907(27.9)	3,255(100.0)	
	40-49세	2,894(65.3)	1,537(34.7)	4,431(100.0)	
	50-59세	1,850(68.3)	857(31.7)	2,707(100.0)	
교육수준	중졸	1,227(68.6)	562(31.4)	1,789(100.0)	9.592*
	고졸	3,662(69.1)	1,639(30.9)	5,301(100.0)	
	전문대 및 대졸	2,377(68.7)	1,082(31.3)	3,459(100.0)	
	대학원졸	216(61.2)	137(38.8)	353(100.0)	
경제활동여부	함	5,142(64.2)	2,865(35.8)	8,007(100.0)	272.478***
	하지 않음	2,340(80.8)	555(19.2)	2,895(100.0)	
직업	관리자·전문가	1,060(62.2)	643(37.8)	1,703(100.0)	282.677***
	사무직	895(66.8)	444(33.2)	1,339(100.0)	
	서비스·판매직	1,270(62.9)	750(37.1)	2,020(100.0)	
	농림·기능원·장치·단순노무직	1,906(65.1)	1,024(34.9)	2,930(100.0)	
	해당 없음	2,351(80.8)	559(19.2)	2,910(100.0)	
노동시간	없음	2,339(80.9)	554(19.1)	2,893(100.0)	311.423***
	하	1,753(68.3)	814(31.7)	2,567(100.0)	
	중	1,950(64.0)	1,098(36.0)	3,048(100.0)	
	상	1,440(60.2)	954(39.8)	2,394(100.0)	
개인 월평균소득	없음	2,256(81.4)	516(18.6)	2,772(100.0)	292.747***
	100만원 미만	1,233(66.9)	611(33.1)	1,844(100.0)	
	100~200만원 미만	1,723(63.6)	984(36.4)	2,707(100.0)	
	200~300만원 미만	1,236(65.0)	667(35.0)	1,903(100.0)	
	300만원 이상	1,034(61.7)	642(38.3)	1,676(100)	
주휴제도	일주일에 하루	1,597(64.0)	898(36.0)	2,495(100.0)	273.248***
	토요 격주, 주2일	2,084(64.3)	1,158(35.7)	3,242(100.0)	
	기타(매2주 하루, 수시, 기타)	1,462(64.3)	810(35.7)	2,272(100.0)	
	해당 없음	2,339(80.9)	554(19.1)	2,893(100.0)	
배우자유무	있음	7,175(69.3)	3,184(30.7)	10,359(100.0)	38.810***
	없음(사별, 이혼)	307(56.5)	236(43.5)	543(100.0)	
미취학자녀 존재유무	있음	1,848(70.1)	787(29.9)	2,635(100.0)	3.647
	없음	5,634(68.2)	2,633(31.8)	8,267(100.0)	
맞벌이여부	맞벌이	3,296(63.4)	1,899(36.6)	5,195(100.0)	123.874***
	비맞벌이	4,186(73.3)	1,521(26.7)	5,707(100.0)	
성역할 태도	연속변수	2.6(0.7)	2.6(0.7)	2.6(0.7)	1.487
시간부족감 정도	연속변수	3.0(0.8)	3.2(0.8)	3.1(0.8)	8.680***
업무 피곤함 정도	연속변수	3.3(0.7)	3.4(0.7)	3.4(0.7)	3.950***
생활시간만족도	연속변수	3.2(0.8)	3.1(0.7)	3.2(0.8)	-3.669***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73.0%, 남자가 63.5%로 여자가 더 많은 가족여가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자보다는 노동시간이 짧고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남자에 비해 더 길기 때문이다. 연령에 따라서는 가족여가 공유여부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65% 이상) 20~29세, 30~39세, 50~59세, 40~49세 순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더 많은 가족여가를 공유함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 및 대졸 집단이 비슷한 공유수준(68.6~69.1%)을 보였고 대학원졸 이상이 약 7% 낮은 공유수준(61.2%)을 보였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64.2%가 가족여가를 공유한 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80.0%의 높은 가족여가 공유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수입노동의 중단으로 절대적인 여가 시간량의 증대와 부부 및 가족시간의 증대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직업에 따라서는 사무직 집단에서 가장 높은 공유수준(66.8%)을, 관리자 및 전문가 집단에서 가장 낮은 공유수준(62.2%)을 보였다. 노동시간에 따라서는 해당 없는 집단 즉, 노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공유수준이 가장 높았으며(80.9%) 이를 제외하고는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집단의 공유수준이 적어져 수입노동 시간과 가족여가 공유여부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 월평균소득에 따라서는 3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낮은 공유수준(61.7%)을, 1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가장 높은 공유수준(66.9%)을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월평균소득은 직업, 노동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는 점과, 특히 앞서 밝혀진 관리자 및 전문가 집단의 낮은 가족여가 공유수준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즉, 월평균 소득이 높다고 알려진 관리자, 전문가 집단에서 낮은 가족여가 공유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주휴제도에 따라서는 모든 집단에서 비슷한 공유 수준(64% 정도)을 보였다.

배우자 유무에 상관없이 가족여가 비공유 집단에 비해 공유집단이 더 많으며,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 비해 약 10% 정도 더 많은 공유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사별 또는 이혼으로 인해 가족원의 상실, 해체 등으로 절대적인 가족원 수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취학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가족여가 공유집단이 더 많았는데 미취학자녀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약 2% 정도 더 높은 공유수준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상으로만 비교해보았을 때 미취학자녀가 없는 집단도 비교적 높은 공유수준(68.2%)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가족여가 공유여부 정도가 비단 미취학자녀 존재 유무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그 외 친척과도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맞벌이건 비맞벌이건 가족공유 집단이 더 많았으며 특히 비맞벌이의 경우 73.3%로 맞벌이 63.4%의 공유수준에 비해 약 10%정도 더 많이 공유하는 것으로 이 역시 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시간량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심리적 변수 중 가족여가 비공유 집단이 더 많은 주관적 시간부족감(3.2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간, 주휴제도 등이 가족여가 공유여부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족여가 비공유 집단에서 업무 피곤함을 더 많이 느끼

는 것으로 밝혀져 우리나라 노동자의 실적위주의 평가, 이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 등에 기인할 것으로 볼 수 있어 노동환경의 변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반대로, 가족여가를 공유하는 집단의 생활시간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3.2 점)으로 나타나 평일의 생활시간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가족여가를 공유할 수 있는 노동정책, 가족정책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2) 가족여가 공유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일요일의 가족여가 공유 및 비공유 집단 간 차이(<표 4-50>)는 성별, 성역할태도, 시간부족감 정도, 생활시간만족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약 85%가 가족여가를 공유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남자의 경우 평일의 63.5%에 비해 20% 넘는 공유수준을 보여 전술한 바와 같이 남자의 일요일 수입노동시간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평일과 비슷하게, 연령이 증가하는 집단에서 더 낮은 공유수준을, 반대로 20-29세의 경우 90%가 넘는 높은 공유수준을 보여 연령별로 가족여가 공유수준에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평일에 비해 일요일이 더 많은 공유수준을 보였는데 특히 전문대 및 대졸 집단이 89.8%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이하, 대학원졸, 중졸이하 순으로 평일 대학원졸 이상이 가장 낮은 공유수준을 보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교육수준과 산업 및 직종, 노동시간이 무관하지 않아 예를 들면,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이 길고 주휴제도가 일반 사무직에 비해 적거나 덜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말에도 수입노동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평일 가족여가 공유 정도는 64.2%임에 반해 일요일의 경우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여 83.6%가 가족여가 공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자들의 일요일 휴무 여부가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직업에 따라서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사무직군에서 91.9%로 높은 공유수준을 보인 반면, 서비스 및 판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가장 낮은 (78.2%) 가족여가 공유수준을 보였다. 이는 직업에 따른 여가불평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여가시간이 증가하였지만 여가관련 산업에 종사하거나 일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오히려 노동시간이 증가하였거나 휴일근무를 함으로 인해 절대적인 여가시간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평일과 동일하게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집단에서의 가족여가 공유 수준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인 월평균소득에 따라서는 평일 제일 적은 수준을 보였던 3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공유수준(88.5%)을 보였으며 200-3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순으로 200만원 이상인 집단의 가족여가 공유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요일 가족공유 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인 집단과, 사무직,

<표 4-50> 가족여가 공유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일요일)

(단위 : 빈도(%), 평균(표준편차))

변수	구분			전체	X ² t
		공유	비공유		
성별	남자	1,464(84.5)	269(15.5)	1,733(100.0)	1.000
	여자	1,695(85.6)	284(14.4)	1,979(100.0)	
연령	20-29세	176(91.2)	17(8.8)	193(100.0)	27.984***
	30-39세	1,001(88.2)	134(11.8)	1,135(100.0)	
	40-49세	1,228(84.6)	223(15.4)	1,451(100.0)	
	50-59세	754(80.8)	179(19.2)	933(100.0)	
교육수준	중졸	461(78.3)	128(21.7)	589(100.0)	43.086***
	고졸	1,545(84.4)	286(15.6)	1,831(100.0)	
	전문대 및 대졸	1,056(89.8)	120(10.2)	1,176(100.0)	
	대학원졸	97(83.6)	19(16.4)	116(100.0)	
경제활동여부	합	2,312(83.6)	452(16.4)	2,764(100.0)	18.084***
	하지 않음	847(89.3)	101(10.7)	948(100.0)	
직업	관리자·전문가	521(88.0)	71(12.0)	592(100.0)	72.288***
	사무직	410(91.9)	36(8.1)	446(100.0)	
	서비스·판매직	567(78.2)	158(21.8)	725(100.0)	
	농림·기능원·장치·단순노무직	814(81.3)	187(18.7)	1,001(100.0)	
	해당 없음	847(89.3)	101(10.7)	948(100.0)	
노동시간	없음	846(89.3)	101(10.7)	947(100.0)	30.821***
	하	741(86.3)	118(13.7)	859(100.0)	
	중	900(84.3)	168(15.7)	1,068(100.0)	
	상	672(80.2)	166(19.8)	838(100.0)	
개인 월평균소득	없음	804(89.2)	97(10.8)	901(100.0)	35.572***
	100만원 미만	510(81.5)	116(18.5)	626(100.0)	
	100~200만원 미만	773(81.2)	179(18.8)	952(100.0)	
	200~300만원 미만	562(85.5)	95(14.5)	657(100.0)	
	300만원 이상	510(88.5)	66(11.5)	576(100.0)	
주휴제도	일주일에 하루	727(85.6)	122(14.4)	849(100.0)	69.020***
	토요 격주, 주2일	984(87.5)	141(12.5)	1,125(100.0)	
	기타(매2주 하루, 수시, 기타)	602(76.1)	189(23.9)	791(100.0)	
	해당 없음	846(89.3)	101(10.7)	947(100.0)	
배우자유무	있음	3,057(86.1)	492(13.9)	3,549(100.0)	68.232***
	없음(사별, 이혼)	102(62.6)	61(37.4)	163(100.0)	
미취학자녀 존재유무	있음	752(87.6)	106(12.4)	858(100.0)	5.694*
	없음	2,407(84.3)	447(15.7)	2,854(100.0)	
맞벌이여부	맞벌이	1,522(83.2)	308(16.8)	1,830(100.0)	10.637**
	비맞벌이	1,637(87.0)	245(13.0)	1,882(100.0)	
성역할 태도	연속변수	2.6(0.7)	2.6(0.7)	2.6(0.7)	0.434
시간부족감 정도	연속변수	3.1(0.8)	3.0(0.9)	3.1(0.9)	1.842
업무 피곤함 정도	연속변수	3.3(0.7)	3.4(0.7)	3.4(0.7)	3.053*
생활시간만족도	연속변수	3.1(0.8)	3.1(0.8)	3.1(0.8)	-0.450

관리자 및 전문가 집단에서 높게 나온 것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것으로 알려진 사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집단의 경우 평균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지며 교육효과로 인한 가정 내 역할의 중요성, 가족관계에 대한 높은 요구에 기인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주휴제도에 따라서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나 토요일 격주로 쉬는(2주에 3일 쉼),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사집단을 제외한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은 공유수준을 보였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에 이틀 또는 하루, 토요일 격주로 쉬는 안정적인 주휴제도 내의 사람들은 일요일 가족여가 공유를 더 많이 하며, 2주에 하루만 쉬거나 수시로 쉬는 불안정한 주휴제도 내의 사람들의 가족여가 공유수준이 낮아 가족여가 공유를 위해 주휴제도 역시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일요일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약 23% 더 높은 공유수준을 보였으며 미취학자녀가 있는 집단이 더 많은 공유수준을 보였으나 약 3.3% 차이로 미취학자녀가 없는 집단에서도 비교적 높은(84.3%) 공유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평일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공유수준이 69.3%에서 일요일 86.1%로 크게 증가하고, 평일 미취학자녀가 없는 집단의 공유수준이 68.2%에서 일요일 84.3%로 증가한 것을 볼 때 일요일 가족여가 공유 여부에 미취학자녀 효과보다는 배우자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비맞벌이 집단의 공유수준이 더 높았으나 그 증가폭은 평일 맞벌이가 약 20% 증가한 것에 비해 약 14%로 더 적게 증가하여, 시간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비맞벌이에 비해 맞벌이인 경우가 일요일 가족여가 공유수준이 더 높았다.

시간부족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공유하는 집단이 오히려 더 부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평일의 비공유 집단이 더 많은 시간부족감을 느낀다는 결과와는 대조적이다. 이는 일요일에도 여전히 긴 노동시간을 갖고 있다는 대상의 특징과도 연결시켜 생각해볼 수 있지만 비공유 집단에서 더 긴 노동시간을 보이고, 공유집단에서 시간부족감을 더 느낀다는 것으로 보아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의 경우 절대적인 시간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시간부족감은 더 높을 수도 있다고 본다. 업무피곤함은 평일과 동일하게 비공유 집단이 더 높은 피곤함을 보였으며, 생활시간만족도는 집단 간 별 차이가 없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정리하면 가족여가를 공유하는 집단과 공유하지 않는 집단은 요일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평일은 주로 젊은 연령층,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더 많은 공유를 보여 이는 여성의 성역할 분담, 남자보다는 짧은 노동시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원졸 이상이 다소 낮은 공유수준을 보였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여가시간량의 증대로 가족여가 공유를 더 많이 하였으며 비교적 출퇴근이 일정한 사무직 집단에서 가장 높은 공유 수준을 보였다.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집단의 가족여가 공유 수준이 낮게 나타나 아무래도 가족여가를 공유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집단

에서 가장 낮은 공유 수준을 보여 관리자 및 전문가 고소득 집단의 가족여가 공유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더 많은 공유수준을 보였으며 맞벌이 집단이 비맞벌이 집단에 비해 더 낮은 공유수준을 보인 것은 절대적인 시간량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여가 비공유집단에서 시간부족감과 업무 피곤함을 더 많이 느껴 노동시간, 주휴제도, 업무의 부담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한편 가족여가를 공유하는 집단의 생활시간만족도가 더 높았다.

일요일의 경우 평일과 마찬가지로 젊은 연령층의 가족여가 공유가 더 많았으며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평일 대학원졸 이상이 낮은 공유수준을 보인 것과는 달리 중졸이하 집단이 가장 낮은 공유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교육수준과 산업 및 직종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족여가 공유수준이 높았으며 직업에 따라서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높게 나왔으며 평일 관리자 및 전문가 집단의 낮은 공유 수준과는 달리 이들 집단의 공유수준도 높게 나왔다. 반면, 서비스 판매직이 가장 낮은 공유수준을 보이고 평일의 직업 집단 간 공유수준의 차이에 비해 그 차이가 더 커 직업에 따른 일요일 가족여가 불평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노동시간에 따라서는 평일과 비슷하게 노동시간이 적은 사람들의 가족여가 공유 비율이 더 높았으며 월평균소득이 아예 없는 즉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200만원 미만인 집단의 가족여가 공유수준이 가장 낮았고 가장 적게 쉬거나 수시로 쉬는 집단의 공유수준 역시 가장 낮게 나왔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평일과 동일하게 있는 경우가 공유수준이 높았으며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인 경우 가족여가 공유수준이 높았다.

평일과 동일하게 가족여가 비공유 집단에서의 업무피곤함이 미비하지만 더 높았다.

3) 가족여가 공유 여부를 결정짓는 영향요인

(1) 가족여가 공유 결정요인

<표 4-51> 가족여가 공유 결정요인

변 인	구 분	가족여가 공유 전체			
		평 일		일 요 일	
상수항		0.444*	0.175	0.821*	0.395
성별	여자	0.132*	0.058	0.084	0.126

(기준:남자)					
연령 (기준:20-29세)	30-39세	-0.083	0.114	-0.293	0.273
	40-49세	-0.406**	0.119	-0.569*	0.280
	50-59세	-0.352**	0.126	-0.788**	0.292
교육수준 (기준:고졸)	중졸	0.015	0.066	-0.165	0.135
	전문대 및 대졸	-0.018	0.051	0.343**	0.123
	대학원이상	-0.222	0.120	-0.269	0.274
노동시간 (기준:중)	없음	0.288**	0.100	0.308	0.221
	하	0.147*	0.059	0.201	0.135
	상	-0.164**	0.057	-0.196	0.124
개인 월평균소득 (기준:100~200만원 미만)	없음	0.438***	0.098	0.124	0.214
	100만원 미만	0.032	0.070	0.056	0.147
	200~300만원 미만	0.067	0.066	0.210	0.146
	300만원 이상	-0.048	0.071	0.471**	0.171
배우자유무 (기준:없음)	있음	0.509***	0.095	1.183***	0.187
미취학자녀 존재 여부 (기준:있음)	없음	0.198**	0.064	0.288	0.150
맞벌이 여부 (기준:비맞벌이)	맞벌이	-0.210***	0.054	-0.239	0.124
성역할태도	연속변수	-0.051	0.033	-0.024	0.074
N		10902		3712	
-2 log likelihood		13113.362		2989.944	
Chi-Square		449.429***		135.035***	
Degree of freedom		18		18	

배우자, 미취학자녀, 그 외 가족 및 친척과의 가족여가 공유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분석이 사용되었다(<표 4-51>).

평일의 경우 교육수준, 성역할태도, 일요일의 경우 성별, 노동시간, 미취학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평일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앞선 카이 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연령은 2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대와 50대 모두 평일 및 일요일 가족여가 공유를 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나이대에는 20대에 비해 수입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가족 전체의 여가공유 결과는 아니더라도 남편의 연령이 젊을수록 주당 부부의 총 공유여가 시간이 증가한 이기영외 2인(1995)의 연구와 연령과 부부간 여가 공유가 부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Barnett-Verzat et. al.(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평일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일요일은 고졸이하 집단에 비해 전문대 및 대졸 집단에서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 고졸 이하 집단에 비해 전문대 및 대졸집단이 주휴제도가 잘 마련된 안정적인 직군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남편 혹은 부인의 교육수준이 부부간 여가 공유나 부모 자녀 간 여가 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선행연구(이기영외 2인, 1995; 이승미·이기영, 1998; Barnet-Verzat et. al.(2007); Roeters & Treas, 2010; Yeung et al, 2001)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노동시간에 따라서는 평일 중간정도의 노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노동을 하지 않거나 중간보다 적게 하는 집단에서는 가족여가를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반대로 노동시간이 높은 집단에서는 평일 가족여가를 즐길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어 노동시간이 가족여가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편 혹은 부인의 주당 노동시간이 부부간 여가 공유나 부모 자녀간 여가 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선행연구(Barnet-Verzat et. al.(2007); Bryant & Zick, 1996; Kingston& Knock, 1987; Roeters & Treas, 2010; Yeung et al, 2001)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월평균소득에 따라서는 100~200만원인 집단에 비해 소득이 없는 집단의 평일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이, 300만원 이상인 집단의 일요일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남편 혹은 부인의 소득이 부부간 여가 공유나 부모 자녀 간 여가 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선행연구(이승미·이기영, 1998; Roeters & Treas, 2010; Yeung et al, 2001)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평일과 일요일 모두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 비해 있는 집단의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 평일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는 미취학자녀의 존재로 인해 여가보다는 자녀 보살피기, 가사노동 등 다른 영역에서의 업무수행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집단의 평일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이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여자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자녀교육비 증가로 더 이상 맞벌이가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 맞벌이 집단의 가족여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동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부부의 취업여부가 부부간 여가 공유나 부모 자녀간 여가 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선행연구(이기영외 2인, 1995; 이승미·이기영, 1998; Barnet-Verzat et. al.(2007); Roeters & Treas, 2010)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평일 여자의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이 남자에 비해 높은 것은 남자의 취업에 비해 여자의 취업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일과 일요일 모두 20대 집단에 비해 40~50대 집단의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이 낮았는데 이는 이 나이의 수입노동으로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젊은 층에서의 가족여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졸이하 집단에 비해 일요일 전문대 및 대졸이상의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 이는 보다 안정적인 복지제도, 주휴제도

를 실시하는 회사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평일 노동시간이 중간정도인 집단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노동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은 가족여가를 공유할 가능성이 더 큰 반면, 중간보다 많은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은 낮게 나타나 노동시간이 절대적인 여가시간을 결정하므로 노동시간 역시 중요한 변수로 보여진다. 100~200만원의 월평균 소득을 갖는 집단에 비해 없는 사람들의 평일 가족여가 가능성이 높았으며 일요일의 경우 오히려 3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 가족여가 가능성이 더 높았다. 평일 일요일 모두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 비해 있는 집단의 가족여가 가능성이 높았으며 미취학자녀가 없는 가족이 평일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이 더 높았고 마찬가지로 비맞벌이 집단의 평일 가족여가 가능성이 더 높았다.

4. 가족공유시간 유형

1) 가족식사, 가족공유 가사노동, 가족여가 시간을 축으로 한 가족공유시간의 유형화

분석대상 일지 14,614개의 가족식사, 가족공유 가사노동, 가족여가 시간의 점수분포를 <표 4-52>에 제시하였다. 평일의 경우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평균시간은 약 35분이며 중앙값으로 보면 30분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함께 하는 가사노동시간의 경우 다수의 응답자가 10분으로 답하였는데 일평균 값은 약 52분이며, 표준편차

<표 4-52> 가족식사, 가족공유 가사노동 및 가족여가 시간의 기초통계량³⁾

(단위: 분)

요일	변수	전체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분포 (중앙값)
평일	가족식사	10,902	35.27	28.28	30.00
	가사노동	10,902	52.44	93.02	10.00
	가족여가	10,902	52.92	61.21	40.00
일요일	가족식사	3,712	61.38	37.93	60.00
	가사노동	3,712	67.57	93.91	30.00
	가족여가	3,712	127.51	110.66	110.00

3) 일부 수치가 앞의 실태분석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점은 가중치 적용과 관련이 있다. 실태분석에서는 일반화를 위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나 유형화 분석에서는 군집분석을 위한 기초통계량³⁾이므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는 93분으로 평균값을 훨씬 상회한다. 이러한 수치들로 볼 때, 가족이 함께 하는 가사노동시간에서의 편차는 개인별로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일평균 가족여가시간은 약 53분이며 중앙값은 40분이다. 평일의 가족공유시간 중 가족여가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이 각각 50분대로 유사하게 많고 이 두 가지 활동시간이 가족공유시간 전체의 74.9%로서 약 3/4을 차지한다.

일요일의 경우 가족식사시간은 평균 61분이고 중앙값은 60분을 나타내 다수가 1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족식사에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을 함께 하는 시간은 평균 68분 정도인데 중앙값은 30분, 표준편차가 94분을 나타내 평일과 마찬가지로 일요일에도 가족이 함께 하는 가사노동시간에서의 편차가 큰 점을 알 수 있다. 일요일의 가족여가시간 평균은 128분으로 평일에 비해 2.4배 많은 시간을 보인다. 식사나 가사노동을 함께 하는 평균시간이 1시간대인데 비하여 여가시간은 2시간대를 나타내어 일요일에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의 반 정도(49.7%)가 여가인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초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자의 가족공유시간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가족식사시간,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 가족여가시간의 세 차원을 기준으로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표 4-53>과 같은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고,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54> 참조).

군집분석의 경우 각 방법에 따라 군집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군집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 군집의 성향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적정 군집의 수 2~5 범위 안에서 4개의 군집으로 유형화 시켜본 결과 <표 4-5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평일을 보면 유형1은 각 영역별 평균점수를 <표 4-52>에서 제시된 평균점수와 비교해 보면, 가족식사시간, 가사노동시간, 가족여가시간 모두 평균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나타내었다. 이것을 점수부호로 나타내면 “- - -”로 표시할 수 있다.

<표 4-53> 가족공유시간 유형별 빈도 및 표준화점수

요일	유형	빈도수	가족식사	가사노동	가족여가	점수부호
평일	1	6,848	27.43	14.93	23.33	- - -
	2	2,158	47.48	23.81	140.57	+ - +
	3	483	49.46	376.00	62.38	+ + +
	4	1,413	49.77	167.37	59.21	+ + +
일요일	1	497	80.42	260.93	102.64	+ + -
	2	1,623	41.18	20.53	41.86	- - -
	3	1,052	74.41	55.40	168.07	+ - +
	4	540	79.15	54.70	328.78	+ - +

전체 분석대상표본 10,902개 가운데 62.8%에 속하는 6,848개가 속하는 이 유형을 “비가족공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유형의 가족공유시간은 평균 1시간 6분이다.

유형2는 가족식사시간과 가족여가시간은 평균보다 많은 반면 가족과 함께 하는 가사노동시간은 평균보다 적은 “+ - +”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족식사시간이 약 47분으로 유형1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다른 두 유형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데 비해 가족여가가 약 141분으로 다른 어떤 유형보다 특별히 많은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이 유형은 “가족여가우위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3과 유형4는 가족식사시간, 가사노동시간, 가족여가시간 각각이 평균값보다 많은 공통점을 보인다. 따라서 점수부호로 보면 모두 “+ + +”로 표시할 수 있으나 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형3은 가족과 함께 하는 가사노동시간이 다른 유형들보다 특히 많은 특징이 있으므로 “가사노동우위형”으로 부르고 유형4는 가족식사시간, 가사노동시간, 가족여가시간 모두 전반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이므로 “가족공유형”으로 부를 수 있다. 이 유형의 가족공유시간은 평균 8시간 8분으로 다른 유형보다 특히 많다.

일요일의 경우 유형1은 가족식사 및 가사노동 시간이 평균보다 많은데 비해 가족여가시간은 평균보다 적은 값으로 “+ + -”의 부호를 보였다. 가족식사의 경우 유형2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지만 가사노동의 경우 이 유형만 +값은 보이며, 그 차이도 매우 큰 261분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을 “가사노동우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유형2는 <표 4-52>에서 제시된 평균점수와 비교해 볼 때 세 영역의 평균시간이 모두 전체평균보다 적은 시간을 보인다. 점수부호로 나타내면 “- - -”로서 평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가족공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분석대상자 전체 3,712명 가운데 43.7%가 이 유형에 속하는데 평일과 마찬가지로 이 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가족공유시간은 1시간 44분이다. 다만 비가족공유형의 비율이 62.8%인 평일과 비교하면 일요일에는 평일보다 3할 정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유형3과 유형4는 가족식사와 가족여가 영역에서는 평균보다 많은 시간을 보이는 반면 가사노동 영역에서는 평균보다 적은 시간을 보이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 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유형4의 가족여가시간이 유형3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은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유형4는 “가족여가우위형”으로 명명하고, 유형3의 경우 비록 가사노동시간이 평균시간보다는 적지만, 유형1 다음으로 많은 점을 고려하여 “가족공유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4-54>는 4개의 유형을 각 활동영역 변수들에 대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요일별로 나누어 각 변수에 대해 군집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두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어떤 유형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모수적 사후비교 방법인 Scheffé의 방법론을 사용한 결과도 함께 표시하였다.

평일의 경우 가족식사는 비가족공유형만 다른 유형에 비해 적은 차이점이 있으

<표 4-54> 가족공유시간 유형별 세 차원점수의 분산분석 및 사후분석 결과
(단위: 분)

요일	변수	유형	평균		표준편차	F
평일	가족식사	비가족공유형	27.43	a	24.95	544.70***
		가족여가우위형	47.48	b	28.03	
		가사노동우위형	49.46	b	32.96	
		가족공유형	49.77	b	27.91	
	가사노동	비가족공유형	14.93	a	24.11	21402.45***
		가족여가우위형	23.81	b	33.07	
		가사노동우위형	376.00	d	87.98	
		가족공유형	167.37	c	50.60	
	가족여가	비가족공유형	23.33	a	26.37	4532.36***
		가족여가우위형	140.57	b	60.26	
		가사노동우위형	62.38	ab	58.00	
		가족공유형	59.21	ab	52.95	
일요일	가족식사	가사노동우위형	80.42	c	33.33	355.155***
		비가족공유형	41.18	a	34.59	
		가족공유형	74.41	b	32.90	
		가족여가우위형	79.15	bc	30.98	
	가사노동	가사노동우위형	260.93	c	86.11	2688.203***
		비가족공유형	20.53	a	34.09	
		가족공유형	55.40	b	53.82	
		가족여가우위형	54.70	b	56.16	
	가족여가	가사노동우위형	102.64	b	71.58	4599.320***
		비가족공유형	41.86	a	37.67	
		가족공유형	168.07	c	43.03	
		가족여가우위형	328.78	d	72.55	

며, 가사노동은 네 유형이 모두 차이를 보이고, 가족여가의 경우 비가족공유형과 가족여가우위형이 차이를 보인다.

일요일의 경우에는 가족식사에서 가사노동우위형, 비가족공유형, 가족공유형이 각각 다른 차이를 보이나 가족여가우위형의 경우 비가족공유형과만 차이를 보인다. 가사노동에서는 가족공유형과 가족여가우위형은 서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이들 두 유형과 다른 두 유형들은 서로 차이를 보인다. 가족여가는 집단별로 모두 차이를 나타낸다.

2) 유형별 특성

평일 및 일요일에 각각 네 가지 가족공유시간의 유형을 파악한 다음 요일별로 각 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평일을 보면 <표 4-55>와 같다.

성에 따른 유형분포를 보면 남성의 약 3/4(73.7%)이 비가족공유형에 속하고 1/5(20.2%)은 가족여가우위형에 속하며, 그 외 5%가 가족공유형에 속하며 1.1%만

<표 4-55> 평일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빈도(%)

변수	구분	비 가족공유형	가족여가 우위형	가사노동 우위형	가족공유형	χ^2, F (Scheffe)
성별	남성	3,720(73.7)	1,018(20.2)	57(1.1)	255(5.0)	862.728***
	여성	3,128(53.5)	1,140(19.5)	426(7.3)	1,158(19.8)	
연령	20-29세	200(39.3)	86(16.9)	90(17.7)	133(26.1)	1629.942***
	30-39세	1,667(51.2)	451(13.9)	312(9.6)	825(25.3)	
	40-49세	3,191(72.0)	843(19.0)	57(1.3)	340(7.7)	
	50-59세	1,790(66.1)	778(28.7)	24(0.9)	115(4.2)	
교육수준	중졸	1,180(66.0)	487(27.2)	21(1.2)	101(5.6)	286.255***
	고졸	3,335(62.9)	1,061(20.0)	202(3.8)	703(13.3)	
	전문대 및 대졸	2,096(60.6)	560(16.2)	240(6.9)	563(16.3)	
	대학원	237(67.1)	50(14.2)	20(5.7)	46(13.0)	
노동시간	상	1913(79.9)	354(14.8)	12(0.5)	115(4.8)	2000.537***
	중	2,263(74.2)	544(17.8)	34(1.1)	207(6.8)	
	하	1,667(64.9)	530(20.6)	40(1.6)	330(12.9)	
	없음	1005(34.7)	730(25.2)	397(13.7)	761(26.3)	
	평균(표준편차)	51.7(16.6)	47.7(16.1)	41.7(16.5)	41.9(18.3)	87.646*** c b a a
월평균소득	없음	1,002(36.1)	665(24.0)	384(13.9)	721(26.0)	1767.875***
	1~100만원 미만	1,184(64.2)	379(20.6)	32(1.7)	249(13.5)	
	100~200만원 미만	1,977(73.0)	483(17.8)	30(1.1)	217(8.0)	
	200~300만원 미만	1,437(75.5)	332(17.4)	21(1.1)	113(5.9)	
	300만원 이상	1,248(74.5)	299(17.8)	16(1.0)	1123(6.7)	
미취학자녀 존재유무	있음	1,154(43.8)	265(10.1)	411(15.6)	805(30.6)	2174.169***
	없음	5,694(68.9)	1,893(22.9)	72(0.9)	608(7.4)	
맞벌이여부	맞벌이	3,830(73.7)	850(16.4)	48(0.9)	467(9.0)	643.318***
	비맞벌이	3,018(52.9)	1,308(22.9)	435(7.6)	946(16.6)	
성역할태도	평균(표준편차)	2.6(0.7)	2.5(0.6)	2.7(0.6)	2.7(0.7)	13.216*** a a c bc

이 가사노동우위형으로 분류되었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다른 분포를 보이는데, 약 반(53.5%)이 비가족공유형에 속하고 1/5 정도가 각각 가족공유형(19.8%)과 가족여가우위형(19.5%)에 속하며 7.3%가 가사노동우위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여가우위형의 경우 남녀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데 비해 남성은 여성에 비해 비가족공유형이 특히 많고 가사노동우위형이나 가족공유형이 적은 차이를 보인다. 여성이 가사노동우위형에서 남성보다 7배 정도 많은 분포를 보인 점은 남녀의 성역할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을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비가족공유형의 분포가 높은 점은 동일하나 그 비율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40대(72.0%) > 50대(66.1%) > 30대(51.2%) > 20대(39.3%) 순으로 비가족공유형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대의 경우 가족공유형도 1/4 이상(26.1%)이 되고 가사노동우위형(17.7%)과 가족여가우위형(16.9%)의 비율도

비슷하다. 30대의 경우 가족공유형이 1/4정도(25.3%)로 20대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지만 비가족공유형은 20대보다 많고 가사노동형은 20대보다 적다. 50대의 경우 가족여가형우위가 28.7%로 40대 이하의 다른 연령대들보다 특히 많은 분포를 나타내며, 가사노동우위형(0.9%)이나 가족공유형(4.2%)은 다른 연령대보다 적은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분포를 통해 전반적으로 비가족공유형이 많은 가운데 20대와 30대의 경우 가족공유형이 많고 50대의 경우 가족여가우위형이 많은 점과 자녀가 어린 20대의 경우 가사노동우위형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히 많은 점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을 보면 모든 학력집단에서 비가족공유형의 분포가 60%대를 보이는 가운데 중졸의 경우 가족여가우위형에 높은 분포(27.2%)를 보이고 가사노동우위형(1.2%)과 가족공유형(5.6%)에서는 낮은 분포를 보인다. 전문대 및 대졸 집단은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가사노동우위형(6.9%), 가족공유형(16.3%)의 분포가 높은 특징이 있고, 가족여가우위형의 경우 학력이 높아질수록 분포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대학원의 학력을 가진 집단의 경우 가족여가우위형을 제외하고 다른 세 유형에서 학력에 따른 전반적 경향에서 예외적인 분포를 나타낸다. 대학원집단을 제외하면 비가족공유형에서는 학력이 낮아질수록, 가사노동우위형과 가족공유형에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분포를 보인다.

주당 노동시간을 네 집단으로 나누어 볼 때 노동시간이 없는 집단은 노동시간이 있는 다른 세 집단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인다. 비가족공유형이 34.7%로 다른 유형보다는 높은 분포를 보이지만 가족공유형(26.3%)과 가족여가형(25.2%)에도 각각 1/4이상이 분포하고 있고 가사노동형에도 13.7%가 속한다. 노동시간이 있는 경우 비가족공유형의 경우 노동시간이 긴 집단일수록 높은 분포를 보이는 반면 나머지 세 유형의 경우 노동시간이 짧은 집단일수록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경향을 나타낸다. 유형별 노동시간평균을 보면 비가족공유형이 가장 길어 주당평균 약 52시간이고 다음으로 가족여가우위형이 약 48시간이며, 가사노동우위형과 가족공유형은 약 42시간을 보인다.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이 없는 집단은 비가족공유형의 분포가 낮고 가족여가우위형, 가사노동우위형, 가족공유형의 분포는 높은 특징이 있다. 소득이 있는 집단 중에서 유형별로 소득의 과소에 따른 일관된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비가족공유형의 분포가 가장 낮고 가족여가우위형, 가사노동우위형, 가족공유형의 분포는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인다.

미취학자녀 유무로 나누어 비교할 때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이는 유형은 가사노동우위형(15.6%)과 가족공유형(30.6%)이고,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는 유형은 비가족공유형(68.9%)과 가족여가우위형(22.9%)이다.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가사노동이 많아지고, 없을 경우 여가가 많은 점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맞벌이여부로 나누어 보면 맞벌이의 경우 비맞벌이에 비해 비가족공유형(73.7%)에서만 특히 높은 분포를 보이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모두 비맞벌이가 맞벌이에 비

해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부부가 가족공유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은 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성역할 태도 점수는 1점에서 4점까지의 리커트 척도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나타내는데 가사노동형이 가장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고 비가족공유형과 가족여가우위형이 가사노동우위형이나 가족공유형에 비해 좀 더 전통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상에서 가족공유시간 유형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유형별로 시간정서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보면 <표 4-56>과 같다.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을 1점에서 4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결과를 보면 모든 유형의 시간부족감이 중앙값 2.5 이상을 보여 유형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성인 기혼자들은 전반적으로 시간부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가족여가우위형의 경우 다른 유형보다 시간부족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있다.

생활시간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모든 유형에서 평균값이 중앙값(3) 이상인 3.1~3.2를 보여 가족공유시간 유형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성인기혼자들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만족상태임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비교하면 비가족공유형과 가족여가우위형이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는데, 비가족공유형이 덜 만족하고 가족여가우위형이 더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4-56> 평일 유형별 시간정서의 비교

단위: :평균(표준편차)

변수	비 가족공유형	가족여가 우위형	가사노동 우위형	가족공유형	F	Scheffé
시간부족감	3.13(0.80)	2.85(0.84)	3.13(0.72)	3.07(0.75)	65.557***	b a b b
생활시간만족도	3.10(0.77)	3.19(0.73)	3.17(0.72)	3.19(0.75)	10.577***	a b ab ab

다음으로 일요일의 가족공유시간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표 4-57>과 같다.

성에 따른 유형분포를 보면 남녀 모두 비가족공유형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다음으로 가족공유형의 분포가 많은 점은 동일하나 남성의 경우 비가족공유형의 비중이 여성보다 좀 더 높다(47.4%). 남성의 경우 비가족공유형, 가족공유형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는 유형이 가족여가우위형인데 비해 여성의 경우 비가족공유형과 가족공유형 다음으로 가사노동우위형에 높은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성별 유형의 차이는 남녀의 성역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 볼 때 모든 연령대에서 가족공유형은 20%대이고 가족여가우위형은 10%대인 데 비하여 가사노동우위형과 비가족공유형에서는 연령대에 따라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가사노동우위형에는 20대가 33.7%를 보이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여 50대의 경우 3.9%에 불과한 반면, 비가족공유형의 경우 20대는

<표 4-57> 일요일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빈도(%)

변수	구분	가사노동 우위형	비가족공유 형	가족공유 형	가족여가 우위형	χ^2
성별	남성	142(8.2)	822(47.4)	485(28.0)	284(16.4)	83.465***
	여성	355(17.9)	801(40.5)	567(28.7)	256(12.9)	
연령	20-29세	65(33.7)	57(29.5)	42(21.8)	29(15.0)	379.430***
	30-39세	296(26.1)	368(32.4)	319(28.1)	152(13.4)	
	40-49세	100(6.9)	705(48.6)	415(28.6)	231(15.9)	
	50-59세	36(3.9)	493(52.8)	276(29.6)	128(13.7)	
교육 수준	중졸	27(4.6)	348(59.1)	133(22.6)	81(13.8)	152.360***
	고졸	217(11.9)	837(45.7)	511(27.9)	266(14.5)	
	전문대 및 대졸	224(19.0)	398(33.8)	376(32.0)	178(15.1)	
	대학원졸	29(25.0)	40(34.5)	32(27.6)	15(12.9)	
노동시간	상	64(7.6)	485(57.9)	194(23.2)	95(11.3)	198.704***
	중	130(12.2)	482(45.1)	302(28.3)	154(14.4)	
	하	83(9.7)	370(43.1)	266(31.0)	140(16.3)	
	없음	220(23.2)	286(30.2)	290(30.6)	151(15.9)	
노동시간	평균(표준편차)	49.0(15.1)	52.8(17.0)	48.1(16.0)	48.5(14.6)	16.918*** a b a a
월평균소득	없음	210(23.3)	283(31.4)	278(30.9)	130(14.4)	157.207***
	1~100만원 미만	55(8.8)	319(51.0)	172(27.5)	80(12.8)	
	100~200만원 미만	92(9.7)	490(51.5)	234(24.6)	136(14.3)	
	200~300만원 미만	80(12.2)	294(44.7)	179(27.2)	104(15.8)	
	300만원 이상	60(10.4)	237(41.1)	189(32.8)	90(15.6)	
미취학자녀 존재유무	있음	331(38.6)	227(26.5)	206(24.0)	94(11.0)	622.204***
	없음	166(5.8)	1,396(48.9)	846(29.6)	446(15.6)	
맞벌이여부	맞벌이	184(10.1)	890(48.6)	506(27.7)	250(13.7)	52.436***
	비맞벌이	313(16.6)	733(38.9)	546(29.0)	290(15.4)	
성역할태도	평균(표준편차)	2.7(0.7)	2.6(0.7)	2.6(0.7)	2.6(0.7)	3.793* b a a a

29.5%이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50대는 52.8%를 보인다. 가족공유형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20%대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일요일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주도적인 유형은 존재하지 않으나 비가족공유형과 가족공유형이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20대와 30대에서는 가사노동우위형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젊은 세대의 가사노동우위형 비중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로서의 역할과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다.

각 유형이 교육수준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면, 모든 학력집단에서 비가족공유형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공통점을 나타낸다. 그런 가운데 중졸이하의 경우 비가족공유형이 59.1%로 다른 집단보다 특히 높은 비중을 보인다. 가족공유형의 경우 전문대졸 및 대졸 집단이 32%의 분포를 보여 20%대를 보이는 다른

학력집단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가사노동우위형의 경우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며, 다른 유형에서는 대학원졸업 집단을 제외할 경우 학력에 따른 경향성을 볼 수 있다. 즉 비가족공유형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고, 가족공유형과 가족여가우위형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높다.

각 유형이 노동시간에 따라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면 노동시간이 없는 경우 가족공유형(30.6%)과 비가족공유형(30.2%)이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가사노동우위형에도 23.2%가 분포하는 등 노동시간이 있는 집단들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보인다. 노동시간이 있는 경우 비가족공유형에서는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가족공유형과 가족여가우위형에서는 노동시간이 적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가사노동중심형의 경우 노동시간에 따라 일관된 경향은 보이지 않고 노동시간이 중간인 집단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다. 유형별로 노동시간 평균을 보면 비가족공유형이 주당 53시간으로 다른 유형들의 노동시간보다 특별히 더 많은 특징을 보인다. 노동시간이 많을 경우 어떠한 공유활동도 많이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가족 및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가사노동이나 가족여가 등 특정활동을 많이 공유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이 없는 집단은 가사노동우위형의 분포가 높고 비가족공유형의 분포가 낮은 점이 두드러지며,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과소에 따른 일관된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소득이 있는 집단에서는 비가족공유형인 경우가 40~50%대인데 비해 소득이 없는 집단은 1/3 이하만이 비가족공유형에 속한다(31.4%). 소득이 없는 집단의 경우 가족공유형(30.9%)도 비가족공유형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낸다. 소득이 있는 집단끼리 비교할 때 가사노동우위형에는 200만원 이상의 집단들이 더 많은 분포를 보이는 반면 비가족공유형에는 200만원 미만의 집단들이 더 많은 분포를 보인다. 가족공유형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집단이 약 1/3의 분포(32.8%)를 보여 다른 소득집단보다 많은 점을 알 수 있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가사노동우위형에 속하는 비율이 38.6%로서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의 5.8%보다 6배 이상의 분포를 보이고, 비가족공유형에서는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가 48.9%로서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의 26.5%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분포를 보인다. 가족공유형 및 가족여가우위형에서는 모두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 약간 더 높은 비율의 분포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미취학자녀가 존재할 경우 가사노동우위형으로 집중되는 점을 나타낸다.

맞벌이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맞벌이의 경우 비가족공유형에서만 비맞벌이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고, 다른 세 유형에서는 모두 비맞벌이보다 낮은 분포를 보인다. 비맞벌이가 다양한 공유활동을 많이 하는 유형들에 더 많이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가족공유시간 유형별로 성역할 태도를 비교해 보면 평일과 마찬가지로 가사노동우위형이 다른 유형들보다 더 근대적인 태도점수를 보인다.

일요일의 가족공유시간 유형별 시간정서를 비교해 보면 시간부족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유형은 가사노동우위형이고 가장 적게 느끼는 유형은 가족여가우위형이다.

<표 4-58> 일요일 유형별 시간정서의 비교

단위:연속변수:평균(표준편차), 빈도(%)

변수	가사노동 형	비가족공유 형	가족여가 형	가족여가+ 형	F	Scheffé
시간부족감 정도	3.17(0.75)	3.09(0.83)	3.03(0.81)	2.94(0.80)	8.323***	c bc ab a
생활시간만족도	3.17(0.78)	3.12(0.78)	3.15(0.77)	3.14(0.70)	.796	a a a a

유형별로 생활시간만족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고 모두 보통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2009년 통계청의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 중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함께 한 사람’의 자료를 이용하여 밝힌 점을 가족공유 식사, 가족공유 가사노동, 가족공유 여가, 가족공유시간 유형으로 나누어 요약한 후 결론을 맺고자 한다.

1) 요약

<가족공유 식사>

1. 간식을 포함한 식사시간은 1999년, 200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가족과 함께 한 가족공유 식사시간은 감소하였으며, 행위자 비율도 감소하였다. 즉, 지난 10년간 식사시간의 증가는 간식과 음료시간이 증가에 의한 것과 가족과 식사가 아닌 혼자서 혹은 가족 외 사람과의 식사가 증가한 것이다.

2.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공유 식사시간은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증가한다. 즉, 평일에 비해 일요일의 가족공유 식사가 27분가량 길었으며, 성별에 따라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가도 차이가 있어서 남자는 주로 가족 외 사람과 함께 식사한 시간의 비율이 높고, 여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한 시간의 비율이 남자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식사시간도 11분 더 길었다.

3.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가운데는 저녁식사가 가족이 함께 하는 비율이 높다. 아침식사 시간은 평일과 일요일 모두 여자의 가족공유 식사시간의 비율이 남자보다 높았다. 점심식사 시간의 함께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남자는 가족 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자보다 길고, 여자는 점심식사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남자보다 길었다. 평일에 비해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이 많이 증가하였다. 평일 저녁식사 시간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남자의 저녁식사 시간은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전체 식사시간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서 여자보다 적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시간이 가장 긴 것은 일요일 저녁식사와 일요일 아침식사 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족과 함께 한 사람들의 식사시간이 혼자한 사람들의 식사시간보다 평일은 13분, 일요일은 38분이나 긴 것으로 나타나서 가족과 공유하는 식사시간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식사는 남자에 비해 여자들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식사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 외 사람과 식사를 한 사람의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고, 이들의 평균 식사시간도 길었다. 가족공유 식사는 평일과 일요일 모두 저녁식사의 참여율이 높고, 식사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전반적으로 여자의 가족공유 식사 참여율이 남자에 비해 높았다. 한편 평일의 경우는 가족 공유 식사시간을 갖는다고 응답한 남자의 비율이 아침, 점심, 저녁 모두 5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5. 맞벌이 가정보다 비 맞벌이 가정이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더 가지며,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이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더 많이 갖는다. 특히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는 맞벌이건 비 맞벌이건 평일 아침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대신 이들 가정은 평일 저녁식사나 일요일 아침, 점심, 저녁식사에서 미취학자녀가 없는 가정에 비해 가족공유 식사를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 식사시간의 시간대 별 분석을 통해서 보면, 평일 가족공유 식사시간은 아침과 저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점심은 가족 외 사람과 식사하는 비율이 높다. 일요일은 가족공유 식사시간 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일요일 저녁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갖는 비율이 가장 높다.

7. 평일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갖는 집단의 특성은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갖지 못하는 집단에 비해 30대가 많으며, 여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개인소득이 없는 사람들로 배우자가 있고 미취학 자녀가 있으며, 맞벌이를 하지 않는 집단으로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시간부족감을 덜 느끼고, 업무의 피로도는 낮고 생활시간 만족도는 높은 사람들이었다. 반면, 가족공유시간을 갖지 못하는 집단은 40대로 남성이며, 경제활동을 하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월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일주일에 1일을 쉬며 노동시간이 긴 사람들로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으며, 미취학자녀도 없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시간부족감을 크게 느끼고, 업무의 피로감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시간 만족도가 낮았다.

8. 가족공유 식사시간의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는 노동시간과 배우자 유무이다. 즉 배우자가 없으며, 노동시간이 긴 집단의 가족공유 식사시간이 가장 짧다. 일요일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가지는 집단은 가지지 않는 집단에 비해 20, 30대 연령층의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직업이 없거나 직업이 있다면 사무직이나 전문관리직이며, 개인 월 소득은 없거나 300만원 이상인 집단의 사람들이었으며, 주휴제도와 관계가 없거나 주 2일을 쉬며 노동시간이 짧아서 시간부족감이나 업무 피곤함이 없고, 배우자와 미취학자녀가 있는 사람

들이다.

<가족공유 가사노동>

1. 가사노동은 대부분 여성이 수행하고 있으며 혼자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가 1시간 38분,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51분으로 혼자의 경우가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보다 2배 정도 많았다. 이에 반해 남성은 혼자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이 15분, 가족과 함께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이 16분으로 비슷하게 나타나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할 때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남성이 혼자 한 가사노동은 그가 수행한 가사노동의 53.0%, 가족과 함께 한 경우는 46.4%인데 반해 여성이 혼자 한 가사노동은 73.5%, 가족과 함께 한 가사노동은 25.1%이었다. 요일을 비교할 때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이 평일보다 다소 증가했는데 이는 가족보살피기보다는 가정관리 시간이 증가한 것, 혼자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한 것, 여성보다는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비율에 있어서도 일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가사노동시간의 비율이 평일보다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에 여성보다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더 많이 증가하였다. 특히 일요일에 남성이 가족과 함께 하는 가사노동이 증가한 것은 가사노동 중 가정관리에 있어서 가족과 함께 한 시간과 비율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세부활동에 있어서는 물품구입의 가족공유가 일요일에 증가하여 물품구입을 하는 남성의 3/4 이상과 여성의 반 이상이 가족과 함께 물품구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은 평일보다 일요일이 길며, 평일에는 미취학자녀와의 가족공유가 가장 길고 그 외 가족, 배우자의 순인데 반해 일요일에는 배우자와의 가족공유시간이 가장 길었다.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가사노동의 가족공유시간이 늘어났는데 이는 가정관리시간에서의 가족공유의 증가, 배우자와의 공유시간의 증가, 남성의 가족공유시간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일요일에 남성의 경우는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의 모든 공유대상에서 가족공유시간이 증가한데 반해 여성은 가정관리에서는 증가했지만 미취학자녀보살피기와 그 외 가족보살피기에서 오히려 줄어들어서 일요일에 남성에 의한 미취학자녀나 학령기자녀의 보살피기의 대체가 다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여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은 행위자 비율에 있어서나 평균시간에 있어서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가족보살피기의 행위자비율은 2.8배, 행위자 평균시간은 2.4배로 가정관리보다 그 격차가 컸다. 또한 남녀 간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격차는 가정관리에 있어서는 행위자 비율의 차이에, 가족보살피기에서는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일요일은 평일에 비해 가족공유 가사

노동시간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증가했는데 이는 가정관리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에서 증가, 남성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가족보살피기에서 여성의 경우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 모두 감소함으로써 여성의 가족보살피기가 일요일에 남성에 의해 다소 대체됨을 알 수 있다.

4. 가족공유 행위자율은 모든 공유대상에 있어 여성이 높고 행위자 평균시간도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와 그 외 가족과의 공유에서는 여성이 높지만 배우자와의 공유에서의 행위자 평균시간은 남성이 길게 나타남으로써 남성이 배우자와의 공유 가사노동을 할 경우 여성보다 긴 시간을 투입함을 알 수 있다.

공유대상에 따라 또한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에 따라 남녀 간의 격차는 다른 양상은 보이는데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와 그 외 가족과의 공유의 경우 남녀 간의 격차가 가정관리에서는 행위자비율의 차이에, 가족보살피기에서는 행위자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의 차이에 기인하는 반면, 배우자와의 공유의 경우 가정관리에서는 남녀 간 격차가 없으며 가족보살피기에서는 행위자율은 여성이 높으나 평균시간에 있어서는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일요일에 가족공유 가사노동이 증가하는데 이는 배우자와의 공유의 증가, 남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증가, 가정관리의 가족공유 증가가 모든 공유대상의 행위자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에서 이루어진 데 기인하고 있다. 여성은 일요일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에서 행위자비율과 평균시간이 감소함으로써 남녀 간의 격차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5. 맞벌이 여부와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보면 이는 맞벌이 여부보다 미취학자녀 유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정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볼 때 물론 비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길지만 맞벌이 여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도 상당히 길어 이들이 가정과 일을 양립함에 있어 자녀 양육에서 오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맞벌이 여성과 비맞벌이 여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는 행위자 평균시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맞벌이 여성이 자녀양육에 참여하지만 취업으로 인한 시간의 부족을 자녀 양육에 투입하는 시간량을 감소함으로써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은 맞벌이 여부에 따른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행위자 비율에서는 차이를 보여 맞벌이 가정의 남성이 비맞벌이 가정의 남성보다 10% 정도 참여율이 높았다.

가족공유 가정관리시간은 미취학자녀 유무보다는 맞벌이 여부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비맞벌이 가정의 가정관리 시간이 맞벌이 가정보다 길었고 여성의 가정관리시간이 남성보다 길었다. 가족보살피기는 미취학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 그리고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미취학자녀 유무의 영향이 맞벌이 여부보다 더 컸고 남녀 간의 차이도 가정관리시간에 있어서의 남녀 간의 차이보다 더 커서 여성

의 가족보살피기시간이 남성보다 상당 수준 길었다.

일요일은 평일보다 가족공유 가사노동 시간이 길었는데, 이는 맞벌이 가정이 비 맞벌이 가정보다, 또한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보다 더 증가했기 때문이다. 남성은 일요일에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공유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맞벌이하는 경우에만 미취학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었다.

6. 평일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갖는 집단의 특성을 보면, 여성으로 연령이 젊고, 전문대나 대졸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개인소득이 없으며 배우자가 있고 미취학 자녀가 있으며, 맞벌이를 하지 않으며 직업이 있더라도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성역할태도에 있어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시간부족감이 낮고 생활시간 만족도는 높은 사람들이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 월소득이 적고 주2일 휴무제를 갖는 사람들이다. 반면,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갖지 못하는 집단은 남성이고 연령이 높으며 학력이 중졸이하이며, 경제활동을 하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이나 단순노무직을 갖고 개인 월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며 노동시간이 긴 사람들로 배우자가 없는 편이며, 미취학자녀도 없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보다 보수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생활시간 만족도가 낮았다.

일요일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가지는 집단의 특성을 보면 평일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가지는 집단과 별 차이가 없었으나 다만 직업에 있어서 사무직이 많다는 것과 개인 월 소득의 크기에 따른 차이와 생활시간 만족도에서의 차이가 없어지는 특성의 차이를 보였다. 평일에는 월소득이 많을수록 가족공유 시간을 갖는 집단이 감소했는데 일요일에 월소득의 크기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없어진 것은 소득이 높은 집단이 평일에는 업무에의 부담으로 인해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갖지 못하지만 일요일에는 휴무이므로 가족과 함께 하는 가사노동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7. 평일 가사노동 가족공유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성별, 연령, 교육수준, 노동시간, 개인 월평균소득, 배우자 유무, 미취학자녀 유무, 성역할태도로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은 20대보다는 30대가 가족공유를 하는데 반해 50대는 가족공유를 하지 않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에 비해 중졸이하가 가족공유를 하지 않으며 전문대 및 대졸은 가족공유를 더 많이 하였다. 노동시간은 없거나 적을수록, 개인 소득은 없거나 낮은 집단이, 미취학자녀가 있고 맞벌이를 하는 가족이, 그리고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수록 가족공유를 많이 하였다.

일요일 가사노동 가족공유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성별, 연령, 교육수준, 노동시간, 개인 월평균소득, 배우자유무, 미취학자녀 유무로서

평일과 비교했을 때 배우자유무가 영향요인으로 포함된 데 반해 맞벌이 여부와 성역할태도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40대와 50대 보다는 20대가, 교육수준은 고졸에 비해 전문대 및 대졸이 가족공유를 더 많이 하였으며, 노동시간은 중간 집단에 비해 노동시간이 없는 집단은 가족공유를 하는데 반해 노동시간이 상인 집단은 가족공유를 하지 않았으며, 개인 소득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인 집단에 비해 200만원 이상인 집단이 가족 공유를 하였고 배우자가 있는 집단과 미취학자녀가 있는 집단이 가족공유를 하였다. 특히 월소득의 영향이 평일과 일요일에 반대로 나타나 평일에는 월소득이 높을수록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하지 않은 데 반해 일요일에는 월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집단이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월 소득이 많은 집단이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평소에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보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공유 여가>

1. 평일 남자의 여가시간이 여자에 비해 적은 반면, 일요일은 남녀 차이가 크게 나타나 일요일 남자의 여가시간이 더 많았다. 또한 남녀 모두 요일에 상관없이 가족과의 여가보다는 혼자 즐기는 여가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특히 평일 가족 여가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부분의 여가활동이 미디어 이용, 교제활동,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공유 여가시간을 보면 혼자 하는 경우가 가족과 함께 공유하는 경우보다 2배 넘게 나타났으며 가족과의 공유 중배우자와의 공유 여가나 그 외 가족과의 공유 여가에 비해 미취학자녀와의 여가 공유가 매우 적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여가활동에서 미디어 이용, 교제활동,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을 제외하고는 다른 영역에서의 여가활동이 거의 없거나 5분미만으로 나타났다.

3. 평일에는 응답자의 68.5%가 가족과 1시간 16분 여가시간을 공유하고 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가족과 공유하는 비율과 평균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공유 행위자비율은 남자가 많으나 행위자 평균시간은 여자가 길고, 미취학자녀와 그 외 가족과의 공유는 여자가 공유하는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이 남자보다 높았으나 수준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 가족과의 공유에서는 행위자 비율이 여자가 훨씬 높으나 행위자 평균 시간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유에 참여하는 비율은 남녀 간 다르지만 일단 공유를 하게 되면 참여시간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의 거의 반이 미디어 활동을 하고, 1/3을 넘는 수가 교제활동을 가족과 함께 하고 있었다.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미디어 이용이나 교제활동보다는 행위자 비율이 많이 떨어지지만 다른 여가활동에 비하여 행위자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행위자 평균은 미디어 이용과 같은 수준이다.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가족과 공유하는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의 행위자율과 평균시간의 증가가 여자보다 높았다. 대체로 평일에는 여자가 행위자 비율이나 평균시간이 긴 것에 비해 일요일에는 남자가 가족과 공유하는 비율도 높고 평균시간이 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평일에 직장일 등으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여가를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이용의 일요일 행위자율과 평균시간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요일에 여가의 가족공유가 증가하는 것은 미디어 이용의 가족공유 참여 증가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대부분 여가활동에서 배우자 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 증가가 미취학자녀나 그 외 가족과의 증가보다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일요일에도 미디어 이용을 가족과 함께 더 많이 공유하기는 하지만 평일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적극적 여가 활동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며 가족 중 특히 배우자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평일의 경우 가족이나 기타사람과 보다는 혼자 여가를 즐기는 경우가 많았으며 남자가 혼자 여가활동을 하는 경향이 크고 즐기며, 여자가 가족들과 여가를 함께 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여가활동 중 약 1/4를 가족과의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교제활동을 제외하고 다른 여가활동은 혼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평균시간량이 많은 활동별로 살펴보면 미디어 이용의 경우 혼자하는 경우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가족과 함께하는 경우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미취학자녀와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비율이 다소 높아 남녀 차이를 보였다. 교제활동은 전체적으로 가족보다는 기타 사람들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기타 사람들과의 교제는 많은 반면, 가족과의 교제활동은 여자에 비해 적었다. 가족과의 교제활동 중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특징적으로 그 외 가족 친척과의 교제활동 비율이 높아 여자의 가정 내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는 평균시간량은 적지만 그에 대비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배우자 공유에 기인한 것이다. 학습의 경우 가족과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 하거나 기타 사람과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요일의 경우 혼자하는 비율이 평일에 비해 감소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배우자, 그 외 가족 및 친척과의 공유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기타 사람들과의 비율도 감소하여 주말에는 혼자 또는 기타 사람들보다는 가족과 조금 더 함께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자는 혼자여가를 더 많이 하고 가족여가는 여자가 더 많이 하는 등의 남녀차이는 존재한다. 미디어의 평균시간 2시간 50분 대비 약 절반 이상 혼자 하고 나머지는 주로 가족과 함께 하며, 교제활동은 평일 기타사람과 많이 하는 것에 반해 가족과 더 많은 공유 비율을 보였다.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혼자 하거나 가족이 함께 하였는데 주로 배우자와의 공유에 의한 것이다.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은 누군가와 같이 하기보다는 주로 혼

자하며 이는 평일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5. 미취학자녀가 있으면서 맞벌이인 가족의 경우 평일은 바쁜 맞벌이 생활로 인해 가족여가가 적었지만 일요일의 경우 평일의 약 3배 이상의 높은 증가를 보였고 배우자, 미취학자녀와의 공유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나 일요일 증가분은 주로 미디어 이용에 기인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평일에 비하여 일요일의 여가활동은 남녀 구별 없이 모든 가족공유형태에서 행위자비율과 평균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 배우자와의 공유 보다는 미취학자녀와의 공유가 행위자비율과 평균시간이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인 경우 평일에 직장생활로 인해 미취학자녀와 여가활동을 일요일에 더 많이 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6. 평일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비맞벌이 가족여가 공유 비율과 평균시간이 높게 나타났는데 주로 비 맞벌이 가족 여자의 공유 행위자비율과 평균시간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맞벌이 가족의 여자가 평일에 직장생활로 인하여 가족과 여가를 공유할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의 경우 비맞벌이 가족의 배우자와의 공유는 남자와 여자 모두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맞벌이 가족의 남자와 여자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맞벌이 가족의 남녀가 일요일에 배우자와 여가를 함께함으로써 평일에 배우자와 함께하지 못한 여가를 보상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의 경우 맞벌이와 비맞벌이 가족의 남녀를 통틀어 맞벌이 가족의 여자가 미취학자녀와의 공유 행위자 비율은 가장 낮으나 평균시간은 이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맞벌이 여자는 행위자 비율은 가장 높으나 평균시간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 여자의 경우 일요일에도 가사노동 등으로 미취학자녀와의 행위자 비율은 낮으나 일단 미취학자녀와 여가를 함께 하게 되면 평일에 함께하지 못한 여가시간을 보충하려는 의도로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7. 미취학자녀가 없으면서 맞벌이인 가족의 경우 미취학자녀가 있고 맞벌이인 가족에 비해 평일 및 일요일 가족여가가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배우자 여가 공유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지만 미취학자녀가 있으면서 비맞벌이인 가족에 비해서는 배우자 공유 여가가 약간 더 적어 배우자의 취업유무가 배우자와의 여가 공유에 다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집단의 가족들과는 달리 배우자와 평일의 경우 배우자와 학습하는 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일요일은 종교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 미디어에 치중되어 있는 다른 가족 집단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바람직한 여가 시간 배분을 한다고 볼 수 있다.

8. 미취학자녀가 없는 비맞벌이 가족의 가족여가 공유실태를 보면 앞선 3집단에 비해 평일 및 일요일 가장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상당수가 미디어 이용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절대적인 공유 여가 시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를 균형있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취학자녀도 없고 맞벌이도 아닌 이 집단의 평일 가족여가 및 배우자 여가 행위자 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요일의 경우는 미비하지만 오히려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맞벌이 집단에 비해 적어 요일에 따라서도 미취학자녀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일요일의 경우 다른 집단의 여가활동에 비해 특징적인 것은 배우자와의 교제활동 행위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약 3배)하였고 평균시간도 가장 많았는데 이는 미디어 이용보다 앞선 것으로 주말을 이용해 부부끼리 교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미디어 이용뿐만 아니라 스포츠, 관람, 종교활동에도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일요일 배우자와의 종교활동이 2시간가량으로 높게 나타났다.

9. 가족공유 여가시간 공유 여부 별 집단 간 차이를 보면 가족여가를 공유 하는 집단과 공유하지 않는 집단은 요일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평일은 주로 젊은 연령층,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더 많은 공유를 보여 이는 여자의 성역할 분담, 남자보다는 짧은 노동시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원졸 이상이 다소 낮은 공유수준을 보였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여가시간량의 증대로 가족여가 공유를 더 많이 하였으며 비교적 출퇴근이 일정한 사무직 집단에서 가장 높은 공유 수준을 보였다.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집단의 가족여가 공유 수준이 낮게 나타나 아무래도 가족여가를 공유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가장 낮은 공유 수준을 보여 관리자 및 전문가 고소득 집단의 가족여가 공유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더 많은 공유수준을 보였으며 맞벌이 집단이 비맞벌이 집단에 비해 더 낮은 공유수준을 보인 것은 절대적인 시간량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여가 비공유집단에서 시간부족감과 업무 피곤함을 더 많이 느껴 노동시간, 주휴제도, 업무의 부담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한편 가족여가를 공유하는 집단의 생활시간만족도가 더 높았다.

일요일의 경우 평일과 마찬가지로 젊은 연령층의 가족여가 공유가 더 많았으며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평일 대학원졸 이상이 낮은 공유수준을 보인 것과는 달리 중졸이하 집단이 가장 낮은 공유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교육수준과 산업 및 직종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족여가 공유수준이 높았으며 직업에 따라서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높게 나왔으며 평일 관리자 및 전문가 집단의 낮은 공유 수준과는 달리 이들 집단의 공유수준도 높게 나왔다.

반면, 서비스 판매직이 가장 낮은 공유수준을 보이고 평일의 직업 집단 간 공유수준의 차이에 비해 그 차이가 더 커 직업에 따른 일요일 가족여가 불평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노동시간에 따라서는 평일과 비슷하게 노동시간이 적은 사람들의 가족여가 공유 비율이 더 높았으며 월평균소득이 아예 없는 즉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200만원 미만인 집단의 가족여가 공유수준이 가장 낮았고 가장 적게 쉬거나 수시로 쉬는 집단의 공유수준 역시 가장 낮게 나왔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평일과 동일하게 있는 경우가 공유수준이 높았으며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인 경우 가족여가 공유수준이 높았다.

평일과 동일하게 가족여가 비공유 집단에서의 업무피곤함이 미비하지만 더 높았다.

10. 평일 가족여가 공유 결정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노동시간, 월평균소득, 배우자 유무, 미취학자녀 존재여부, 맞벌이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 남자에 비해 여자가 가족여가를 공유할 가능성이 컸으며 20대를 기준으로 40~50대는 그 가능성이 낮았다. 노동시간이 중간 정도인 집단에 비해 그보다 적은 집단의 가족여가 가능성은 높게, 그보다 많은 집단의 가족여가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이 100~200만원 정도인 집단에 비해 없는 집단의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이 낮게, 배우자가 있고 미취학자녀가 없는, 비맞벌이 집단의 가족여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일요일 가족여가 공유 결정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개인 월평균 소득, 배우자 유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평일과 동일하게 연령이 20대인 집단에 비해 4~50대 집단의 공유 가능성은 낮게, 전문대 및 대졸 집단의 공유 가능성은 높게, 개인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으로 높은 집단의 일요일 가족여가 공유 가능성은 높게,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 비해 있는 집단의 공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공유시간 유형>

1. 가족식사, 가족공유 가사노동, 가족여가 시간을 축으로 가족공유시간을 유형화하면 요일에 관계없이 모두 가족여가우위형, 가사노동우위형, 가족공유형, 비가족공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족여가우위형은 식사, 가사노동, 여가의 세 영역 중 특히 여가공유가 많은 집단이고, 가사노동우위형은 상대적으로 가사노동공유가 많은 집단이며, 세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공유가 많은 집단이 가족공유형이고, 전반적으로 적은 집단이 비가족공유형이다.

2. 평일의 경우 6할 이상의 기혼성인들이 가족과 식사, 가사노동, 여가를 함께 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이고, 일요일에도 4할 이상이 기혼성인들이 이들 활동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2시간 미만에 불과한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공유시간을 충분하게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평일과 일요일 모두 비가족공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각각 63%, 44%로서 다른 유형보다 높으며, 비가족공유형 다음으로 평일에는 가족여가우위형, 가족공유형, 가사노동우위형의 순서로, 일요일에는 가족공유형, 가족여가우위형, 가사노동우위형의 순서로 높은 분포를 보인다.

4. 평일의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비가족공유형이 특히 많고, 가사노동우위형이나 가족공유형이 적은 차이를 보이며, 20대와 3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가족공유형이 많고 50대형의 경우 가족여가우위형이 다른 연령대보다 많은 점과 20대의 경우 가사노동우위형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다. 중졸 학력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가족여가우위형에 높은 분포를 보이고, 전문대 및 대졸 집단은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가사노동우위형과 가족공유형의 분포가 높은 특징이 있고 가족여가우위형의 경우 학력이 높아질수록 분포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소득이 없는 집단은 있는 집단보다 비가족공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낮고, 소득이 있는 집단 중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비가족공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낮다. 비가족공유형이 다른 유형들보다 평균노동시간이 가장 길며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사노동우위형과 가족공유형에 높은 분포를 보인다. 맞벌이의 경우 비맞벌이에 비해 비가족공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특히 높으며, 가사노동우위형이 가장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인다.

5. 일요일의 유형별 특성을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비가족공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더 높고, 가사노동우위형은 연령대가 적을수록, 비가족공유형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은 분포를 보인다. 평일과 달리 중졸이하의 학력집단이 비가족공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고 전문대졸 및 대졸 집단이 가족공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다른 학력집단보다 높다. 소득이 많은 집단은 가사노동우위형에, 적은 집단은 비가족공유형에 높은 분포를 보이고, 가족공유형에는 300만원 이상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분포를 보인다. 평일과 마찬가지로 비가족공유형의 평균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가사노동우위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고, 맞벌이가 비맞벌이보다 비가족공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다. 평일과 마찬가지로 가사노동우위형이 다른 집단보다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인다.

6. 평일의 경우 가족여가우위형이 다른 유형들보다 시간부족감을 덜 느끼며, 생활시간만족감은 비가족공유형이 가장 낮고 가족여가우위형이 가장 높다. 일요일에는 가사노동우위형이 시간부족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가족공유시간 유형별로 생활시간만족감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 결론

<가족공유 식사>

1.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가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나 부부간의 관계의 질, 나아가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자녀교육의 중요한 장으로 생각했던 우리나라는 그 후 산업화와 함께 가정생활 전반이 변화하면서 식사 유형도 변화하였다. 특히 자녀들의 자율학습 등으로 증가한 학교생활 시간 및 직장 생활의 장시간 노동 등으로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시간을 갖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식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시간은 감소하고 있다. 즉 1999년, 2004년, 2009년 자료에 의하면 가족과 식사시간은 감소하고, 이의 행위자 비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 생활시간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남성들은 평일 저녁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는 행위자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버지의 장시간 노동이 가족공유 식사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식사시간의 길이를 보면, 혼자서 하는 식사는 빨리 먹고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천천히 여유있게 풀고루 하는 식사가 자녀들의 편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영양상으로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생각할 때, 가족공유 식사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가 비 맞벌이 가정에 비해 가족공유 식사시간이 짧다는 것은 노동시간이 가족공유시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3.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는 평일 아침시간에 가족공유 식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반면, 평일의 점심, 저녁이나 일요일의 경우는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가족공유 식사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자녀가 어린 경우 아침시간은 가족이 함께 하기 어렵지만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저녁시간의 가족공유 비율은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갖는가의 여부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노동시간이 긴 남성의 경우 가장 가족공유 식사를 하는 비율이 낮았다. 가족공유 식사를 하지 못하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시간부족감을 크게 느끼고, 업무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생활시간 만족감이 낮은 집단의 특성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보면, 가족공유 식사시간을 갖는가의 여부는 개인의 삶의 질을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가족공유 가사노동>

1. 가사노동은 대부분 여성들이 수행하지만 가족이 함께 하는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다. 특히 행위자 평균시간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공유하는 가사노동이나 가사노동 중 가정관리영역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없었다. 남성의 경우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은 낮지만, 일단 참여하는 경우에는 여성과 비슷한 정도의 가사노동시간을 투입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가사노동의 성별분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성들로 하여금 가사노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평일에 비해 일요일의 가사노동의 가족공유시간이 긴데, 이는 남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증가, 배우자와의 공유시간의 증가, 가정관리시간의 증가에 기인하였다. 특히 남성은 일요일에 모든 공유대상, 즉 배우자와의 공유, 미취학자녀와의 공유, 기타 가족과의 공유에서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의 증가를 보여주었는데, 이를 통해 일요일에 남성에 의한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대체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주 5일제 근무에 의해 토요일 휴무가 증가하면서 남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 참여 증가가 기대되며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의 해소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3. 여성은 가족보살피기에 있어 일요일에 행위자비율과 평균시간이 감소함으로써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증가하는 남성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요일에 남녀 간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격차가 감소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의 여성은 미취학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일요일에 가족공유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평일에 직장 근무로 인해 소홀한 가정일을 일요일에 보완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부담이 일요일에도 지속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맞벌이 가정의 남성은 비맞벌이 가정의 남성에 비해 가족공유 가사노동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다만 행위자율에 있어서만 1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취업여성의 이중 노동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남성은 행위자 비율 뿐 아니라 평균시간에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의 가사노동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세부활동 별로 볼 때 행위자 비율은 모든 세부활동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지만 행위자 평균시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긴 세부활동도 있으며, 일부 남성들은 특정 가사노동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고 있었다. 특히 일요일의 부모보살피기에서 남성 행위자의 평균시간이 여성보다 상당 수준 길게 나타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에 대한 남성의 배려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세부활동 중 물품구입이 남성의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인데, 일요일에는 물품구입의 가족공유가 더욱 증가하

여 물품구입을 하는 남성의 3/4이상의 가족과 함께 물품구입을 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하는 쇼핑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5. 평일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하는 집단은 연령이 젊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으로 배우자와 미취학자녀가 있고,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노동시간이 짧은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은 보다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고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하는 집단의 특성을 자원, 요구, 가치관 등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비취업이나 짧은 노동시간과 관련된 시간 자원, 유배우자와 관련된 인적 자원 등 자원의 측면, 미취학자녀가 있는 것과 관련된 가사노동에의 요구 측면, 젊은 연령이나 진보적인 성역할태도와 관련된 가치관의 측면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갖는 집단이 보다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가족공유 여가>

1. 우리나라 성인의 여가시간을 보면 평일은 여성의 여가시간이 남자에 비해 약간 더 많은데 반해 일요일은 남녀의 차이가 커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특히 일요일의 경우 남녀 격차가 큰데 그 격차가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이나 자녀보살피기 등의 시간으로 사용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남녀 간의 여가 활용에 불평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여성의 여가시간 양을 늘리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남녀 모두 배우자나 미취학자녀와의 가족여가 중요성을 강조하여 가족공유 여가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2. 가족공유 여가 유형을 보면 배우자와의 공유 여가나 그 외 가족과의 공유 여가에 비해 미취학자녀와의 여가 공유가 매우 적게 나타났는데 자녀의 정서적,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또한 모든 여가활동에서 미디어 이용, 교제활동,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을 제외하고는 다른 영역에서의 여가활동이 거의 없거나 5분미만으로 나타나고 일요일에 종교활동이 추가되는 정도이며 가족이 공유하는 여가활동의 균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우리나라 기혼 성인은 평일 약 70% 정도, 일요일 약 85% 정도 가족여가를 공유하며 배우자와는 평일 약 50%, 일요일 약 70%, 미취학자녀와의 평일 7%, 일요일 약 14% 공유하였다. 미취학자녀와의 공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미취학자녀가 없는 집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평일과 일요일 가족과 공유하는 여가의 주된 활동은 미디어, 교제활동,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일요일의 경우 미디어 이용의 증가가 가장 커 일요일 늘어난 여가비율 및 시간은 미디어 이용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도 일부에서는 적은 비율

이지만 미디어 이용 외 다른 여러 가지 활동도 보이고 행위자 평균시간도 거의 1시간 이상인 것을 볼 때 일부 집단에서는 가족과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가활동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요일 배우자와 종교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 긴 것을 볼 때,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활동이 매우 중요한 가족공유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미취학자녀와의 여가 공유도 주로 미디어나 교제활동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여가활동 공유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취학자녀와의 다양한 방법으로 여가를 공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사회가 핵가족 위주의 가족 형태이기 때문에 그 외 가족 및 친척과 가족여가를 공유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여자가 더 많이 공유하고 있었다. 그 외 가족 및 친척과 여가 공유가 여자가 높은 이유는 여자의 높은 교제활동 공유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가족 및 친척과도 마찬가지로 미디어나 교제활동이 전부여서 이들 가족과도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4. 평일의 경우 가족이나 기타사람과 보다는 혼자 여가를 즐기는 경우가 많았으며 남자가 혼자 여가활동을 하는 경향이 크고, 여자가 가족들과 여가를 함께 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여가활동 중 약 1/4를 가족과의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교제활동을 제외하고 다른 여가활동은 혼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제활동은 전체적으로 가족보다는 기타 사람들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기타 사람들과의 교제는 많았다.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는 평균시간량은 적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높았다. 일요일의 경우 혼자하는 비율이 평일에 비해 감소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배우자, 그 외 가족 및 친척과의 공유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기타 사람들과의 비율도 감소하여 주말에는 혼자 또는 기타 사람들보다는 가족과 조금 더 함께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자는 혼자 여가를 더 많이 하고 가족여가는 여자가 더 많이 하는 등의 남녀차이는 존재하였다.

5. 평일과 일요일 모두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은 미디어 이용이나 교제활동보다는 행위자 비율이 많이 떨어지지만 행위자 평균은 미디어 이용과 같은 수준이거나 높게 나타났다. 즉, 일부 집단에서는 소극적 여가가 아닌 적극적 여가를 잘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와 비맞벌이 가족과 미취학자녀가 없는 맞벌이와 비맞벌이 가족의 네 집단을 비교해 보면 가족 공유 여가시간량은 미취학자녀가 있으면서 맞벌이인 가정이 가장 적었으며, 미취학자녀가 없으면서 비맞벌이인 가정이 가장 많았다. 행위자 비율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배우자와의 공유 여가 시간 역시 미취학자녀가 있고 맞벌이인 가족의 시간량이 가장 적었으며 미취학

자녀가 없고 비맞벌이인 가정이 가장 많았고 미취학자녀와의 공유 여가시간은 맞벌이인 가정에 비해 비맞벌이인 가정의 시간량이 많았다. 즉, 어린 자녀가 있고 맞벌이인 가족의 절대적인 여가시간 양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여가활동이 없어 시간이 적던 많던 간에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7. 가족공유 여가를 하는 집단은 연령이 젊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이며 배우자는 있고 미취학자녀가 있고,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노동시간이 짧고 비교적 출퇴근이 일정한 사무직일 경우이며,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가족공유 여가를 하는 집단의 특성을 시간 및 인적자원, 시간요구, 가치관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비취업이나 짧은 노동시간과 관련된 시간 자원, 유배우자와 미취학 자녀 관련된 인적 자원 등 자원의 측면, 긴 노동 시간과 경제활동과 관련된 시간의 요구 측면, 젊은 연령과 관련된 가치관의 측면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족공유시간 유형>

1. 가족구성원은 특정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키고 친밀감을 높이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다수 기혼성인이 평일에는 1시간 정도, 일요일에도 2시간 미만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할 뿐이므로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가족공유시간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노동시간관련 변수들의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가족공유시간이 적은 남성들이 가족공유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함께 평균 주당 5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3. 시간사용만족감이 평일의 경우 가족공유시간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일요일에는 차이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시간사용과 관련된 정서는 일요일의 시간사용 방식보다 평일의 시간사용방식과 더욱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일상적인 평일의 시간사용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제언

가족공유시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혼성인들의 6할 이상의 기혼성인들이 평일평균 1시간 정도의 시간만을 가족과 함께 하고 있으며 가족공유활동 중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식사시간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가족식사를 포함한 가족공유시간을 확대하고 가족공유활동을 다양화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노동시간은 가족공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변수이다.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실제 노동시간은 주당평균 50시간을 넘고 있으므로 정시퇴근 등 노동관례의 개선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할 대책이 필요하다.

2. 장시간노동의 개선과 함께 남성의 가정생활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 및 인식개선을 강화해야 한다. 가족공유 여부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촉진하는 것 이상으로 남성의 가정생활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양성평등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남성의 전인적인 발달과 생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사회전반에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하고 남성의 가정생활기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이나 기업내 직원교육 등 다양한 교육 경로를 통한 아버지 교육, 여성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패밀리 데이의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가족공유시간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은 한 부모가정의 장시간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미취학자녀를 가진 집단도 자녀돌보기로 인하여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은 길지만 다른 활동에서의 공유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맞벌이가족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가족공유시간이 부족하다. 가족의 기능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시간자원이 경제적 자원 이상으로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 취약집단의 시간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이돌보미 사업의 확대 등을 사회적 서비스의 예로 들 수 있다.

4. 가족공유시간이 생활시간만족도와 관련이 깊은 점을 기초로 국민의 행복지수, 또는 삶의 질 지수에 가족공유시간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5. 가족이 공유하는 여가활동이 주로 매스 미디어의 이용에 치중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여가활동이 매스 미디어 이용보다 활동참여자에게 다양한 긍정적 정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가활동의 균형이 중요하다.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여가를 위한 시설 마련, 이를 활용하기 위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일요일에 물품구입을 하는 남성의 3/4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물품구

입은 가사노동 과제이면서 동시에 여가의 성격을 갖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여가활동을 다양화하는 방안과 함께 가사의 여가화, 식사의 여가화도 가족 공유시간의 확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가까운 지역사회의 기관들이 가족여가를 포함한 가족공유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여가활동을 가족과 공유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e가족여가 festival’, ‘가족여가 UCC 공모전’, ‘가족여가 멘토 형성’등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확산시키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6. 2009년의 국민생활시간조사는 가족공유시간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성인의 가족공유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공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으나 함께 한 사람을 혼자, 배우자, 미취학자녀, 기타 가족·친척, 기타로만 분류함으로써 가족구성원 각자에 대해 보다 정밀한 분석이 불가능하고 특히 분석대상이 미성년 자녀일 경우 부모에 대한 응답이 세분되어 있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므로 2014년의 조사에서는 함께 한 사람의 구분을 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끝으로 앞으로 가족공유 식사, 가족공유 가사노동 및 가족공유 여가 각각에 대한 심층분석과 함께 부부를 대상으로 한 배우자공유시간 분석, 청소년 및 노년을 대상으로 한 가족공유분석 등과 같이 가족공유와 관련된 추후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국립서울병원(2006). 가족식사가 청소년 탈선 막는다. 지역정신보건 사업 지원.
- 김순옥·한상금(2006). 청소년기 가족의 여가생활을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요구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4(11).
- 김외숙(1978). 가족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3.
- _____ (1980). 고교생의 여가생활에 관한 조사연구-가족 레크레이션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논문집**, 14.
- _____ (1983). 중학생의 여가생활에 관한 조상연구-가족레크레이션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1.
- _____ (1988). 시간사용에 관한 분석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6(3).
- _____ (1999). 도시주부의 가족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의식 변화. 1977-1997년간의 비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27.
- 김외숙·이기영·이연숙·조희금·이승미(2005). 국민 생활시간 활용의 국제비교. 여성가족부·통계청. 「2004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결과 학술세미나」 자료집, 12.
- 김외숙·조희금·두경자(2003). **시간의 사용과 관리**. 서울: 교문사.
- 김정옥·구향숙(2002). 주부의 결혼적응도에 대한 가족공유활동의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4(1).
- 김정운·이장주(2003). 중년의 위기와 부부 여가. **한국여가문화학회, 여가학연구**, 1(2).
- 김하영(200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참가유형, 여가유능감 및 가족여가공유여부와와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32(3).
- 김현아(2004). 정상체중군과 비만군 아동의 가족요인과 식습관, 사회인지적 요인 비교. **아동간호학회지**, 10(3).
- 노용구(2005).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한 여가정책.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8.
- 농림수산식품부(2010). 초등학생부터 아침밥 먹는 식습관을 배운다.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보도자료.
- 문숙재·윤소영(2003). 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 문숙재·윤소영·윤지영(2005). 가족여가의 의미와 동기에 따른 여가 만족도 분석-가정지향적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 박건영(2006). **인천지역 초등학교 6학년 일부 어린이들의 가족식사 패턴과 영양소 섭취실태 조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
- 삼성경제연구소(2006). 경영의 새 話頭 : 일과 생활의 균형(WLB). 동향자료

- 안동선(1982). **주부의 여가유형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소영(2009). 가족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4).
- 이기영(1998).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 이기영·김외숙·구혜령(1995). 부부의 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3).
- 이기영·김외숙·구혜령(1995). 부부의 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3).
- 이기영·김외숙·서창원·이승미(1994). 도시근로자 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 이기영·이승미(199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 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2).
- 이문진·이연주·김재운 (2009). 가족여가의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2).
- 이승미(1997). **가족공유시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승미·이기영(1998).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 이영숙·박경란(2000). 청년기 손자녀와 조부모의 공유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0(3).
- 이지은, 정인경(2005). 초등학생 자녀의 식습관 및 영양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조사. **대한가정학회지**, 43(7호).
- 이철우·김은숙(1997). 일상 생활활동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동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 9.
- 이현아(1994).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와 가정생활문제에 관한 부부의 지각-장시간 노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옥선화(2008). **가족관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조희금(1990). 농촌주부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 _____ (1993).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1(3).
- _____ (1997). 사무직 기혼여성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1).
- 조희금·이기영·김외숙·이연숙·이승미·홍두승·조홍식·김유경·김주희(2006). **농가 가족원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 지영숙·이태진(2001). 도시가정의 가족여가 유형-자녀교육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 차승은(2008). 중년의 일, 가족, 여가시간 배분유형과 유형결정요인: 취업한 기혼 남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6(1).
- 하헌국(1995). 가족 여가지향성이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18(2).

- 한경미(1993). 기혼취업 여성이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 통계청(2001). 1999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보고서.
- 통계청(2005). 2004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보고서.
- 통계청(2010). 200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미리엄 와인스타인 지음 김승환 옮김(2006), 「가족식사의 힘」. 서울:한스미디어
- 아다치 미유키(2000).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의 식탁**. 모수미, 권순자, 이경신 역.
서울: 교문사
- Arndt, J. Gronmo, S. & Hawes, D. K.(1981). The use of time as an expression of life-style : A cross-national study. *Research Marketing*, 1.
- _____(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Enlarged Ed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aranowski, M.(1982). Grandparent-adolescent Relations : Beyond the nuclear family, *Adolescence*, 17.
- Barbara, H. F. & Marlene, S.(2008). Reclaiming the family table: Mealtimes and child health and wellbeing. *A Publication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2(4).
- Barnet-Verzat C., Pailhé A., Solaz A.(2005). Being together or entertaining together? The impact of children on couples' activity synchronization. working paper.
- Becker, G. S.(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299).
- Bianchi, S. M., Milkie, M. A. Sayer, L. C. & Robinson, J. P.(2000). Is anyone doing the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1).
- Bittman, M.(1999). Parenthood without penalty: Time use and public policy in Australia and Finland. *Feminist Economics*, 5.
- Bittman, M., fisher, K., Hill, P., and Thomson, C.(2005). The time cost of care.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2(1).
- Bradbury, B.(2004). Using Time Use Data to Estimate the Full Costs of Children.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Brown, P. R., Brown, W. J., Miller, Y. D. & Hansen, V.(2001). Perceived constraints and social support for active leisure amo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Leisure Sciences*, 23.

- Bryant, W. K. & Cathleen, D. Z.(1996). Are we investing less in the next generation? Historical trends in time spent caring for childre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7(3).
- Bryant, W. K. & Wang, Y.(1990). Time together, time apart: An analysis of wives' solitary time and shared time with spouse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1).
- Bryant, W. K. & Zick, C. D.(1996). An examination of parent-child shared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1).
- Cason, K. L.(2006). Family Mealtimes: More than Just Eating Together.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106(4).
- Chalasani, S.(2007).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education and their time with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4(1).
- Choo, K., Lee, J. H. & Song, C. H. (2006). Korean people's time use patterns in 2005 and changes since 1981. *Paper presented at IAIUR Conference in Copenhagen, Denmark*.
- Cicirelli, V. G.(1972). The effect of sibling relationship on concept learning of young children taught by child teachers. *Child Development*, 43.
- Compan, E., Moreno, J., Ruiz, M. T., & Pascual, E.(2002). Doing things together: adolescent health and family rituals. *Journal of Epidemiol Community Health*, 35(5).
- Couprie, H.(2007). Time allocation within the family: Welfare implications of life in a couple. *The Economic Journal*, 117(516).
- Crouter, A. C., Head, M. R., Mchaie, S. M. & Tucker, C. J.(2004). Family time and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 sibling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1).
- Davey, A. J. & Paolucci, B.(1980). Family interaction: A study of shared time and activities. *Family Relations*, 29(1).
- Deding, M. & lausten, M.(2006). Choosing between his time and her time? Paid and unpaid work of Danish couples. *Electronic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3(1).
- Eisenberg, M. E., Olson, R. E., Neumark-Sztainer, D., Story, M. & Bearinger, L. H.(2004). Correlations between family meals and psychosocial well-being among adolescents. *Arch Pediatr Adolesc Medm*, 158(8).
- Fedick, C. B., Pacholok, S. & Gauthier, A. H.(2005).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estimation of Parental time - Analysis of measure in a Canadian time-us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2(1).
- Fisher, K.(2003). Use of Time and Quality of Life, in Quality of Life, Illustrative

- Report, Dublin,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 Franko, D. L., Thompson, D., Affenito, S. G. & Barton, B. A.(2008). What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meals and adolescent health issues? *Health Psychology, 27*(2).
- Freeman, P. A., Palmer, A. A. & Baker, B. L.(2006). Perspectives on leisure of LDS women who are stay-at-home mothers. *Leisure Sciences, 28*.
- Fuess, S. M.(2006). Working hours in Japan: Who is time-privileged? *University of Nebraska at Lincoln-department of Economics;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IZA)*.
- Fulgini, A. J.(1997). The Academic Achievement of Family Background, Attitudes, an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8*.
- Fulkerson, J. A., Neumark-Sztainer, D. & Story, M.(2006). Adolescent and parent views of family meals.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106*(4).
- Gatenby, R.(2004). Married only at the weekend? A study of the amount of time spent together by spouses.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Gerner, J.L. & Zick, C.(1983). Time allocation decisions in two-parent families.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2*(3).
- Ghany, M. A. & Nickols, S. Y(1983). Husband/wife differentials in household work time: The case of dual-earner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2).
- Gonzalez-Chapela, J.(2006). On measuring heterogeneity in the use of time. *electronic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3*(1).
- Graham, S. E. & McCurdy, T.(2003). Developing Meaningful Cohorts for Human Exposure Models. *Journal of Exposure Analysis and Environmental Epidemiology 00: 1-21*.
- Gronau, R.(1977).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6).
- Hawkins, Harold and James Walters(1952). Family recreation activities. *Journal of Home Economics, 44*.
- Hofferth, S. L. & Sandberg, J. F.(2000). Changes in American Children's time, 1981-1997.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16*(1).
- Holman, T. B.(1988). Leisure-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A Further Tes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1).
- Jacobs, J. A. & Gerson, K.(2001). *Overworked individuals or overworked families?: Explaining trends in work, leisure, and family time*. Work and Occupations.

- Joyce, M. & Stewart, J.(1999). What can we learn from time use data? Monthly Labor Review August, 1999.
- Katherine L. C.(2006). Family Mealtimes: More than Just Eating Together.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106(4).
- Kay, T.(2000). Leisure, gender and family: the influence of social policy. *Institute of Sport and Leisure Policy, Loughborough University, Leicestershire, LE11 3TU, UK. Leisure Studies*, 19.
- Kingston, P. W. & Nock, S. L.(1987). Time together among dual-earner couples.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52(3).
- Knowles, S. J.(2004). Marital satisfaction, shared leisure, and leisure satisfaction in married couples with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 Theses. Oklahoma State University(Citation/Abstract).
- Kooreman, P. & Kapteyn, A.(1987). A disaggregated analysis of the allocation of time within the household.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2).
- Lee, K. Y., Kim, O. S., & Koo, H. Y.(1995). Shared leisure time with spous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33(3).
- Lee, S. M. & Lee, K. Y.(1998). A study on the time shared with parents and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16(2).
- Lesnard, L.(2008). Off-scheduling within dual-earner couples: an unequal and negative externality for family t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4(2).
- Mareno, V. & Galiano, S.(2006). The family meal. Somewhat more than eating together. *ACTA PEDIATRICA ESPANOLA*, 64(11).
- McCurdy, T. & Graham, S. E.(2003). Using Human Activity Data in Exposure Models: Analysis of Discriminating Factors? *Journal of Exposure Analysis and Environmental Epidemiology*. 13.
- Michelson, W.(2003), Focus on Home: What Time-Use Data Can Tell About Caregiving to Adults, *Journal of Social Issues*, 59(3).
- Milke, M. A., Mattingly, M. J., Nomaguchi, K. M., Bianchi, S.M., & Robinson, J. P.(2004). The time squeeze: Parental statuses and feelings about time with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 Miller, Y. D. & Brown, W. J.(2005). Determinants of active leisure for women with young children "Ethic of care" prevails. *Leisure sciences*, 27.
- Mohmed, A.G. & Sharon, N.(1983). Husband and Wife Differentials in household work time: The case of dual-earner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2).
- Nancy, G.(2006). Time. The magic of the family meal. New York:

- <http://gatheraroundthetable.wordpress.com/the-magic-of-the-family-meal/>
- Nickols, S.Y. & Abdel-Ghany, M.(1983). Leisure time of husbands and wiv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2).
- Nomaguchi, K. M.(2006). Time of one's own: Employment, leisure, and delayed transition to motherhood in Japan. *Journal of Family Issues*, 27(12).
- O'Mullan Wayne, D. & Krishnagiri, S.(2005). Parents' leisure: the impact of raising a child with down syndrome. *Occupational Therapy International*, 12(3).
- Oropesa, R. S., Ponzetii, J. J. & Olson, G.(1989). Time demands on families: Is there a bollom line? *Life 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4).
- Orthner, D. K.(1975).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marital care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1).
- Pääkkönen, H. (2008), Alone at home.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5(1).
- Paul, W. K. & Steven, L. N.(1987). Time together among dual-earner coup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3).
- Pentland, W. E., Harvey, A. S., Lawton, M. P. and McColl M. A.(1999). Time Use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s,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Piani, G., Rossi, M. & Ferre, Z.(2004). Household Time Use, Working Paper Series, Department of Economic, University of Uruguay.
- Rathunde, K. & Csikszentmuhalyi, M.(1991). Adolescent happiness and family interaction. In K. Pillemer & K. McCartney(Eds.). *Parent-child relations throughout life*. Hillsdale. NJ : LEA.
- Roeters, A., & Treas, J. K.(2010). Parental work demands and parent-child, family, and couple leisure in Dutch families: What gives? *Journal of Family Issues published on line*, 30.
- <http://www.sagepublications.com>
- Sandler, I. N.(1980). Social support resources, stress and maladjustment of poor children. *Am J Community Psychol*, 8.
- Sayer, L. C.(2001). *Time use, gender and inequality: differences in men's and women's market, nonmarket, and leisure tim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Maryland.
- Shaw, S. M. & Dawson, D.(2001). Purposive leisure: Examining parental discourses on family activities. *Leisure Sciences*, 23.
- Shaw, S. M.(1997). Controversies and contradictions in family leisure: An analysis of conflicting paradigm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1).
- Shaw, S. M.(2008). Family leisure and changing ideologies of parenthood. *Sociology Compass*, 2(2).

- Shelton, B. A. & John, D.(1996).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nual Reviews.
- Shelton, B. A.(1992). *Women, Men, and Time Gender Difference in Paid Work, Housework and Leisure*. Greenwood Press, Westport.
- Smith, K. M., Freeman, P. A. & Zabriskie, R. B.(2009). An examination of family communication within the core and balance model of family leisure functioning. *Family Relations*, 58(1).
- Stewart, J.(2006). Assessing alternative dissimilarity indexes for comparing activity profiles. *electronic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3(1).
- Stinson, L. L.(1999). Measuring how people spend their time: a time-use survey design. *Labor Review August 1999*.
- Sullivan, O.(2007). Cultural voraciousness–A new measure of the pace of leisure in a context of "harried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4(1).
- Wharton, A. S. & Baron, J. N.(1987). So happy together? The impact of gender segregation on men at 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5).
- Yeung, W. J., Sandberg, J. F., Davis-Kean, P. E. & Hofferth, S. L.(2001). Children's time with fathers in intac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 Zabriskie, R. B. & McCormick, B. P.(2001). The Influences of Family Leisure Patterns on Perception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Relations*, 50(3).
- Zick, C. D. & McCullough, J. L.(1991). Trends in married couples' time use: Evidence from 1977-78 and 1987-88, *Sex Roles*, 24.
- USDA(2006). Enjoying the family meal. Nibbles for health 8.
<http://www.fns.usda.gov/tn/resources/nibbles/enjoying.pdf>
- Waxman, M.(2006). The importance of the family meal.
<http://macrobiotics.co.uk/familyhealth/familymeal.htm>

<Family leisure>

<http://www.cpra.ca/UserFiles/File/EN/WordDocs/policies/FamilyLeisure.doc>

<http://family.jrank.org/pages/1064/Leisure-Family-s-Influence-on-Leisure.html>

family's influence on leisure

<http://www.direct.gov.uk/en/Parents/Familyleisureandrecreation/index.htm>

<http://www.clemson.edu/newsroom/articles/2008/february/SFYCMB.php5>

http://www.blackwell-compass.com/subject/sociology/article_view?article_id=soco_articles_bpl076

<http://uwspace.uwaterloo.ca/handle/10012/2763>

http://findarticles.com/p/articles/mi_m0PAV/is_3_6/ai_n31007065

<http://www.questia.com/googleScholar.qst?docId=5001663682>

부 록

1. ‘함께 한 사람’ 보충설명 자료(통계청)

<주행동을 함께 한 사람>

1. 정의

- 함께 한 사람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주행동 자체를 아는 누구와 함께하였는지에 해당함.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기 서로 다른 행동을 했다면 함께 한 사람이 아님)
- 함께 한 사람은 5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
 - ① 혼자, ② 배우자, ③ 미취학자녀, ④ 그 외 가족·친척, ⑤ 기타

2. 분류 기준 및 예시

- 동일 행동이라도 행동이 주고받는 관계일 경우(서비스 주는 사람 - 받는사람) 함께 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음
 - 예) ‘엄마가 미취학자녀 어린이집 데려다주기’의 경우
 - 함께 한 사람은 「혼자」
-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서로 상호작용이 없다면 함께 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음
 - 예) ‘근무지에서 본인의 자리에서 혼자 일하기’의 경우
 - 함께 한 사람은 「혼자」
- 전화통화의 경우는 상대방을 함께 한 사람으로 잡음
 - 예) 거래처 상담전화, 친구/가족 등과 전화 등)
- 학부모와 담임선생님과의 상담, 보험회사 직원이 고객과 상담의 경우는 ①
- 함께 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군중, 회중, 불특정 다수)일 경우와 주행동이 수면일 경우는 「혼자」로 조사
- 함께 한 사람이 여러 항목인 경우 중복선택 가능
 - 주행동을 배우자와 미취학자녀와 함께 한 경우 : ②③
 - 주행동을 배우자, 미취학자녀, 그 외 가족과 함께 한 경우 : ②③④
 - 주행동을 배우자, 미취학자녀, 그 외 가족, 기타사람들과 함께 한 경우 : ②③④⑤